
1995年度行政事務監査 生活環境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産業經濟局

日時 1995年11月27日(月) 午前11時
場所 生活環境委員會會議室

(10時09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寧剛;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産業經濟에 대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産業經濟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議政活動 勞苦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産業經濟局 業務의全般과 傘下 事業所 및 서울特別市 事務委託機關에 대하여 監를 마치고, 오늘도 産業經濟局 所管 行政 事務監査를 實施하게 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오늘은 産業經濟局所管의 마지막 議事日程이므로 훌륭한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地方自治法 第36條第4項에 의하여 産業經濟局所管 行政事務監査의 參考人으로 서울特別市農水産物 都賣管理公社 金昌浩 社長께서參考人으로 參席하셨습니다.

아울러 産業經濟局長 以下 關係公務員께서는 지금까지 監査를 受監해 온 바와 같이 성실하 行政事務監査를 受監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參考人에 대하여는 우리 委員님들의 質問容이 서울시에서 아직 하나밖에 運管되지 않는 大規模 農水産物理賣市場의 利用에 대하여 지금까지 서울시민이 利用하는 過理에서 不便한 점이나 부당한 점이 없는지, 또는 앞으로 善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市民의 代辯者로서 質問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 參席하신 參考人께서는 委員님들의 質問事項에 대해 성실하게 거짓 없는 答辯과 솔직한 意見을 陳述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 시작에 앞서 參席하신 參考人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방금 紹介받은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新任 社長 金昌浩입니다.

두 달 전에 就任을 해서 이제 業務把握은 어느 정도 把握을 했습니다만 오늘 參考人으로 와서 委員님들께 答辯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産業經濟局所管 行政事務監査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便宜上 監査 進行方法을 産業經濟局長 또는 參考人에게 一問一管式으로 進行하고 하는데 委員 여러분, 어떤 意見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産業經濟局長과 參考人에게 一問一答 式으로 進行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元植 委員; 禹元植委員입니다.

參考人으로 나오시면서 먼저 이렇게 報告하실 內容은 전혀 準備가 안 되어 있는지?

○委員長 金寧剛; 油印物 配付해 드리세요. 油印物 다 받으셨지요?

("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元植 委員; 이것을 먼저 報告를 좀 받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委員長 金寧剛; 그러면 社長께서 油印物에 대하여 간단하게 說明을 좀 해 주시지요.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지난 번에 禹元植 委員님께서 水產物의 여러 가지 題點에 대해서 質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水產物에 대해서 資料를 準備했습니다. 그 資料에 앞서서 저희 市場의 實態를 잠깐 먼저 說明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商人間에 첨예한 利害關係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두 달 전에 當 公社 就任해서 同 問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指摘하신 仲都賣人하고, 販하고, 소위 날마리상과의 연결고리와 直販商人과의 商權다툼이 비단 水產物뿐만 아니라 과실, 채소분야도 유사한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靑果分野는 物量과 品目이 많고, 拔商人도 多數인데다가 販賣場所가 어느 정도 격리가 되어 있으므로 現場에서의 격돌은 적은 반면, 水產物은 過去 直販商人들을 위하여 靑果와 마찬가지로 直販場을 별도로 水產物 販賣에 적합하게 建設을 해서 商行爲를하도록 하였으나 直販商人들이 이를 극렬히 반대하였고, 심지어는 당시 平民黨

黨숨에까지 몰려가서 한 달간이나 黨숨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끝에 결국은 仲都賣人이 競賣를 하는 都賣區域內에서 小賣行爲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水産物直販商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商街는 결국靑果 直販商들에게 配分해 주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水産分野는 都賣商과 小賣商이 함께 장사하기를 원했든가 하면 水産物의 商品 特性上 輸送車輛에서 한 번 荷役한 다음에 계속 이를 上·下車를 통하여 이동을 한다면 運搬費가 追加가 되고, 商品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며, 消費者들도 많은 物量이 함께 모여 있고 풍부한 구색이 갖추어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므로 市場의 生理上 都賣商과 小賣商이 싸움을 하면서도, 마치 사이 나쁜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도 자식 낳고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함께 사는 것처럼 不可分の 關係를 지금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現 體制下에서 相當物量의 蒐集은 사실상 仲都賣人이 產地別로 이미 競賣가 되어서 價格이 決定된 商品을 단지 서울로 끌어올려서 農安法上的 強制 全量 上場競賣라는 原則 때문에 都賣法人을 통하여 재차 競賣를 거친 후 分散을 시키고 있는데 物量面에서 보면 仲都賣人이 직접 他 小賣商에게 販賣하는 量이 30% 내지 40%이고, 仲都賣人이 仲販을 거쳐 날마리상까지 연결돼서 하는 그 고리에서 販賣되는 量이 전체 한 60%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直販商人들이 販賣하는 量이 全體 分散되는 量의 5% 내지 10%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狀態 下에서 市場 流通의 대혼란이 없이 정상적인 都賣行爲와 小賣行爲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3 내지 5個年 정도의 都·小賣 分離計劃을 먼저 세우고, 사전에 關係 商人들과 저희 公社와, 또는 學界와 함

게 모여서 충분한 協議와 檢討를 통해서 보다 長期的이고 相互 發展的인 對策을 樹立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코앞의 相互 利益을 위해서 극렬하게 대립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못 내리는 것이고 인내심을 갖고 계획성 있게 過去의 矛盾點을 하나씩 바로 잡을 때 우리 流通의 秩序는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流通如水라는 말이 있듯이 流通은 마치 물 흐르는 것과 같이 過去 溪谷을 거쳐 구비 구비 흘러오는 그 理由가 다 있고, 앞으로 바르고 빨리 흐르기 위해서는 똑바른 水路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參考資料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

(報告)

水産市場 運營實態 및 改善對策

(뒤에 실음)

.....

이상 水産物市場의 運營실태 및 改善對策에 대해서 報告를 올렸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있으십니까? 閔泳三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泳三 委員; 閔泳三 委員입니다.

먼저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를 죽 살펴보면 第3條 第2項의1號에 보면 都賣市場法은 都賣市場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出荷者 및 仲都賣人에게 각각 委託上場手數料 수입의 150/1000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法人이 지금까지 장려금을 지급한 事例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장려금의 성격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성격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同 條例 第9條第1項에 보면 法人, 仲都賣人, 기타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市長의 승인없이 轉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轉貨, 不法 타인에게 讓渡한 사례가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고, 지금 실태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第2項에 보면 都賣市場의 施設을 新築, 增築, 撤去 또는 형태변경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第14條에 보면 都賣市場 法人은 仲都賣人 法令 및 條例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市長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法人이 仲都賣人の 法令 및 條例違反 사례를 신고한 신고접수철, 신고접수대장이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條例에 준한 몇 가지 質問이었고요, 실질적으로 水産市場棟을 가서 보면 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法的으로 보장된 施設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不法입니다.

○閔泳三 委員; 제가 알기로는 회센터가 실질적으로 市場構造도면으로는 仲都賣人の 사무실 設이거든요. 仲都賣人 사무실 施設이 不法으로 회센터가 되어서 일반 商人들 영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조금 이따 答辯들으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駐車場問題가 굉장히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市民들이 가서 市場을 보는데 굉장히 不便한데, 실질적으로 提出한 資料에도 市場 駐車場을 타 용도시설로 바꾼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水産市場棟 같은 경우 500坪, 천육백오십몇점 m² 정도인데 그것이 競賣場이 족해서 競賣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駐車場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競賣場이 부족한지 이것을 答辯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駐車場이 부족해서 새로 新築한 駐車場 건물이 있죠, 그것이 현재 竣工檢査가 났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假使用申請이 금주 중에 날 것입니다.

○閔泳三 委員; 竣工檢査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假使用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까, 지금?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그 동안 松地區廳에다가 신청한 것은 꽤 오래 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假建物を 撤去하는 조건으로 일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撤去하는 과정 중에 假使用 신청을 우선 내 주기로 그렇게 받고, 그리고 行政節次만 남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일부 사용하고 계세요? 그것도 不法的인 사례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그렇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리고 報告書에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仲販의 問題點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仲販이 資料에 보면 法人, 仲都賣人에게 받아서 仲販이 소비자들에게 하는 유통구조로 돼 있는데 仲販 자체는 不法 유통구조죠, 法的으로 보장돼 있지않은?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그렇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럼 農水産市場은 다 不法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仲販이 단순히 仲都賣人에게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파는 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質疑는 이 정도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聖浩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浩 委員; 金聖浩 委員입니다.

본래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營轄 常任委는 서울시 委員會設置條例에서 업무분담할 적에 財務經濟委에 소속되는 바람에 우리 生活環境委에서 즉 다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財務經濟委에 현장부서가 없다고 그래서 草創期 3代 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後半期에는 분명히 입장 정리를 해서 産業經濟局長所管 業務인데도 財務經濟委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問題點으로 指摘을 하면서 한 두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前半期 3代 때도 速記錄이나 會議錄 보면 지금 農水産物都賣市場에서 問題點으로 指摘하고 改善對策을 내 놓고 하는 이런 問題가 항상 다반사로, 또는 기계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런 問題點과 改善對策이 논의되고 하는데 草創期 이후에 바로 이런 問題點이 저는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仲販과 直販商人의 갈등, 이런 問題點 모든 것이 公社側의 몫이 안서고, 한 마디로 단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대책만 세우겠다는 기본적인 答辯만 할 뿐이지

현장에 가보면 전혀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側의 습이 안
됩니다, 한 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問題點이 항상 존속
하고 있고, 公社 직원 뿐만 아니라 강동수산이라든지 法人의
직원들도 농간에 포함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公社 社長님
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확실히 都賣公
社측의 습을 세워서 이런 모두 問題點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
실히 정리를 해 주시고, 날마리상의 단계적인 정비라든지, 仲
販對策,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계속적인 答辯만 하실 것이 아
니라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이런 모든 問題點
에 대해서 把握을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正植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正植 委員; 金昌浩 社長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城北區出身 黃正植 委員입니다.

지금 金昌浩 社長님께서 改善策 方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많습시다만 장기대책으로 都小賣區域 공
간분리 推進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
습니까? 장소도 물색해야 하고 건물도 많은 豫算을 세워서
지어야 하고, 그러는데 여기 豫算對策이라든지 형식에 불과한
改善對策을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했을 때는 豫算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
어가고, 어떤 장소물색을 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問題가 생깁니다. 거기는 우리 서울에
서는 제일 큰, 그야말로 대규모 農産物市場인데 거기는 生存
權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仲販關係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同僚委員

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直販이라든지, 또는 仲都賣라든지 어떤 알력이 많이 있으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法的問題도 대두된다고 볼 수 있는데 公社에서는 그러한 問題를 法을 떠나서 道義的인 면에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놓은 것이 있는가, 公社社長이 나가서 어떻게 중개역할을 해서 화해를 시킬 수는 없는 問題 아닙니까, 그런 問題가 한두 件도 아니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응집이 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수십 件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우리 千百萬 서울市民들이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관계를 이용하는데 아까 전철과 驛勢圈 관계를 했는데 驛勢團이라고 하는 것은 準商業地域을 얘기하는 건입니다, 驛勢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區域整理라든지 다방면에 돼 있는가. 지금 可樂市場이 松坡區에 해당이 되죠, 그것이 問題고. 그런데 小賣商人을 별도 수용시설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의 대책과 분산관계를, 우리 社長님께서 오셔서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業務把握은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問題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問題는 外國 같이 어떠한 天災로 인해서 서울市民이 流通過程에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수용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生産地에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關係에 대해서 對策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소상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金昌浩 社長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우리 千百萬 서울市民이 그야말로 싱싱하고 시기적절하게 農産物을 그 때 그 때의 供給需要에 의해서 流通을 해서 不便한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禹元植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元植 委員; 新任 社長으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可樂洞農水産物都資市場의 改革을 위해서 열심히 不撤晝夜 資力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앞으로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이 실질적인 都賣市場으로서, 그리고 市民들이 使用해 가는데 不便이 없는 市場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質問의 內容은 가서 저희들이 調査도 해 보고, 商人들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直販商人 가게에 가서 소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無籍 小賣商人들, 날마리상이라고 하는 商人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많이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問題가 提起되는 여러 가지 部分에 대해서 와서 商人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團束이나 지나친 規制를 통해서 淨化해 나간다고보다는 그분들을, 아까 社長께서 對策으로 얘기하셨던 長期的인 對策을 세워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 가면서 不樂市場을 실질적인 都賣市場의 機能을 갖도록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問題는 法人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可樂洞農水産物都賣市場의 강동수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不法的인 狀況이 총체적으로 責任은 法人에 있고, 法人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돈을

별기 위한 不法行爲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法人에 대한 철저한 調査와 그에 따르는 措置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해 오지 못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의 法人과 關係되는 問題點 이런 것들에 대한 調査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問題點을 指摘하겠습니다.

우리 閔泳三 委員께서도 質疑를 하셨는데 問題의 出發은 가서 駐車를 하기 어렵다는데서부터 出發했습니다.

특히 水産市場棟에 들어가면 정말 車 대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어떻게 車를 안정적으로 대놓고 가서 물건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每年 갈 때 마다 그 차이가 점점 더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다른 理由로 해서 駐車場을 점점 잠식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結果가 나오는데, 그것의 結論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駐車하기가 어려우니까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商人들한테도 물어 보니까 점점 賣上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駐車하기 힘들어지고, 사람이 오지 않고,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드니까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이 市場으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現代的인 市場으로서의 機能을 하기 보다는 그야말로 복잡한 舊 在來市場으로 자꾸 轉落해 가고, 賣上도 떨어지고, 市場機能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要求한 資料에 의하면 駐車區劃이 처음 既存 駐車區劃은 3,902臺를 駐車할 수 있도록 했는데 競賣場 등으로 잠식한 것이 1,127臺고, 그래서 현재 駐車 可能區劃이 既存 駐車區劃中에서는 2,775臺가 남았고, 그 다음에 水産市場 新築 駐車場 1층, 2층, 옥상 이렇게 다 해서 지금 가능한 駐車區劃이 2,621

臺로 처음設立當時의 既存 駐車區劃보다 281臺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市場機能이 活性化됨에 따라서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었다는 것은 정말 問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水産市場을 예를 들면 안에 競賣場으로 만들어 놓은 施設에 다른 商人들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仲販이 들어오고, 원래 直販은 처음부터 許可를 내 주었으니까 論外로 친다고 하더라도 仲販이 들어오고, 都·小賣를 하는 商人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冷蔵庫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既存의 競賣場이 競賣場 機能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담벽을 헐고 臨時競賣場을 設置를 했지요. 그 臨時競賣場을 設置해서, 그것도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에서 許可를 내주기는 했지만 아까 閔泳三 委員 指摘대로 아직 問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競賣場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도 競賣場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 枱판 지붕이 臨時競賣場 天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또 競賣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停車場에다 다 물건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駐車を 해 놓을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過程 自體가 合法的으로 이루어진 部分은 어느 部分이고, 不法的으로 이루어진 部分은 어느 部分인지 이것에 대해서 疏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壁에 設置되어 있었던 競賣를 알리는 電光板이 撤去가 됐는데 資料에 의하면 電光板을 비싼 돈으로 設置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活用하질 않았어요. 그것을 使用中止시

키는 理由도 처음에는 그것을 競賣場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電光板까지 最新施設로 設置했는데 運營하는 經費가 많이 든다 이런 등등의 理由로 해서 使用中斷을 시키고, 競賣場이 비좁다는 理由로 撤去를 하면서, 처음에는 許可를 내주지 않다가 나중에 許可를 내주어서 그것을 撤去까지 해서 전혀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그것도 許可 내준 것 자체는 合法인데 市民의 귀한 돈을 들여서 십 몇億 되는 돈으로 設置한 것을 使用도 별로 안하고, 여러 다른 理由를 들어서 撤去까지 하게 된 理由는 뭘지? 그리고 外壁을 撤去했다면 그것은 競賣場이 좁다고 해서 撤去를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또 商人들을 다 앉혔어요. 거기에서 疑惑이提起가 되는데 어떤 疑惑이 있느냐 하면 300m정도의 壁을 撤去해서 競賣場으로 사용하겠다고 要請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는 93年 5월에 이것을 許可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無籍商人 36名을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도는 얘기에 의하면 法人이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주면서 月 한 1億 6,000萬원의 手數料를 徵收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年間 한 20億원 정도의 收益을 올리고 있다구요.

이것이 法人으로 報告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調査해 보신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閔泳三 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報告해 주신 資料에 의하면 流通過程을 보면 生産出荷者에서부터 消費者까지 가는 과정이 원래 農安法上에 없는 仲販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 거치면서 한 60% 정도되는 出荷 物件들이 生産出荷者와 都賣市場法人, 仲都賣人, 仲販, 날마리상 이런

게 가면서 다른 것과는 다르게 流通經路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農安法을 制定하고 이렇게한 理由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理由는 生産者들은 보다 좀더 좋은 價格으로 出荷를 하고, 消費者들은 보다 싼 價格으로 物件을 사기 위해서 이런 市場도 만들고, 이런 流通經路를 만들었는데 法에도 없는 仲販이 끼어서 流通過程이 하나 더 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消費者한테 오는 被害는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매해 갈수록 나아지기보다는 악화되는, 駐車場 使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不法的인 狀況들이 하나 하나 改善돼 가기되다는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의 實態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改善돼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仲販問題를 큰 무리 없이, 그리고 都賣 市場法人이 지금까지 해왔던 不法的인 이런 자리배정과 流通經路의 追加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都賣市場法人이 生産出荷者로부터 物件을 받아서 上場을 하고 仲都賣人으로 넘기면서 手數料를 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蒐集機能이 都賣市場法人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仲都賣人이 대부분 다 갖고 上場競賣도 하고 一部販賣도 하고, 그러니까 이 經路가 지금 저희한테 報告한 經路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이지요. 仲都賣人이 실질적으로 蒐集과 分散機能을 갖고, 都賣市場法人은 그냥 앉아서 生産出荷者와 仲都賣人 사이에서 이것도 價格自體는 낮춘다는 것입니다, 手數料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남는 실제 去來量 내지는 價格보다 낮은 價格으로 都賣市場한테 手數料를 남겨주고, 실질적으로 法人은 그 過程

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해요. 手數料만 갖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都賣市場法人이 실질적인 蒐集機能과 競賣機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確認해 보신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轉賣·轉貸, 역시 閔泳三 委員께서도 指摘하셨는데 이 都賣市場法人 施設 使用契約 書에서도 보면 第1條第3項에 法人은 施設物에 대하여 그 본래의 用途 이외의 用途로 使用해서는 안 된다 이런 規定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轉賣·轉貸 行爲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지금 法人에서 다 默認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마다 하나하나 處理를 해 나갔으면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이런 轉賣·轉貸 行爲를 알면서도 法人에서 모종의 뒷거래를 통해서 하나하나 默認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공공연한 형태로 변화돼 있다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동수산에 있는 仲都賣人 商人 사무실을 보면 회센터로 다 변해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그냥 회센터인줄 알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을 다 轉賣·轉貸 해 줘서 그 앞에 좌판을 펴서 회를 팔고, 그것은 直販商人도 마찬가지고. 直販商人도 거래만 해야 되는데 음식물 파는 것 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轉賣·轉貸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해서 일일이 摘示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本人들한테 불명예스럽기도 해서 摘示는 하지 않습니다.

轉賣·轉貸 행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仲買人 증원문제, 無籍商人을 현실화시키는 문제, 강동수산의 無籍商人과 결탁 문제, 심지어는 날마리상 같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 물론 장기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團束을 빙자

해서 험박해서 돈 뜯어가는 행위 굉장히 많아요. 이것 다 法人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指摘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把握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不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報告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仲買人들의 소매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把握되신 것 報告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지붕 屋上棟을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식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라 부식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民願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이 어느 정도 부식돼 있는지, 이것이 不實工事は 아닌지에 대해서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成浩 委員 質疑하세요.

○李成浩 委員; 新任 社長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는데 民願書類를 죽 살펴보다 보니까 판매품목 제한 때문에 계속 民願이 들어오는데 시금치, 사과, 마늘 이런 등등을 競賣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民願이 계속 들어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大하청과에서 8個 품목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신규지정됐기 때문에 고구마 등 다른 것은 出荷를 못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大하청과에서만 民願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계속 民願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大하청과만 관련된 것 같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사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駐車場問題 계속 얘기되는데 여기 民願에서도 가

장 많이 되는 것이 역시 駐車場問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현황에도 보면 즉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미루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駐車問題 관련해서. 즉시 解決策을 강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추후하겠다는 식의 答辯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問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水産市場 내에 淸淨農水産物理流센터를 짓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民願이 있었는데 物流센터는 유통업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주차난은 주차건물운영을 효율화로 하겠다고 얘기한 것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근 民願인데 駐車問題를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현재 物流센터가 駐車場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 委員들이 指摘했듯이 問題가 아닌가, 그래서 차제에 뭔가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분명한 원칙이 市場 내에서도 정립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 委員들이 얘기했던 競賣場에 直販商人 들어서는 것이나, 駐車場에 각종의 商人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나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民選時代에 새로 부임한 社長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되어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신 委員, 閔泳三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閔泳三 委員; 우리 産業經濟局長님께 간단하게 여쭙어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도 조사를 몇 委員들하고 가서 해 보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都賣市場은 問題點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産業經濟局에서는 都賣市場의 管理監督이라든지, 行政指導 이런 역할이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編制上으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지금 이 農水産流通課에서 可變市場을 담당하는 部署는 거기에 農水産流通係에서 관장을 합니다. 거기에 직원이 지금 3, 4名 정도만 있기 때문에 可樂洞 農水産物을 담당하는 직원이 결국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本廳에서는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운영관계, 유통관계 실질적인 것은 거기에서 社長님 지휘하에 처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한 行政的인 조치, 또 法人에 대한 어떤 신규 승인문제, 그 다음에 市 豫算은 施策的으로 해서 物流에 대한 政策的 立案關係, 이 관계는 本廳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駐車場問題라든지, 商人들의 유통 商行爲問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監督한다는 것은 실제 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法人의 경우에 계약서상의 問題點,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계약서상에도 있고, 條例上에도 되어 있는데 法人許可 취소부분은 결국 우리 産業經濟局所管業務라는 얘기입니까?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그렇습니다. 法人許可관계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을 전부

처리를 해서 取消는 市長이 해야 되기 때문에, 行政行爲를 本廳에 올려서 여기서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金箕英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箕英 委員; 金箕英 委員입니다.

연일 監査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局長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번 물으려다 묻지를 앓았는데, 오늘 水産市場에서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産業經濟局所管이기 때문에 局長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中小企業育成基金 運用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定은 運轉資金과 構造改善資金의 두 개 基金計定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基金運用條例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構造改善資金의 조성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627億원의 資金은 긴급히 조성된 資金입니다. 그러나 '95年度 基金運用計劃 수정을 보면 '95年度 자금수입계획이 439億 8,000萬원인데 이 資金 운용규모와 금융이자 수입 36億 6,100萬원의 수입을 고려하면 構造改善資金을 별도로 제2금융 기관 등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금의 예치금융 기관 및 예치은행의 이자조건과 또 별도 計定으로 여유자금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도 '95年度 자금수입계획에서 230億원의 차입을 한 이유를 局長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서류로 提出해 주셔도 됩니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金箕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죠, 없으시면 지금 答辯이 되겠습니까? 答辯 준비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마침 저희들이 내일부터 財務經濟委員會 行政事務監査를 이틀간 받기 위해서 지금 質問하신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인데 거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答辯資料가 있습니다. 시간여유를 조금 주시면 카피를 떠서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드리고 거기 부족한 것들 또 보충으로 제가 직접 설명해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그러면 答辯準備를 위해서 앞으로 20분간 停會를 할테니까 그 20분 동안에 準備를 해 주셨다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寧剛; 11時 30分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07分 監査中止)

(11時43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寧剛;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參考人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은 그 자리에 앉아서서 速記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놓으시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먼저 委員님들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調査를 해 주시고 質疑를 해 주

서서 저희들이 答辯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좀 쉬운 면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関泳三 委員께서 指摘하신 都賣市の 奨勵金 1.5%에 대해서는 마침 저희들 資料가 있기 때문에 資料로 대신해서 説明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法人의 轉貸問題가 不可로 되어 있는데 그 不法事例에 대해서도 저희가 資料 準備된 것이 있어서 資料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新築問題와 撤去의 禁止事例에 대해서는 마침 管理部長이 같이 參席해서 이것을 説明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仲都賣人 不法事例에 대해서 申告綴, 接受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接受綴은 저희들이 별도 만든 것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業務部長이 説明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센터 不法使用 問題에 대해서도 業務部長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駐車場 問題에 대해서는 여러 委員님께서 指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仲販問題에 대한 것도 業務部長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関委員님의 駐車場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는今年 1月 1일부터 全 品目 上場 賣買를 農安法에 의거해서 決定이 되었습니다. 또 水産物은今年度 7月 1일부터 全 品目 上場 賣買를 實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面積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도 假建物로 지금 천막을 쳐서 過去에 駐車場으로 쓰던 面積을 현재 競賣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281臺가 부족하다고 禹委員께서도 指摘을 하셨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번에 南側에 있는 菜蔬棟 一部를 撤去를 하고, 270臺의 菜蔬配送場을 또 별도로 來年 3月末까지 完了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假使用 承認을 申請해서 今週에 確定될 것으로 보이는 駐車場 建物は 今週부터 正식으로 사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問題에 대해서는 農安法에 의해서 今年度에 갑자기 과일과 채소와 水産物이 1月 1日과 7月 1日에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것이 실시가 됐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解決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長期的으로 당초에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는 任務 즉, 都賣市場 管理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各급적 消費者가 직접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을 訪問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消費者에게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弘報를 할 것이고, 이 問題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消費者의 直接的인 出入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5萬 6,000臺의 車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顧客數가 16萬 5,000名이 하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한 都賣市場으로서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이 지금 機能을 못 발휘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積貯容량이 4,040 톤입니다만, 현재 物量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하루에 8,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의 物量이 들어오고 있고, 都·小賣가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不法的으로 자행되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市場機能의 마비를 우려해서 사실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來年度 未에 九里市場 5萬 4,000坪이 完工이 되고, 또 곧 이어서 西南圈市場이 來年度에 着工이 되고 해서 2個의 市場들

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建設이 되어서 物量의 分散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都賣市場의 機能을 회복하고, 또한 정상적인 運營을 法대로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閱委員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것을 擔當…….

○閱泳三 委員; 質疑해도 되지요?

○委員長 金寧剛; 一問一答으로 하세요.

○閱泳三 委員; 駐車場 問題에 대해서 좀 觀點이 다른 것 같아요, 社長님하고, 本委員하고. 社長님께서는 駐車場이 農安法 改正으로 인해서 다른 農水産物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駐車場이 부족하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上場競賣를…….

○閱泳三 委員; 法律的인 用語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駐車場으로 圖面上 돼 있었던 地域에 無籍仲販商人들이 다 野積을 해 놓고, 실질적인 狀況은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上場競賣된 物量들이 있어서 새벽市場에 가면 駐車場이 부족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側面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側面에서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駐車場에 無籍仲販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物量들 이런 것을 전부 野積하고, 그래서 결국은 無籍 仲販商人들한테 法人이나 公社側에서 아무튼 駐車場을 내준 꼴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눈감아주는 疑惑이 있지 않느냐 하는 疑惑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天幕 臨時競賣場을 만드셨잖아요. 天幕 臨時競賣場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駐車場 施設을 잠식하는 것이거든요. 잠식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 部分에 대해서 여쭙어 보았던

것입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天幕을 치고 있는 것은 雨天時에 競賣를 하기 위해서 天幕을 가설했던 것이고, 競賣는 주로 새벽 4時까지 해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商人들이 장사를 하는 것은 낮 시간에, 아까 禹委員께서도 사진을 찍어서 제시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낮시간에 그 天幕 안으로 駐車들도 하고, 또 거기에서 仲販 내지 雜商人들이 장사하고 있는 實態가 되겠습니다. 그 時間帶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駐車場을 他 用途施設로 바꾼 事例가 資料로 와 있거든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네, 그렇습니다.

○閔泳三 委員; 채소 競賣場, 또 양과 作業場으로 쓰고, 마늘 競賣場으로 쓰고, 冷藏庫保管所로 쓰고, 그리고 강동수산 搬入場을 臨時競賣場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駐車場을 臨時競賣場으로 쓰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밤시간에 쓰고 있습니다. 밤시간에 競賣場으로 쓰고 있고, 낮시간에는 거기에서 仲販들이 販賣를 하고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러면 낮에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競賣를 안합니다.

○閔泳三 委員; 낮에는 競賣를 하지 않기 때문에 仲販들이 그 駐車場을 잠시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그런 狀況만 說明을 올린 것입니다.

○閔泳三 委員; 그것이 不法的인 것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아까 말씀드린 대로 駐車場에서 販賣를 하면 안될텐데 場所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實態입니다.

○閔泳三 委員; 仲販들이 장사를, 우리 서울시가 3,500億원 出資하고, 또 管理하는 그 農水産物都賣市場에 아무나 들어가서 장사하고, 登錄이라든지 이런 適法한 節次를 밟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서 駐車場이든, 어디든 競賣 없는 낮시간에는 가서 물건 쌓아놓고 해도 됩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그것은 자세한 것을 流通部長이 여기 있기 때문에.....

○閔泳三 委員; 아니, 實務者들이 자꾸 나와서 答辯하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責任問題도 있고 하니까, 社長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社長님께서 駐車場에 競賣時間이 아닌 낮시간에는 仲販들이 와서 駐車場을 使用하고 있다, 이 現況까지는 認定을 하시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아닙니다. 다 使用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보시면 알겠지만 극히 일부를 지금 쓰고 있고, 주로 그것이 낮시간에는 駐車場으로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고, 아까 사진을 찍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說明드리는 의미에서, 一部를 그렇게 使用하고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일부라도 아무튼 使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네.

○閔泳三 委員; 그 部分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그것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4時까지 競賣를 끝나치고 4時부터 새벽 6時까지

그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時間帶가.

○閔泳三 委員; 그러니까 競賣時間이 아닌 時間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배경을 깔고 지금 答辯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아닙니다.

○閔泳三 委員; 제가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런 空間들을 우리가 제대로 合法的으로 해야만 無籍仲販들이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競賣時間이 아닌 낮시간에 無籍仲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저희들이 그것은 團束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새벽.....

○閔泳三 委員; 團束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成果는 團束을 하는만큼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우리가 가서 찍을 정도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現狀態는 一部가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參考人이시니까 그 다음 答辯 좀 해 주십시오.

○管理部長 李允熙; 管理部長이 日常的인 業務에 대해서 質疑하신 部分에 대해서.....

○委員長 金寧剛; 잠깐만요. 委員 여러분, 答辯을 우리 部長들이 해도 되겠습니까? 意見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黃正植 委員; 金昌浩 社長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원래는 우리 社長이 答辯해야 되는데 아직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業務把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管理部長인가요, 管理部長 答辯臺에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되도록이면 가까이 대시고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部長 李允熙; 管理部長이 일상적인 業務 質疑하신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閔泳三 委員님이 質疑하신 내용에 대한 答辯이 되겠습니다.

저희 市場 내에 不法的으로 新築, 增築 또는 형태변경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管理公社에서는 저희 可樂市場 내의 모든 施設物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法人이든, 仲買人이든 市場 이용자들이 施設物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管理公社에 승인과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公社에서는 각급 流通人들이 필요한 시설을 新·增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저희에게 計劃書를 提出하게 해서 검토해서 施設物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을 때는 승인을 해 줍니다. 만약에 저희 公社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러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公社 職員들이 항시 순찰을 해서 적발하는 즉시 原狀回復시키거나, 변상조치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業務가 여러 部署別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몇 件을 적발해서 몇 件 조치했다는 實績報告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資料를 만들어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閔泳三 委員;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管理部長 李允熙; 저희가 고발하거나 이러한 사례는 적었지만, 적발을 해서 原狀復歸시키고 한 사례는 경미합니다만, 통계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더러 있었습니다.

○閔泳三 委員; 적발 즉시 原狀復歸 되도록 行政指導를 하시고 監督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管理部長 李允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러면 왜 部長님하고, 社長님하고 答辯內容이 아까 시간하고 벌써 다릅니까?

○管理部長 李允熙; 아닙니다. 그것은.....

○閔泳三 委員; 뭐가 다르냐면, 아까 社長님께서서는 저희들이 가서 본 회센터라는 것이 본래의 圖面上에 仲都賣人들의 사무실로 쓰게된 地域들이더라고요. 그것이 小賣 直販商人들한테 회센터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본래의 許可事項대로 사무실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社長님께서 午前에 회센터가 분명히 不法이라고 答辯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部長님은 몇날 며칠, 몇달, 몇년을 영업을 하고 있는데 部長님께서 지금 答辯하시는 것이 발견 즉시 가서 原狀復歸되도록, 그러면 당장에 都賣市場 仲都賣人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原狀復歸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실하고 회센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管理部長 李允熙; 지금 제가 報告드린 내용은 新築하거나, 增築하거나 변경한.....

○閔泳三 委員; 條例 第3條第2項.....

○業務部長 美術云; 業務部長입니다. 仲都賣人 점포담당은 業務部長所管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水産市場의 仲都賣人 점포가 204個인데 商人數가 많기 때문에 2人 1점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仲都賣인들이 회를 떠서 판매하는 것은 法的으로 별문제가 안 됩니다. 고기가 큰 것은 떠서 팔

수도 있으니까. 단지 거기에서 회를 시식시킨다든지, 곁들여서 술을 먹게한다든지 이것이 問題가 되는데 우리 市場은 法人과 仲都賣人이 중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仲都賣人은 회를 현장에서 시식시키는 행위는 食品衛生法에도 저촉이 되고, 우리가 못하게 團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約 19名 정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과거에 그런 前歷이 적발된 적이 있다든지, 그런 혐의가 있어도 否認을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특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月末 현재 4名이 우리한테 적발이 되어서 1차 적발은 경고조치, 두번째 적발이 되면 10日 이상 업무정지, 세번째 적발되면 許可取消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行政指置를 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水産競賣場의 강동수산 1,400坪 중에 約 577坪을 써서 直販商人이 2坪 정도 좌판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협쪽 가운데 쪽에, 강동수산하고 저쪽 건어쪽의 한 가운데 쪽에 있는 지역이 영업부진지역입니다. 거의 밖의 입구에서 손님들 다 따먹기 때문에 안에서 영업을 안 되니까 小賣商人들 44名 정도가 회 판매를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零細生計型 不法行爲를 하는 좌판영업 상인들입니다, 시설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이 問題는 저희들이 아까도 社長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小賣商人은 가급적 仲都賣人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또 業種轉換을 시킨다든지, 또 都·小賣 분리시에 反映을 해서 이 업종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方案을 검토 중에 있고, 또 회판매 또는 술까지 파는데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야간 시간대 늦게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方案

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答辯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지금 答辯하신 것 중에 仲都賣人 점포에 꼭 회를 떼서 小賣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셨나요?

○業務部長 姜炳云; 지금 저희가 초기부터 流通學者들이나 農林水産部 專門關係者들께도 같이 협의 하고 문의를 해 본 결과 水産物의 생선 회를 뜨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仲都賣人 이.

○禹元植 委員; 회를 뜨는 것이 아니고 회를 떼서 小賣하는 것이 적당하냐는 것입니다.

○業務部長 姜炳云; 원칙적으로 小賣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禹元植委員; 小賣하는 것인가요, 小賣 안하는 것인가요?

○業務部長 姜炳云; 예를 들어 농어나 민어 큰 고기의 경우는 한 마리를 그냥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서도 都賣로 사가는 사람이 큰 것을 못 사가니까.....

○禹元植 委員;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可樂洞 市場 안 가 본줄 아세요? 떼서 팔잖아요, 그것이 合法이라는 말씀이세요?

○業務部長 姜炳云; 아닙니다. 제 얘기는.....

○禹元植 委員; 不法이면 不法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業務部長 姜炳云; 회를 뜨는 자체는.....

○禹元植 委員; 회를 떼서 小賣하는 행위가 合法이냐, 不法이냐 하는 얘기에요.

○業務部長 姜炳云; 仲都賣人이 小賣하는 것은 不法입니다.

○禹元植 委員; 그 얘기만 하시면 되시지 왜 社長님도 不法이라고 그랬는데 구구히 변명을 하고 그러세요.

○業務部長 姜炳云; 회 뜨는 것 자체는 不法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일반 지금 專門家들의.....

○禹元植委員; 部長去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가서 회 한번 먹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業務部長 姜炳云; 저는 밑에서는 먹어본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면 거기 한번도 안 내려가 보셨나요?

○業務部長 姜炳云; 매일 가는데.....

○禹元植 委員; 사람들이 서서 돈 주고 회 한 접시 사가고 그러는 것 못 보셨어요?

○業務部長 姜炳云; 봤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것 不法이에요, 不法 아니에요?

○業務部長 姜炳云; 不法입니다.

○禹元植 委員; 그리고 그 안에서, 仲都賣人 점포에서, 仲都賣人인지 아닌지 대개 보면 회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 轉賣 내지는 轉貨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인데 仲都賣人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대개 仲都賣人 점포를 또 빌려서 轉賣 내지 韓貨를 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 만들어서 술 팔고하는 것 못 보셨어요?

○業務部長 姜炳云; 제가 報告드린대로.....

○禹元植 委員; 봤나, 못 봤나만 얘기하세요.

○業務部長 姜炳云; 봤습니다. 적발을 해서 우리가 團束.....

○禹元植 委員; 그런 것 보면 즉시 즉시 是正한다고 그랬죠, 몇 년 동안 是正 안하셨나요?

○業務部長 姜炳云;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團束과 재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本人들이 否認을 하고.....

○閔泳三 委員; 지금 部長님께서 자꾸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

로 答辯을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따지고 할 것입니다, 우리 同僚委員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社長님도 새로 오시고, 기왕에 발생했던 모든 問題點들을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자,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점을 서로 是認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本委員이 質問을 하는데 部長님께는 초장에 不法이 아니라는 식으로, 仲都賣人이 회 뜨고, 충분히 큰 고기를 팔 수 있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데 거기가 큰 고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問題 삼는 부분은 仲都賣人 점포시설이 不法 轉貸·轉賣가 되어서 거기에서 일반시민들이 가서 회를 먹고, 회를 팔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過程을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하시고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넘어가십니까?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社長님께 부탁드리는데 商人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늘부터 가서 團束해서 난리치고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法人이 그런 轉賣·韓貨 行爲를 눈감아 주면서 돈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管理公社職員들이 개입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過程에 이것 뿐 아니고 외벽 혈면서 점포 내주고 한 것도 돈이 거래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밝히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는 것 뿐이지 法人과 管理公社 간에 있었던 非理에 관해서 정말 잘 把握하셔야 돼요.

○閔泳三 委員; 이를 데면 不當利得이 얼마 정도 발생되냐면 점포가 300餘個 되잖아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벌써 權利金, 轉貸되는 過程, 그리고 또 仲都賣人들이 法人들한테 주는 權利金を 계산해서 1億원으로 따져도 300億원이고, 2億원 따지면 600億원이에요. 부당하게 돈이 조성되어서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業務部長 姜炳云; 작년 5月 仲都賣人들의 農安法 과동이후에 94年 11月 1日字로 改正農安法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1月 1日부터 과거에는 우리 公社가 각 仲都 賣人 점포를 法人別로 구역을 정해서 나누어 주어서 그 法人傘下에 있는 仲都賣人 개별점포는 公社와 法人間 일괄계약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法人과 仲都賣人 개인간에 계약을 했고, 法人이 仲都賣人들을 法人의 의사에 따라서 배치를 했는데 금년도 1月 1日부터는 지금 委員님들이 指摘해 주신 그런 우려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仲都賣人 개인과 저희 公社간에 개별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또 仲都賣人 모집도 저희 公社가 과거에 法人이 1차 추천하던 것을 완전히 해소를 해서 저희 公社가 직접 공개 모집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今年度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委員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今年부터는 점차적으로 수정이 되고, 깨끗이 말끔이 정리되어서 不正의 요인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 개별세부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점포계약에 따른 年間 契約期間이 연말이기 때문에今年度 12月에 재계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해서 反映해서 계약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仲販問題를 金聖浩委員님께서 質問하셨는데, 公社 승이 잘 안 서고, 公社가 차제에 승을 세워서 날마리 仲販商을 잘 把握해서 잘 정리해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仲販이 260餘 名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水産 경우는 청과와 달리 小賣와 都賣가 같이 어울어져서 競賣場 내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商人間에 갈등이 심하고, 계층간 갈등이 심합니다.

仲販이 왜 생겼느냐 하면 水産은 청과하고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산지수집을 仲都賣人들이 사실 많이 해 왔습니다, 역할을. 따라서 수집은 仲都賣人들이 많이 하고, 분산도 仲都賣人이 일부 3·40% 납품한다든지 직접 거래처가 외부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 60% 이상을 仲販이라는 자기네들 특별 관행적인 고리가 있어서 한 仲都賣人이 3, 4名, 혹은 2, 3名 정도 仲販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仲販機能을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仲賣人 店舖는 협소하니까 競賣를 해서 競落을 받은 競賣場 現場에서 물건을 분산하는 사람들이 이들 仲販들입니다.

그래서 法人에서도 그렇고, 仲都賣人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들 仲販들을 만약에 一括 동시에 整理를 해 버리게 되면 水産의 流通經路上에 상당히 問題가 발생하니까 이 問題는 점진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靑果의 경우도 條件附 仲都賣人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法에 보장이 안 된 仲販이 한 1,000餘 名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 全量 上場賣買 今年 1월부터 실시하면서 法人을하나 새로 만들고 그 仲販들을, 전부 靑果의 경우는 무, 배추 取扱 仲販입니다만, 條件附 仲都賣人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水産의 경우도 현재 우려하시는 이 仲販問題를 能力이 있는 仲販은 앞으로 仲都賣人으로 우리가 영입을 하도록 公開募集을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反映을 하고,

또 規模를 縮小化시켜서 仲都賣人들이 加급적 分散能力을 앞으로는 담당을 하고, 蒐集하던 能力을 法人이 담당하도록 하고 제 자리를 찾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細部計劃을 세워서 앞으로 가능한 仲販을 縮小하는 方向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閔泳三 委員; 맨 처음에 蒐集하는 근본적인 蒐集을 누가 하게 되어있습니까?

○ 業務部長 姜炳云; 產地蒐集商이 있어서.....

○ 閔泳三 委員; 產地蒐集商은 우리 法人에 登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 業務部長 姜炳云; 今年度부터는 法人에 登錄을 해야 都賣市場에.....

○ 閔泳三 委員; 그렇지요. 그 전에는 전혀 안 되어 있었지요?

○ 業務部長 姜炳云; 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 閔泳三 委員; 그것이 無籍仲販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본고리라고요.

○ 業務部長 姜炳云; 그래서 지금은 產地蒐集商登錄을 받아서 2,000名 이상이 지금 登錄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건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產地蒐集商하고 仲都賣人間에 慣行的인 關係가 아주 깊습니다. 해서 그런 고리를 加급적 끊고 法人에서 실제 產地蒐集能力을 좀 배양하도록 하고, 仲都賣人은 본래의 기능인 分散能力에 치중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 閔泳三 委員; 그러니까 法人이 蒐集能力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現實情이 蒐集能力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사람을 僱傭서 手數料만 챙기고, 分散시키고 하는 不法的인 이런 事例가 있다니까요. 그 問題點을 아십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禹委員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저희 流通部長 分野입니다. 그래서 좀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렇게 하시고 仲販이 지금 無籍이지요, 籍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그렇습니다.

○禹元植 委員; 事業者登錄證이 없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그렇습니다.

○禹元植 委員; 거기서 지금 商行爲를 하는데 税金은 어떻게 합니까?

○業務部長 姜炳云; 税金은 그것이 주로 仲都賣人의 物件을 서로 信用에 의해서 多年間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物件을 落札받는 競賣에 參與 可能的 者는 仲都賣人이니까 仲販買入이 落札받은 物件을 信用으로 그냥 仲販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주는데 무슨 事業者登錄證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業務部長 姜炳云; 전부 仲都賣人 이름으로 전표가 올라갑니다, 販賣實績은.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仲都賣人也 税金을 내야되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業務部長 姜炳云; 그렇습니다.

○禹元植 委員; 仲販王 格金を 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적합한 附加價値稅나 이런 것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業務部長 姜炳云; 그러니까 仲都賣人이 그것을.....

○禹元植 委員; 그런데 이것을 仲都賣人이 다내고, 실질적으로

로는 仲販이 仲都賣人이 내는 稅金을 보충해 주고 있고 이런 것이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쉽게 말하면 일종의 仲都賣人의 下賣人이라고 할까, 從業員 形態입니다, 이 사람들은.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독자적인.....

○業務部長 姜炳云; 仲販들이 들으면 자기는 또 독립적으로 그것 받아서 한다 그리고, 仲都賣人들은 자기들 從業員 내지는 下賣人이다 이렇게.....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商行爲 主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독립되어 있는 商行爲 主體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그것이 독립될 수가 없는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禹元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主體 아닙니까?

○業務部長 姜炳云; 그렇지요.

○禹元植 委員; 仲都賣人은 仲都賣人대로 商行爲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仲販도 仲販대로 高行爲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實態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仲販이 籍이 없기 때문에 稅金關係도 복잡하고 하니까 仲都賣人의 從業員으로 登錄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두 군데서 내야 될 稅金이 한 군데 절차로 지금 統合되어 있는 것이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그렇습니다.

○禹元植 委員; 여기서 稅金逋脫은 없는 것인가요, 2個 節次를 1個 節次로 묶어서 내니까? 仲都賣人 商人들의 稅金轉嫁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業務部長 姜炳云; 그러니까 分散된 物量이나 金額에 대해서

는 仲都賣人 앞으로 資料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税金逋脫이 없다고 보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營業하는 過程에서 精確한 販賣額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그런 部分에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포착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閔泳三 委員; 그 部分은 실질적으로 無籍仲販들이 仲都賣人의 職員처럼 登錄을 해서 독립적으로 각자 商行爲는 하면서도, 하면 양쪽이 다 각자 税金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仲都賣人은 登錄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仲都賣인들이 물어야 될 税金을 無籍 仲販들이 분담을 해서 내주는,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또 法人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것 잘 아실 것 아니에요. 部長님, 괜히 모른척 하시지 말고, 잘 아시면서.

○業務部長 姜炳云; 買入高에 따른 일정 마진이 생기면 그 마진에 비례한 税金을 물어야 되는데 그 仲販이 下賣人 내지는 從業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판매한 全體金額에서 일정 비율의 利益을 챙기니까 거기에 따른 税金도 비례해서 仲販이 仲都賣人하고 約束이나 자기들 慣行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禹元植 委員; 여기보면 去來明細表가 있어요? 오복수산이라고 하는 仲都賣인이 있지요. 여기서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S某인 사람한테, 이것이 無籍仲販이에요, 去來明細表를 해서 끊어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去來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無籍仲販인 S某인 사람도 돈을 내야 되고, 오복수산도 税金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S某인 사람이 오복수산의 從業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복

수산은 稅金을 안 내고 S某인 사람이 다 稅金을 代納을 해 주고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복 수산은 稅金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S某인 사람은 稅務署에 가서 稅金 낸 것을 떼어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稅金 낸 것이 없어요. 그럴 수 밖에 없지요, 당연하지요. 이런 結託關係가 있어요. 이런 것 다 아시면서 왜 지금까지 그냥 다 내버려두냐 말이에요. 이것이 市民들의 稅金 아납니까? 다 이런 節次를 거쳐서 市民들은 물건값을 비싸게 주고 사게 되어 있는데 稅金도 안 내고, 籍도 없고, 실질적으로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으니까 인정해 줄 수 밖에 없고,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고쳐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社長님 한 사람 놓고, 새로 오셨는데 나머지 분들이 솔직하게 가셔야지 새로 오신 改革意志도 있는 그런 社長님을 허깨비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業務部長 姜炳云; 알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솔직히 다 얘기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고칠 부분들을 中・長期對策을 세워야 가야지, 이 자리에 나와서도 계속 얘기가 우리 다 알고 있는 內容인데도 솔직히 答辯을 안하시잖아요.

○業務部長 姜炳云; 저는 하나도 안 속이고 솔직히 答辯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說明을 드리면.....

○禹元植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누가 答辯하셨는지 모르겠는데 競賣場에서 仲販이 午後 4時까지 하다가 들어가고 그 자리가 비니까 저녁 때, 새벽에 競賣하는 것은 問題가 없다 이렇게 答辯을 하신 모양인데 仲販이 들어가지만 그 자리에 다 짐을 쌓아놓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業務部長 姜炳云; 네.

○禹元植 委員; 그래가지고 競賣場이 부족하기 때문에 臨時競賣場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네.

○禹元植 委員; 仲販이 들어가니까 競賣할 자리가 남는 것이 아니고 仲販이 營業을 하든, 營業을 하지 않든 그 자리는 仲販 店鋪 같이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포장을 이렇게 썬워 놓고만 가지.

○業務部長 姜炳云; 그것은 外部의 경우입니다. 안에 競賣場은 仲販이 現場에서 그냥 짝으로 物件을 박스로 파는 것이니까 그것 치우고 나면 物件이 없어집니다.

○禹元植 委員; 外部의 臨時競賣場 얘기하는 것인가요?

○業務部長 姜炳云; 네.

○禹元植 委員; 그것은 臨時競賣場으로 許可를 받았는데 그렇게 商行爲를 해도 괜찮다는 許可를 또 내주었습니까?

○業務部長 姜炳云;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禹元植 委員; 部長님은 처음부터 즉시 발견되는 대로 고쳐왔다 그랬는데 왜 그런 것 잘 하시면서 못 고쳤어요?

○業務部長 姜炳云; 團束을 하니까 아침 새벽 시간에 競賣時間帶에만 쓰고 낮에는 천막을 걸어올려서 안이 비도록 해서, 밑에 파레트나 이런 것을 깔아놓으면 車를 못 대니까 그것을 다 치우도록 해서 지금은 그 500坪에 낮시간대, 11時 이후에는 전부 車가 들어가서 서도록 그렇게 指示가 돼서 우리가 처음 團束을 해서 措置가 다 됐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현상에 관해서 지금 不法인 대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法人하고 무슨 結託關係는 좀 찾아본 적 없어요?

○業務部長 姜炳云; 그래서 是正이 안 되고, 法人한테 臨時競

賣場用으로만 쓰라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 水産物이라는 것이 特性이 있어서 상하기 쉽고 하니까 이것을 어쨌든 短時間 內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時間을, 어떤 때 물건이 남았을 때 안 팔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가져오도록, 구석에 처박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자기들은 그 사람들하고 結託이 되어서 어떻게 한 일이 없다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禹元植 委員; 예를 들어봅시다. 仲都賣人 店鋪에 지금 회를 떠서 小賣를 하고 방을 만들어서 술을 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 不法이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그렇습니다.

○禹元植 委員; 지금 競賣場의 外壁을 헐어서 店鋪를 얹히고 無籍商人들한테 店鋪를 준 것 不法이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그렇습니다.

○禹元植 委員; 臨時競賣場을 競賣場으로 쓰라 그랬더니 또 商人들이 들어간 것 不法이지요? 臨時競賣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午後 4時까지 장사하는 그것 不法이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새벽時間帶에만 營業을 하고 午後에는 지금 없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것이 不法이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午後까지 있으면 그것은 不法입니다.

○禹元植 委員;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不法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臨時競賣場 안에서 이렇게 商行爲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不法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것 許可를 내준 적 있어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에서?

○業務部長 姜炳云; 새벽時間帶에는 競賣 分散過程이니까 現場에서도 分散을 합니다. 營業하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단지, 競賣時間帶를 지난 時間에 거기서 小賣를......

○禹元植 委員; 보세요. 사진이 지금 아주머니가 하나하나 小賣로 사서 담아가지고 가는 사진이에요. 小賣行爲지 分散되는 過程이 아니에요. 와서 한번 보실래요. 이것이 지금 競賣하고 있는 것입니까, 小賣行爲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業務部長 姜炳云; 사진 찍은 時間帶가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제가 10時쯤 가서 찍었어요. 合法인가요?

○業務部長 姜炳云; 아닙니다.

○禹元植 委員; 不法이지요?

○業務部長 姜炳云; 네.

○禹元植 委員; 이런 不法을 강동수산에서 그냥 놓아두고 보리라고 생각하세요?

○業務部長 姜炳云; 그것은 競賣時間帶 이외의 時間帶에 그러한 小賣行爲를 臨時競賣場에서 하는 것은 不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禹元植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을 뒹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法人에 問題가 있단 말이에요, 法人에. 法人하고 管理公社에 問題가 있다는 거예요.

法人에서 자기네 이만한 區域을 정해서 자리도 잘라주고 이렇게 하라고 法人에다 자리를 내준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막 장사들한테 나누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나누어 주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떠도는 소문 같은 것 못 들으셨어요, 한 자리에 얼마다 이런 것?

○業務部長 姜炳云; 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것 조사해 본 적 있어요?

○業務部長 姜炳云; 네.

○禹元植 委員; 그랬더니 어때요?

○業務部長 姜炳云; 그것을 우리 直販商人 중에 소위 소매상 자칭연합회 회장이라는 윤백완이라는.....

○禹元植 委員; 지금 누가 얘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業務部長 姜炳云;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競賣場과 또 搬入場 턱 밑 가설물 주변에 法人에서 仲販을 깔고, 特定人들을 가설건물 주변에 깔아 놓아서 이익을 취한다 그래서 小賣商이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을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 監査院을 비롯해서 東部支廳 檢察廳에까지 연속적으로 92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民願을 제기한 바가 있어서 監査院에서도 이것을 特別監査를 지시해서 市에서도 나와서 監査를 했고, 또 東部支廳의 法人은 물론이고 仲都賣人 관련자, 저희 公社의 擔當 實務課長 2名 이렇게 해서 지난 4월에 상당한 轉貨·轉賣, 혹은 仲販商人들, 競賣場 주변에 깔아 놓은 것을 둘러싼 民願提起者의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實證이 확보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不法不當한 내용이 나와서 처벌받은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지금 部長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이 不法임이 확실하죠?

○業務部長 姜炳云; 우리 水産市場 주변이 어지럽고,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禹元植 委員; 정리가 안 되고, 어지러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法人이 그야말로 非理의 온상이라고 밖에 느껴지

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開場 이후에 管理公社에서 그대로 방치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業務部長 姜炳云; 答辯을 솔직히 드리는데 야단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法人이나 仲都賣人, 小賣商人들 계층별로, 사실 우리 市場이 龍山市場을 政策的으로 이전해 오면서 約 6,600名의 商人을 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 비해서 約 3배의 商人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따라서 우리 시설은 1점포에 한 사람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競賣場은 競賣場 기능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3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假說物을 짓게 되고 1점포에 2내지 3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競賣場에 直販商人을 收容하게 되고, 통로에 건어물 直販商人을 收容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계별로 商人들을 줄이기 위해서 10餘年 동안, 그 동안에 年間 몇백명씩 줄여온 결과 商人數가 直販商人의 경우는 청과까지 합쳐서 約 3,000名 이 넘던 商人이 1,300名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水産의 경우도 건어의 경우를 비롯해서 많은 숫자가 줄어서 상당히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過程인데, 아까 저희 社長님도 말씀하셨듯이 都賣市場이라는 것이 市場 原理가 있어서 현실하고 우리가 法的으로 조치하는 것하고, 慣行하고 이것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閔泳三 委員; 部長님이 答辯을 하시는 過程에서 나름대로 管理公社側이 완전히 놀았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죽 해 오신 過程에서도 계속 근본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法人의 問題, 仲都賣人 仲販의 問題, 그리고 不

法的인 사무실 施設物들의 형태변경 이런 問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동안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라는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仲販問題만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籍을 두지 않고, 農安法上에 보장돼 있지 않은 不法 流通構造잖아요, 直販自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않고, 不法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無籍仲販이 不法的인 유통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딘가에다 뇌물을 바치고, 어딘가에다 돈을 주고야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뭔가 부패고리, 비리고리가 없으면 無籍仲販이 왜 있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團束 못하냐고요. 하루 아침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유통구조가 무너집니까, 그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하니가 못하는 것입니까? 원칙적인 市場原理로 봐도 그것은 아니라고요. 상식적인 수준에도 의심이 가요.

그리고 農水産物都賣市場의 우리 關係公務員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염려되는 측면도 많아요. 直販商人들의 賃貸借 契約書を 보면 第13條第10項에 보면 웃지 못할 계약사항이 있어요.

계약해제 및 사용제한에 이런 경우를 위반하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業務와 관련하여 갑의 직원에게, 그러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 管理公社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不正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사용제한 할 수 있다는 이런 條項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런 사실이 많았으면 契約書에 이런 條項까지 두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同僚委員들이 質問하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問題點을 제기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아시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한 대로, 把握하신 대로 정직하게 答辯해 주시면 우리가 차츰 차츰 같이 고쳐나갑시다. 公社 任職員들 고생하시고, 시민생활 便宜를 위해서 다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業務部長 姜炳云; 열심히 하겠습니다.

○閔泳三 委員; 仲販問題 그 정도 答辯하시고, 駐車場問題 答辯하시고, 즉 다른 同僚委員들 이 質問하신 것도 즉 答辯해 주시는 過程에서 다른 분들 하시고 하시죠.

○禹元植 委員; 駐車場問題 넘어가기 전에 冒頭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문제의식의 출발이 駐車場問題였습니다.

商人들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처음에 都賣市場들어오면서 駐車場으로 설치했던 지역보다 줄어 있고, 그것도 이렇게 난잡하게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것 까지를 駐車場으로 쳐서 이럴 것입니다. 現場에 가보면 駐車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곧바로 都賣市場의 기능 약화로 옵니다. 駐車場問題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교통 전체체계도 하고 같이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로 報告올리겠습니다

○業務部長 姜炳云; 제가 나온 김에 생선의 판매관계도 간단히 答辯올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나온 김에 答辯하세요.

○業務部長 姜炳云; 仲都賣人과 直販商人 主管部署가 저희 業務部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答辯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仲都賣人 중에 생선회를 시식시켜서 판매하는 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19名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특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1日 감

시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 번만 적발이 되면 許可取消가 되도록 都賣市場條例에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仲都賣人에 대해서는 생선회를 시식하고 술까지 판매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히 團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小賣商人 중에 위치가 나쁜 競賣場한 가운데 박혀있어서 生計型 시식시키는 商人이 44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生計行爲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問題가 있고 이래서 업종전환을 시킨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원한다면 능력있는 사람들은 仲都賣人시킨다든지, 또 야간시간 늦게까지 시식판매를 못하도록 시간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長期的으로 어떤 분리공간이 마련되면 都·小賣 분리 때 완전히 정리한다든지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閔泳三委員; 部長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식하고 파는 것이 19군데, 44個, 63군데밖에 안 되네요.

○業務部長 姜炳云; 지금 公式集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위에 水産直販市場 가서 보셨으면 아셨겠습니다만 강동수산 競賣場과 수협총판장 그 사이에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것이 44명입니다. 그리고 仲都賣人 중에 띄엄 띄엄 흩어져서 베트공식으로 밤에 살짝 파는 그런 사람들이 19명입니다. 정확히 把握 돼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글썬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점포수 가서 보면 63個 더 넘는 것 같은데

○業務部長 姜炳云;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金聖浩 委員님께서

指摘해주는 公社의 습을 세우는 問題에 대해서는 내년도 上半期까지 저희들이 소위 제도권 안에 있는 都賣法人, 仲 都賣人, 直販商人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정확한 위임사항은 위임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제도를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의 소위 販賣公社의 위상을 정확하게 해서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正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都·小賣 분리문제에 대해서指摘하신대로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만 이 問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問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公社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市政開發研究院하고 都賣市場비전2000이라는 장기 10個年 계획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동시에 3個年 실행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결할 問題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또한 자체 내의 협의기구에 대해서도指摘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可樂市場 유통발전협의회라고 해서 都賣法人, 仲都賣人, 直販商人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協議會를 만들어서 가급적 모든 것을 토의의 광장을 통해서, 協議를 통해서 改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驛勢圈問題에 대해서도 이 問題는 松坡區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九里市場이 開場이 되고 어느 정도 物量의 분산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6個의 청과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한 두개 업체라도 우리가 他 市場으로 진출만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물량분산도 되고, 공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취하면서 이런 問題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지금 이루어 보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님께서指摘하신 無籍商人의 問題와 더불어 法

人에 대한 問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경고조치 취한 問題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資料로 대신할까 합니다. 電光板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 資料가 마련된 것이 있어서 철거이유라든지, 그 동안 사용한 費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資料로 대신하겠습니다.

無籍商人 問題에 대해서 20億원의 年間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流通部長이 農安法上의 仲販問題하고 더불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流通部長 李圭正; 流通部長 李圭正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管理部長님께서 仲販問題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委員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指摘이 있었습니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의 기본 방향은 水產物流通에 있어서의 仲販의 역할이라고 하는것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 그건 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農安法上의 유통체계를 보면 생산자인 漁民이 물건을 직접 都賣市場의 法人에 上場을 시켜서 그 다음에 仲買人을 통해서 競賣를 거쳐서 仲買人이 소비자라든지, 또는 대량소비처, 소매상에서 전달되는 4個 내지 5個 단계로 유통단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체계로 전달되는 그런 物量이 솔직히 委員님들께 報告를 드리면 20% 미만입니다.

나머지 80% 수준은 產地에서 생산된 水產物이 產地蒐集商을 거쳐서 仲買人들의 能力에 의해서 都賣市場에 集荷가 되어서 그것이 都賣市場에서 競賣節次를 거쳐서, 또는 定價賣買를 거쳐서 仲都賣人들이 바로 分散하는 것보다는 仲販들이 分散하는 物量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現實與件 때문에 仲販의 分散라든가, 또는 流通過程에서 仲販

을 除外시키는 그런 問題는 지금 現實情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水産市場 壁面撤去에 관한 問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水産市場의 競賣場 1,400坪을 강동수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直販商人을 競賣場 內에 配置를 하다 보니까 競賣場 面積이 비좁습니다. 委員님들께서 夜間 競賣時間帶에 저희 市場을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水産市場의 競賣場 面積을 전부 차지하고도 바깥의 駐車場 面積에 相當部分 거기다 進열을 해야, 심지어는 水産市場과 靑果市場 중앙에 있는 中央道路에 11톤 車輛이 駐車를 해서 物量을 荷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物量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壁面을 撤去하게 된 동기는 水産市場 內에 直販商人이 配置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競賣場 面積을 더 늘려줄 수 있을까 하는 次元에서 壁面을 撤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水産商人을, 壁面을 撤去하고 나니까 無籍商人, 소위 仲販들 36 名을 配置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配置過程에서 金員을 徵收했다 하는 상당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이 檢察에까지 告發이 돼서 檢察에서 한 2, 3個月 동안 現場調査도 했고, 또 召喚調査도 했고 했는데 돈을 준 것이 명확한 것이 確認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內容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다는 說로 끝났지, 지금 명확한 根據가 없기 때문에 處罰은 안 된 상태로 報告를 드립니다.

○閔泳三 委員; 流通部長님이시라 그러셨지요?

○流通部長 李圭正; 네.

○閔泳三 委員; 流通部長님이 방금 說明하신 대로 產地蒐集商들이 蒐集을 해서 上場을 시키는 過程이 法人한테 오지 않고

仲都賣人한테 주로 간다 그러셨잖아요?

○流通部長 李圭正;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法體系上으로는 產地蒐集商도 出荷者라고 저희는 名稱을 붙입니다. 그래서 직접 漁民이 가져오든지, 아니면 產地蒐集商들이 그 物件을 가져와서 昨年 年末까지는 一部 隨意賣買가 認定이 돼서 仲買人 店鋪로 바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今年 7月 1日부터는 法人의 매장을 거쳐서 競賣되는 品目は 競賣 節次를 거쳐서 仲買人들의 손에 넘어가고, 또 隨意賣買나 定價賣買에 대해서는 法人의 去來하는 形態를 거쳐서 仲買人 店鋪로 들어갑니다.

○閔泳三 委員; 法人이 蒐集의 義務가 있을 법 한데 없더라구요, 보면. 法人은 가만히 있으면 蒐集商들이 가지고 와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流通部長 李圭正; 현재의 法體系를 보면 農安法 內에는 都賣會社가 物量을 蒐集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指定都賣人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市를 대신해서 그 市場을 運營하는 責任이 있기 때문에 物量이 集荷가 안 되면 首都圈 市民에 대한 水産物 供給에 차질이 있으니까 義務的으로는 없지만 그 市場을 활발하게 運營을 시킨다 그러면 法人에서 出荷先渡金도 產地에 支給을 하고 해서 物量을 끌어 들여야 될 것 아니냐 해서 法人의 機能 中에 集荷機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러시고 條例 第2條에 보면 開場日하고, 開場時間 條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靑果物類하고 水産物類는 대개 午後 6時부터 그 다음날 1時까지 거든요. 그렇지요?

○流通部長 李圭正; 네, 그렇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러면 直販商人들도 이 開場時間에 따라가야

됩니까?

○流通部長 李圭正; 直販商人은 開場時間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午後에 主婦들이 저녁반찬을 사러온다든가 그 時間帶까지 營業을 하고 있습니다.

○閱泳三 委員; 그것은 法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流通部長 李圭正; 直販商人들은 都賣市場에 入住된 하나의 商人이지만 開場時間에 대한 것은 저축을 받지 않습니다, 小賣商人이기 때문에.

○閱泳三 委員; 그래요?

○流通部長 李圭正; 네, 그것은 小賣市場 區域으로 저희가 配置를 했기 때문에 時間制限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開泳三 委員; 그 외의 場所에서는 이 時間을 精確하게 지켜야 되지요?

○流通部長 李圭正; 물론 精確하게 지켜야 되는데.....

○閱泳三 委員; 잘 안 지켜지지요?

○流通部長 李圭正; 그것이 뭐냐 하면 市場이 라는 것은 흡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產地에서 생산된 物件은 그 鮮度가 維持가 돼서 去來를 빨리 형성시켜서 消費者까지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市場에서 들어온 物量이 積滯가 된 다든가, 販賣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物件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閱泳三 委員; 흡입력이 있어야 되고, 時間을 고쳐야 될 것 같으면 條例를 바꾸라고 建議를 해서 制度的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時間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흡입력을 갖기 위해서 이 時間을 어쩔 수 없이 違反해야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流通部長 李圭正; 아닙니다. 都賣去來 時間은 대체적으로

지켜집니다.

○禹元植 委員; 대개 슬슬슬슬 이렇게 다 넘어가시면서 크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담을 헐고 거기다가 얹혀놓은 사람들도 說은 있으나 調査를 해 본 결과 잘모르겠다, 그런.....

○流通部長 李圭正; 配置는 됐습니다. 그런데 金品에 대한 것은.....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무성한 金品이 오갔다라고 하는 說은 있으나 정확한 內容은 모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流通部長 李圭正; 搜查過程中에서 밝혀지지 않았습시다.

○禹元植 委員; 서울特別市가 調査를 다 해서 보낸 民願書類에 대한 答辯書를 보니까 이 問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밝힐 수 있는 根據가 되는 김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所在가 把握되지 않아서 이것을 把握하기 어렵다 이렇게 答辯을 보냈는데 그 사람 아직도 장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調査가 엄격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法人에서 다 調査하는 데다가 로비한 것 아닙니까?

○流通部長 李圭正; 저희가 알기로는.....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蒐集을 하고, 여기 法人에 대한 條項을 봐도 農水産物을 委託받아서 販賣를 代行하거나 物件을 사서 파는 行爲를 하는 것이 法人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동수산이 그런 것 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아까 閔泳三 委員이 質疑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答辯하실 때도 우리가 아는 대로 答辯을 하셨는데 都賣法人이 出荷主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競賣를 해서 仲販한테 넘기고, 그리고 仲販이 分散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過程中에서 法人이 하

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 消費者한테 가는 流通構造를 農安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고질적인 問題로 仲販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仲都賣人 中에 실제로 法人機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法人을 주고, 無籍商人을 仲都賣人으로 올리고 그런 過程을 밟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問題들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調査를 받아왔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構造 자체가 都賣法人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遂行하지 않고 여러 자리에다가 그렇게 자리를 막 내주고 거기서 金品을 授受하는 그런 疑惑이, 저희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證據가 없으니까 모르겠으나 情況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慣行으로 볼 때 그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管理해야 될 管理公社가 제대로 이 管理를 하고 있지 않은 法人과 管理公社의 問題를 提起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處理해 나가고, 어떻게 調査를 해 보겠다 이걸 答辯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앞에서도 몇 部長님이나 社長님을 통해서 잘못됐다 라고 하는 答辯이 이미 돼 있는데 그것을 또 나와서 說明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 問題에 대해서 이미 다 마무리가 돼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또 說明하고 계시다고, 지금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것이 不法이냐, 合法이냐 이런 問題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情理說明하면서 구체적인 證據가 없기 때문에 金品이 授受됐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앉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答辯을 하시느냐고.

○流通部長 李圭正; 그 問題는 제가 다시 補充認明을 드리면

이 去來體系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決定이......

○禹元植 委員; 하루아침에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도 前提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고치기가 쉽지는 않으나 이렇게 不法으로 되고 있는 部分들을 오늘 밝힘으로 해서 社長님께서 지금 計劃하고 계시는 可樂洞 農水産物物理賣市場의 改革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參考도 하고, 중요한 課題로 좀 設定해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市場 商人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法人을 改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課題란 말이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禹委員님 指摘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對策을 세우겠습니다.

그 동안 擔當部長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李成浩 委員; 제가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問題의 本質이 무엇이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說明을 하시지 않고 자꾸 현상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問題點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결국은 현재 있는 問題點을 있는 그대로 認定해서 이후 改善策을 만들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비추어지지 않는 것이 저희 委員들이 흥분하는 주된 理由거든요.

아까 仲都賣人하고, 그 다음에 仲販하고의 얘기도 있었습니 다만, 일단 仲販은 無籍이고 不法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部分들의 稅金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어떤 經緯를 통해서든지간에 그렇다면 그것을 향후

어떻게 對處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計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까 報告書 內容 가지고는 전혀 저희들이 보기에 납득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가 답답한 것이 그런 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過程도, 사실은 처음 생길 때부터 '85年度에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問題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解決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과연 있었느냐, 저는 그것이 계속 의심스러운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問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最高 決定權者나 管理하는 側에서 분명한 原則을 가지고 執行해 나간다면 나는 많은 部分이 잡혀간다고 생각해요. 여기 都賣市場에 關係하는 法人이나, 仲都賣人이나, 直販이나, 仲販이나, 小賣間이나 모두가 다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고, 또 原則이 서 있으면 認定할 수 있는 정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市民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責任지고 있는 管理公社가 原則을 가지고 執行해 나간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어렵다고만 얘기해요. 나는 그것이 10年 동안 있었던 근본적인 問題點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차제에 분명한 原則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몇 년 計劃이든, 또는 지금 당장부터든 해 나간다면 거기에 參與하고 있는 各級의 사람들도 認定이 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직접 調査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管理公社가 그러한 노력을 진작 기울였느냐에 대해서 전혀 同意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준 모습 역시 똑같아요.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懸案의 問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접근하고 앞으로 改善策을 마련하느냐의 問題인데 지금 우리 部長님들이 보여주는 자세로써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모면할 것인가에 급급하는 모습 이상으로 비추어지지 않아요.

○流通部長 李圭正;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우리 市場 내에는 유통인들이 指定 都賣會社 法人이 있고, 仲都賣人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주체가 우리 市場의 거래를 움직이는 商人들인데 그 역할과 機能이 분명히 있습니다. 指定 都賣會社는 物量을 集荷하고 가격형성을 시켜주고, 代金精算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유통 정보를 발산하는 이런 세네 가지의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또 仲買人은 仲買人대로의 法的인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仲買人들은 競賣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가격형성을 시켜서 物量을 落札받아서 소비자에게 빠른 시간내에 전달하는 機能이 분명히 仲都賣人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랜 商慣習을 통해서 仲都賣人이 都賣會社 역할을 해오던 그런 영업형태이기 때문에 法과 현실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지난 農安法 과동, 5·3과동 때 도매상체제로 간다든지, 현행체제로 간다든지 그런 法の 改正問題가 立法機關이라든지 行政當局에서, 상당히 政府當局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시간을 가지친 法體系를 어떻게 바꿀것이나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現行法을 준수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都賣市場 法人體制로 운영을 하면서 거래체계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낫다고해서 法이 그렇게 정해 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거의 80% 수준이 仲都賣人에 의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또 이 사람은 분산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분산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仲都賣人들이. 그래서 物量을 분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仲販이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商人들이 우리 市場에서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 아침에 몰아낸다는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水産物流通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당장 是正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委員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金品을 누구한테 주고 영업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도 해 봤고, 司直當局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확실한 根據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趣旨에서 말씀드립니다.

○李成活 委員; 금방 또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仲都賣人이 직접 수집해 오는 것이나, 仲販을 통해서 하는 것이나, 이유는 거기에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仲都賣人이 仲販을 통해서 해 나가게 되면 뭔가 小賣價로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접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仲販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팔고 싶어하는 것이고, 仲販도 꼭 都·小賣業으로 法人化되기 보다 無籍商人으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세금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仲販이 계속되는 이유가 아닙니까? 問題의 본질은 그것이고, 그것을 指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어떤 對策이 있어야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금방 설명하신 내용도 똑같이 현행 慣行이 이렇고, 慣行이그런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이유와 본질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慣行으로 되어있는 것과, 그것을 해명해서 이것의 對策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네번째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됐습니다. 仲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했으니까 仲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거의 된 것 같고.

다음으로 答辯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2個가 남았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빨리 하시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水産棟 지붕 아까 禹委員님 指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管理部長이 설명하겠습니다.

○管理部長 李允熙; 管理部長이 계속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대로 水産市場 뿐만 아니고 저희 市場 내에 여러 건물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미리 把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豫算을 확보해서 금년 6月 19日부터 8月 27日까지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안전진단팀에 건물안전진단을 의뢰해서 1차 報告書を 받았습니다. 안전진단결과 靑果市場棟이나 水産市場棟 등과 같은 7個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용역을 發注 중에 있습니다. 이 진단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委員님께서 指摘해 주신 水産市場 지붕방수보호물탈 균열상태라든지, 그것 뿐만 아니고 안전자체에 관한 問題를 長·短期計劃을 연차적 계획으로 수립해서 보수,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그런 계획임을 報告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진단결과내용을 지금 현재 資料는 가져오지 않았습시다만 요약해서 報告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마지막으로 李成浩

委員께서指摘하신 현재 競賣品目에 대해서 上場競賣를 하지 말고 上場賣買로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30個 品目에 대해서 극히 소량이거나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30個 品目에 대해서 靑果部分에 있어서는 현재 예외 品目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品目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예외 品目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원적인 問題이기 때문에 지금 品目別로 전부 나누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報告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大하청과 8個 品目 외에 他品目 취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他品目은 취급을 못하도록 굉장히 뒤에서 조정을 많이 하고있고, 현재 비교적 8個 品目 중심으로 이것이 잘 履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94年 12月 14日에 大하청과가 지정이 됐는데 왜 8個 品目으로 제한해서 하는 趣旨가 무엇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8個 品目이 청과, 야채 중에서 주종품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上場競賣를 유도하기 위해서 大하청과를 仲都賣人 중심으로 法人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집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品目を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答辯됐습니까? 産業經濟局長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좋으신 여러 가지指摘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本廳次元에서 主管하는 産業經濟局長이 결론적인 말씀을 委員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이 설치가 되면서 그 동안에 번번이 얘기가 돼 왔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과 어떤 先進 都賣市場으로의 기능을 해야 출발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무질서하게 사회적으로 問題가 됐던 것을 전부 저곳으로 모으는 이런 형태로 출발이 되어서 그 동안에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에 있는 任職員들이 상당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실정을 말씀드리면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에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法에 맞지 않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指導監督權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法的인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8월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商人들의 違法行爲에 대한 처벌이 條例에서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의 內規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바로 이것을 일단 本廳次元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규칙으로 9월에 審議를 해서 규칙으로 22個 項目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10月 16日字, 한달반 전에 규칙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규칙으로 공포한 것은 되도록이면 세분화시키고 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포가 됐는데 이것이 委員님들께 곧 條例 공포된 것을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또 金昌浩 社長님께서 사회적으로 流通業界에 상당히 오랜 경험과 덕망이 있는분이 社長으로 오셔서 지금 중

합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개혁을 推進 중에 있고, 그 실적으로서 내년도에 市政開發研究院과 합동으로 장기적인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용역해서 같이 연구하게 되는데 本廳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可樂洞을 靑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推進하고 있는 九里都賣市場이 내년말에 開場을 목표로 推進하고 있는데 昨전에 部長도 말씀했지만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은 수용범위에 300% 정도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九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可樂洞에 있는 일부 法人을 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西南圈 都賣市場을 며칠 전에 수협회장과 만나서 협의를 해서 수협에서 推進하고 있는 수협공판장을 일단 西南圈 都賣市場에 水産棟의 성격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보다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어떤 분산기능을 같이 겸해서 推進하면서 이제까지 운영상의 모순점이라든지, 또 무질서한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駐車問題, 종합적인 交通網 이런 問題도 關係部署와 협의를 해서 金社長과 本廳 産業經濟局에서 좋은 쪽으로 推進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까지 모순되고 잘못된 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수용해서 실정에 反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金昌浩 社長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業務把握이 잘 안 된 관계로 部長들이 答辯하다 보니까 논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金昌浩 社長께서는 업무와 현황과약을 조속히 하셔서 다음에 參考人으로 참석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答辯을 들려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考人으로 참석하여 주신 서울特別市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金昌浩 社長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社長께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可樂洞 農水産物道賣市場 운영을 개선하여 서울市民이 이용하는데 不便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議事日程을 마치고 14時까지 停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構 3打)

(13時08分 監查中止)

(14時31分 監查繼續)

○委員長 金寧剛;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午前 會議에 이어서 午後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오늘 서울特別市議會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實施하고 있는 行政事務監查는 地方自治法 第 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查및調查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産業經濟局所管 1995年度 行政事務監查를 實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前 産業經濟局長으로 在任했던 金東勳 上水道事業本部長과 서울도시가스의 洪民奎 社長, 대한도시가스의 金泰禎社長, 극동도시가스의 李武龍 社長, 한진도시가스의 金大榮 本部長, 강남도시가스의 崔大業 社長, 그리고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支社 金錫烈 支社長을 비롯하여 일곱 분 地方自治法 第36條第4項에 의하여 産業經濟局所管 行政事務監查에 參考人으로 出席하셨습니다.

'90年代에 들면서 都市가스 需要가 급격히 增加되어 서울시 各 地域別로 都市가스 施工過程에서 그 동안 많은 市民들로부터 民願이 提起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委員님들은 都市가스 施工過程에서 市民들이 不便한 점이나 부당한 점이 없는지, 또는 앞으로 改善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市民의 代辯者로서 그 동안 많은 疑問을 가진 事案들에 대하여 質問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參考人께서는 委員님들의 質問 內容에 대하여 성실하게 거짓없는 答辯과 솔직한 意見을 陳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아계신 座席이 매우 不便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監査 시작에 앞서서 참석하신 參考人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所屬과 職銜, 姓銜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입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서울도시가스의 代表理事로 있는 洪民奎입니다.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대한도시가스의 金泰禎 社長입니다.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극동도시가스의 代表理事로 있는 李武龍입니다.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한진건설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입니다.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崔大業; 강남도시가스 社長 崔大業입니다.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轉國가스安全公社 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産業經濟局所管 行政事務監査를 시작하겠습니다.

監査 進行方法은 午前과 같이 進行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意見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參考人에게 개별적으로 質疑할 委員께서는 반드시 答辯할 參考人の 所屬과 職銜을 말씀해 주시고, 答辯할 參考人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번 監査에서 委員님들이 質疑하신 事項에 대하여 答辯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産業經濟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지난 번.....

○鄭泰宗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寧剛; 鄭泰宗委員 말씀하세요.

○鄭泰宗 委員; 局長님이 앉아서 대답을 하시도록.....

○委員長 金寧剛; 局長님, 앉아서 答辯하시지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감사합니다.

지난 번 監査 때 燃料課所管의 都市가스 質疑事項과, 그리고 蘆原 에너지 熟供給 關聯事業에 대한 事項을 答辯드리지 못하고 오늘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번과 같이 質疑하신 委員님順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鎭宇委員님 事項입니다.

燃料行政의 중점방향이 석유, 가스, 연탄, 集團에너지의 安定供給關係인데 節約政策을 위해서 熱量計를 世帶別로 부착하는 問題에 대해서 見解를 물으셨습니다. 95年 3月 1日 현재로 서울의 中央集中煖房은 65萬 家口입니다. 分類別로 보면 油類는 26萬 3,265家口, LPG가 291家口, 都市가스가 18

萬 5,241家口, 地域援房이 20萬 1,412家口입니다. 그리고 團地로써는 906個 團地가 있는데 이 油類라든지, LPG라든지, 其他 都市가스는 이것이 집중적으로 計劃되게 되어서 煖房用 施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關聯資料가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管理公團에서 推進하고 있는 地域煖房 20萬 1,412家口에 대해서는 아예 아파트를 지을 때 熱量計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熱量計 設置問題, 에너지 節約問題에 대해서는 좋은 意見으로 저희가 이것을 關係部署와 檢討를 해서 擴大方案을 研究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鄭泰宗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입니다. 都市가스 事業法에 의하면 供給管 工事의 需要者 負擔이 '94年度에 廢止되었다고 했는데 '95年度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理由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4年 3月 1日附로 住宅用 供給管 工事費에 대해서는 需要者 負擔制度를 전면 廢止하였습니다. 그러나 産業用, 營業用, 그리고 新築 共同住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規定으로 종전과 같이 需要者 一部 負擔이 되고 있습니다. '95年度에 需要者 負擔 工事는 4.7km에 3億 5,300萬원이었음을 報告드립니다.

다음에는 不實工事が 아닌 완전한 工事現況 및 摘發 即時 復舊가 可能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든 都市가스 配管工事は 中間檢査, 氣密檢査試驗을 거치는 完成檢査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 埋設되어 있는 配管에 대해서는 완전한 工事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여 있을 수도 있는 不實施工 摘發을 위해서 실제 掘鑿을 통한 點檢을 하고 있고, 또한 摘發時에는 再施工은 물론 關聯者도 問責을 하고 있습니다.

'95年度에 埋設 都市가스配管 試驗掘鑿 現況을 말씀드리면 住民申告가 83個, 區廳長이 직접 指定한 것이 187個, 其他 102個 해서 372個의 掘鑿을 해서 시험한 결과 363個는 適法한 것으로 밝혀졌고, 9個가 不實施工이 된 것으로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告發 및 再施工을 네 군데 했고, 告發은 하지 않고 再施工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不實施工 摘發時에는 당연히 安全을 위해서 즉시 再施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不實施工 與否를 철저히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泰宗 委員; 잠깐, 94年度 3月 1日부터 寄附採納을 禁止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우선하는 것은 供給管, 그리고 供給管에서 家庭으로 이루어진 것이 分支管이지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네.

○鄭泰宗 委員; 供給管과 分支管의 正義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럼 第3條의 許可事項, 第20條第2項의 시비 적절하게 가릴 것, 그 다음에 또 總理室 그런 문제를 떠나더라도 보통 우리가 社會가 있는 곳은 法이 있거든요. 法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社會規範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慣例, 通例, 常例, 一般常識이 통하는 것으로 우리가 分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供給管과 分支管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道路에 있는 것은 供給管이지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네, 그렇습니다.

○鄭泰宗 委員; 道路에서 分支管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標準工事費로 시비 적절, 명확하게 가린 것이 바로 61萬원 아닙니까, 보통 제일 많은 것이. 그것이 쉽게 말하면 需要者가 負擔하는 金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네.

○鄭泰宗 委員; 다시 말하면 供給管이 老朽되었거나 故障이 나거나 修理할 때는 누가 修理합니까?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都市가스會社에서 하지요.

○鄭泰宗 委員; 分支管은?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分支管도.....

○鄭泰宗 委員; 分支管은 團地內나 아파트團地면 需要者가 하지 않습니까?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아파트團地の 土地境界線까지는 都市가스會社에서 하고, 團地內는 原 需要者 負擔으로 되고 있는데 都市가스會社에서 負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鄭泰宗 委員; 있지만 原則上으로 보면 家庭內의 分支管은 個人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네.

○鄭泰宗 委員; 그러면 94年度 3月 1日 前까지 寄附採納했다는 것은 便法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産業經濟局長님 말씀하신 대로 淸淨燃料를 시급히 빠른 시일내 서울시에 普及을 擴大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또한 各 區廳長 諒解 아래 寄附採納이 便法的으로 運營된 것이아니겠습니까?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鄭委員님, 지금 말씀하시는 事項은 그 뒤 뒤에 質問事項이 있거든요.

○鄭泰宗委員; 質問事項입니까?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네, 우선 좀 빨리 進行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그 다음에 鄭泰宗 委員님이 都市가스會社와 施工業者의 關係定立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都市가스會社와 施工業者는 民法과 商法の 적용을 받는 독립적인 法人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都市가스配管 施

공과 관련하여서는 發注者와 都給者의 關係가 되겠습니다. 不實工事의 1次 責任은 1次的으로 施工業者에게 있으며, 2次的으로는 都市가스會社에 있습니다.

그래서 需用家에서 民願이 있으면 사실은 선택적으로 民願提起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공급의 책임을 도시가스에서 맡고 있고 도시가스회사에서 民願接受窓口를 만들어서 民願을 接受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提起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현행 도시가스의 用途別 料金制度에 많은 問題點이 있다 이에 대한 根據는 무엇이며, 누가 立案을 하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用途別로 料金制度를 채용한 근거는 겨울철에는 도시가스의 과다사용으로 도시가스의 需給에 지장을 주고, 하절기에는 전력의 과다사용으로 전력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煖房用은 비싸게, 冷房用은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즉, 계절별 수요격차 이런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炊事는 LPG와 경쟁단계에 있으므로 炊事用은 LPG와 비슷한 경쟁연료와의 관계로 되고 있고,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産業用은 현재 요금체제가 저렴하게 돼 있고, 營業用과 業務用은 수입성있는 용도이므로 이에 맞추어서 비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요금관계는 都市가스事業法 第20條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신청에 의해서 通産部長官이 승인을 하는 내용인데, 요금체제를 잠시 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住宅炊事用은 301원 90전, 煖房用은 243원 64전, 營業用은 309원 6전, 一般煖房用 240원 39전, 冷房用은 165원 97전, 産業用은 196원 70전으로 돼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市基金이 운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가스사업자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市基金의 폐지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商法上の 주식회사이므로 경제성 원리인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의 公共性이 있습니다만 이 配管工事의 수익성과 특히 고밀도지역 같은데를 아무래도 선호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市基金을 폐지한다면 問題에 위에 있는 특성,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고밀도지역을 선호하는 이런 자유경쟁의 商法上の 원리에 의해서 普及이 어려운 이런 고지대라든지, 또는 저소득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띄엄 띄엄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은 상당히 普及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의 재래도시, 재개촌락 같은 이런 데에 普及을 확대하는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안전관리적인 측면에서 市基金은 존속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市基金을 예를 들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축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 問題로 하고, 일단 완전히 없앤다면 問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정 규모로서는 존치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시가스사업은 財閥企業이 참여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독점적, 안정적 사업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초기에는 막대한 施設投資費의 소요,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기업이 도시가스사업의 참여를 사실은 꺼려 했습니다. '87年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LNG配管網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이 아니고 자체 프렌트 제조공정에 의한 공

급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87年 LNG도입하고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政府의 支援, 도시가스에 대한 市民의 요구증대 등으로 도시가스普及이 가속화되어서 95年 10月 현재 普及率이 66%해당이 되고, 補給家口는 180萬 가구가넘는 이런 문제가 되고, '90년에 비해서 2.5배 정도 신장된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초기에는 사실 도시가스회사에서 逐 計數를 把握해 보니까 적자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88년부터 회사별로 시기차이는 있습니다만, 흑자를 보이기 시작해서 91年末 현재 會期純理益이 195億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當期純利益은 그 동안에 도시가스회사에서 투자한 비용이 3,600億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봐서는 5.4%에 해당이 됩니다. 또 普及확대 가속화로 해서 앞으로 아마도 이 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수준으로 볼때 5.4%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도시가스사업은 장치산업으로 초기에 막대한 施設投資費의 소요, 대형사고 발생 시보상대책 등을 감안할 때 中小企業보다는 우선적으로 안정될 때 까지는 大企業이 참여하는 것이 普及擴大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과도한 이익창출을 政府가 사전에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納入資本金의 10% 이상은 배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施設分擔金, 減價償却費, 政策資金, 配管投資義務化 등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익창출 면에 대해서 政府에서 제약을 하고 는 실정입니다.

또 도시가스사업의 指導·監督을 맡고 있는 서울시로서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行政指導로 저소득시민이 사는 普及脆弱地域에 대한 普及擴大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친

절히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도시가스사업이 되도록 指導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寄附採納 工事로 시민이 부담한 工事費는 당연히 도시가스사업자가 賠償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투자이익도 市民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의견을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市民에 대한 賠償與否는 供給管工事費 수요자 부담자체가 불법부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供給管工事費를 需要者에게 부담시키는데 대한 法的 근거가 있느냐, 또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논리상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供給管工事費 需要者 부담은 都市가스事業法 第20條에 근거하여 都市가스供給規程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都市가스事業法 第2條第3項에 의하면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의 책임과 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費用負擔額을 供給規程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장치산업으로 사업초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므로 需要者로 하여금 일부 施設費를 부담케 하는 것이 당초에 이 法을 만든 趣旨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받는 需要者에게서 設備費用을 준수하지 못하고 모두다 이것을 가스요금에 반영해서 일반 需要者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킨다든지, 또는 供給者가 순전히 이것을 짊어지면 일시에 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늦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정연료 확대, 또는 조기의급에 지장인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는 供給會社の 投資費 한계성으로 인해서 供給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供給管工事費 일부 부담으로 도시가스를 供給받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판단 보다는도 이제까지 있었던 '94年 이전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넷째, 供給管工事費 부담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需要者 부담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수익성있는 營業用, 産業用, 業務用, 분양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신축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供給會社가 30% 이상 부담할 뿐만 아니라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住民의 동의와 區廳長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도 100m당 30가구가 넘는 경우는 供給會社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다섯째, 이런 需要者 부담공사는 상수도, 전기, 통신사업에도 채용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需要者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需要者 부담 供給管工事は 불법부당한 것이 아니므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이것을 賠償할 책임은 현재 法體制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鄭委員님 質疑를 마치고, 다음은 이금라 委員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삼익그린 2차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사용함에 있어서 施設分擔金の 적정징수 여부와 이와 관련한 陳情에 대해서 처리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江東區 明逸洞 28번지 소재 삼익그린 2차 아파트는 大氣環境保全法에 의해서 청정원료 사용함을 의무화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85年 8月 7日 가스시설공사를 시행해서 95年 9月 4日 도시가스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施設分擔金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都市가스供給規程 第14條 규정에 의해서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徵收하는 것으로서 同 아파트의 施設分擔金은 9,900萬원 徵收했는데 이 산출기초는 시간당 표준사용량 3,600톤에 시간 유량 톤당 施設分擔金 2萬 5,000원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9,000萬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附加價値稅 900萬원 포함해서 9,900萬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역의 施設額은 보일러 15톤 짜리 4臺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共同住宅管理令에 의해서 垜地境界線까지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는 입주민이 부담하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단지 내에 있는 供給管 1億 2,500萬원을 대한 도시가스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은 일단 이익을 본 것으로 저희 資料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民願 本 內容은 通商産業部에 접수해서 서울시에 移牒이 되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民願人 면담을 거쳐서 10月 13일에 결과를 民願人에게 통지했음을 報告드립니다.

다음에는 崔永運 委員님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業務報告書에 도시가스 안전관리인원이 60名에서 390名, 그리고 장비는 누설검지차량 10臺, 탐지기 350점 보장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증원되고 보장되는지 진행사항을 얘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자는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에 의거 회사별로 12名씩 5個 회사 총 60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年 10月 1日 配管 15km당 안전점검원 1名씩을 확보토록

都市가스事業法이 8月4日字로 改正이 되어서 330名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누설검지차량 및 탐지기, 압력측정기 등 안전 관리장비도 확보 중에 있는데 이것은 내년 3月까지 완전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설검지 차량은 6臺 있었는데 10臺로 늘렸습니다. 늘린 것은 서울도시가스가 1臺, 가스안전공사 서울지부가 3臺 해서 4臺 늘었고, 탐지기, 압력측정기 350점은 도시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 인력증원에 따른 장비 보장이 되겠습니다.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支社도 73名에서 157名으로 84名을 增員을 하고 있는데 來年 3月까지는 완전히 完了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鍾路, 中區, 城北은 都市가스 普及率이 30% 이내로 써 극히 저조하다, 8月 이후 工事 進陟狀況을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今年 9月 30日 현재 普及率은 鍾路가 26.9%, 中區가 26.7%, 城北이 2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月 10日까지 調査를 해 보니까 鍾路가 3.1% 늘은 30%, 中國가 2.3% 늘은 29%, 城北이 4.8% 늘은 33%가 되었음을 報告드립니다.

다음에는 都市가스 普及의 均衡發展을 위한 서울市の 노력을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普及이 어려운 地域에 대한 공통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都心地域으로 地中線, 地下鐵, 通信 등 地下 支障物이 과다하게 깔려 있다, 高地帶 急傾斜 및 岩盤 地域이 많아 工事費가 他 地域보다 2培 내지 3培 이상 所要되고, 裏面道路가 극히 협소하다, 再開發 豫定地로서 都市計劃事業이 지금 進行 中에 있다, 城北이 13個所, 中區가 10個所, 鍾路가 3個所가 進行 中입니다 다음에는 地域整壓機 敷地確保에 어

려움이 있는 이런 問題로써 重要點이 있는 것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써 都市가스 供給會社에 대한 강력한 指導와 市基金이 支援돼서 脆弱地域에 대한 普及率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再開發事業時隣近地域에 대한 整壓機敷地도 함께 確保, 管轄 區廳長과 協議해서 公共用地 活用方案 등을 강구해서 推進하고, 또 弘報의 活性化로 해서 都市가스 供給을 띄엄 띄엄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申請할수 있는 率을 提高시키고, 再開發事業을 조속히 推進토록 해서 關係機關에 促求하는 그런 면으로 推進을 하고자 합니다. 參考로 아까 말씀드린 脆弱地域에 대한 住宅이 2000년까지는 3萬1,000世帶가 完工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再開發事業 完了時 普及率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黃正植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答辯드리겠습니다.

地域管理所가 有資格 會社의 免許를 빌려서 不法 都市가스 施設을 施工한 現況과, 無資格施工의 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地域管理所의 가스施設工事に 대해서 그 동안 都市가스 會社의 地域管理所가 有資格 會社의 免許를 貸與받아 가스施設工事を 不法적으로 施行한 工事は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地域管理所가 建設業法에 의한 單種免許許可를 받아서 가스 供給施設을 施工하는 경우와 都市가스事業法施行令 별표2의 規定에 의해서 韓國가스安全公社의 가스設備工事 教育을 履修한 後에 使用施設을 施工하는 두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地域管理所 전체 111個所 中 建設業法에 의한 設備免許를 소지한 地域管理所는 39個가 있음을 報告를 드립니다.

그러면 地域管理所가 施工한 가스使用施設에 대해서 잠시

現況을 말씀드리면 '92년에 2,105件, '93년에 2,661件, '94년에 1,976件 해서 3個年 동안에 6,742個所를 施工을 했습니다.

그러면 無資格 施工에 대해서 모든 都市가스 配管工事に 대하여는 今年 8月부터 工事實名制 制度를 도입해서 직접 工事한 거기에다가 實名으로 전부 기재해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無資格 施工은 이제는 어렵다.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95年 8月 5日 改正 公布된 都市가스事業法은 無資格 施工者에게 下都給을 할 수 없도록 措置했고, 이를 違反할 때는 1年 以下の 懲役 또는 1,000萬圓 以下の 罰金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法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指導·監督을 強化하면 이런 無資格 施工은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閔泳三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95年度 監査院 監査 指摘事項에 의해서 指導·監督 不徹底와 不適正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며, 11月末까지 措置豫定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進行狀況을 說明하라는 말씀입니다.

不徹底와 不適正의 差異에 대해서는 이것이 뚜렷한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不徹底는 各種 諸規定에 의한 違反事項은 아니지만 어떤 行爲가 미흡하게 이루어져서 不徹底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不適正은 各種 規定 및 目的 등에 適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事項이 不適正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今番 2件 指摘事項 中 12件은 不徹底, 12件은 不適正으로 分類되어내려 왔습니다. 모두 是正措置로 處分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24件에 대해서 현재 20件은

완전히 完了가 됐고, 3件은 11月末까지 措置가 되고, 1件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 1個月 정도 늦어져서 12月末까지 措置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더 늦어지는 것은 道路掘鑿 및 配管交替에 問題가 있어서 이것이 한 달 조금 遲延되는 問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의 橫暴 防止策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都市가스 供給管 設置를 財源이 부족하다는 理由로 需要者에게 부담시키는 事例, 어떤 橫暴로 가정할 수 있는 事例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家庭管의 受託工事 施行 및 보일러 등 連結施工時에 工事費를 과다하게 徵收하는 事例, 그리고 都市가스 供給을 遲延시키는 事例 등을 橫暴의 유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에 대한 對策으로써는 都市가스事業法令 및 關係法令의 엄격한 適用과 指導·監督의 強化, 그리고 都市가스 供給管 需要者負擔制의 全面廢止履行, 使用施設의 標準工事費制度 및 受託工事制度 弘報強化, 都市가스 未供給地域에 대한 計劃配管制 적극 實施, 그 다음에 都市가스施設點檢과 安全管理 強化, 그리고 對市民 친절봉사를 위한 教育 및 弘報強化를 계속해 나갈 때 이런 일은 防止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cm^2 당 70kg이상의 配管에 대한 安全狀態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서울市內에 70kg이상의 配管은 17.2km가 되겠습니다.

3個 地點인데 江西區, 麻浦區, 江南區 이렇게 되겠습니다. 埋設狀態는 2.5m깊이로써 配管 上部에는 보호철판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管理는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支社

및 가스기공이라는 專門 管理會社 등이 수시 巡察業務를 遂行하고, 또한 整壓機地 9個所에 대해 安全管理員 2名씩 常駐 配置해서 매일 巡察하고 있고, 그 다음에 自動測定 電子시스템을 各 都市가스會社, 또 서울支社 이런 데 狀況室에 設置를 해서 24時間 가동을 해서 監視를 하고 있는 이런 점으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安全狀態가 維持되도록 이렇게 指導·監督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都市가스事業基金을 668億원을 조성하고, 이 중 95年11月 11日 현재 539億원을 貸出해서 殘額이 129億원인데 이의 內譯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總 造成額이 668億원, 事業者 融資額이 539億원, 殘額이 129億원입니다. 이 殘額에 대해서는 借入金利子支出로써 14億원을 잡고 있고, 나머지 115億원에 대해서는 年末 내지 2月 前까지 計劃된 融資支援計劃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支出될 그런計劃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한 막대한 利益이 發生하고 있다, 基金까지 融資하는 것은 特惠支援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중복이 되는 事項입니다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94年末 都市가스事業者의 總 投資費는 5,590億원입니다. 이 중 施設分擔金を 제외한 都市가스事業者의 純粹 投資費는 3,616億원으로써 '94年末 當期純利益 195億원으로 純粹 投資資의 5.4%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4年末까지 市 基金 融資額은 485億원으로써 全體 投資費의 8.7%에 해당이 됩니다. 이 基金融資는 脆弱地域에 대한 普及擴大支援과 施設의 安全管理強化 側面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정수준은 유지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朴一男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都市가스 地下埋設地圖 作成節次 및 處理部署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作成經路를 말씀드리면 設計, 技術檢討, 工事計劃 承認, 施工, 竣工圖 作成, 完成 檢査, 現場과 圖面の 일치여부 확인, 圖面電算入力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處理部署는 都市가스會社 道관관리부에서 맡고 있는데, 活用部署는 區廳 土木課, 下水課, 産業課, 其他 轉電 電氣·通信, 地下鐵公社, 그 다음에 各種 建設工事 이런 데에 活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이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스配管 圖面으로 管理 및 使用하던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管理하고 上·下水道, 通信 등 他 工事 등에도 活用하기 위해서 '94年度부터 5個 都市가스會社 모두 電算化를 推進하고 있으며, '97년에 完了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市에서는 이를 토대로 電算化에 대한 配管圖面을 '98년까지 市廳과 區廳, 都市가스 會社, 또 이런 데에 전부 電算으로 연결을 해서 標準化 作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97年度에 2個 區廳을 먼저 示範으로 연결을 하고, '98年度에는 나머지 23個 區廳도 전부 연결하도록 그렇게 推進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李成浩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입니다.

都市가스事業基金에 대해서 貸與手教科 再檢討의 廢止用意, 決算書의 會計年度 區分明確 및 決算內容이 부적절하여 정확하게 할 用意는, 基金管理費는 一般會計의 經常費 費目으로 支出하는 것이 어떤지, 基金을 점차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의 見解는, 都市 가스施設 工事實名制의 進行內容과 結果, 가스施工 專門業體 育成 建議事項 進陟事項에 대해서 물

으셨습니다.

먼저 貸與手數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 第4條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에 同基金을 委託하여 管理하는데 대한 手數料으로써 현재 中小金業育成資金 및 食品振興基金과 같이 融資金의 1%를 委託金融機關에서 源泉徵收하고 있습니다. 이는 同基金을 使用配管施設工事 500餘件에 대한 每件別 韓國가스安全公社의 技術檢討 및 完成檢查 畢證, 施工者의 契約書類, 都市가스會社의 精算書類 確認과 融資金의 利子 및 元金償還 등의 業務를 遂行해야 하고, 또한 貸損 可能性을 무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安全裝置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同基金 管理業務를 公務員이 遂行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手數料에 대한 것을 廢止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 手數料 引下問題는 委員님이 指摘하신 대로 受託機關인 銀行과 協議를 해서 이것은 좀 낮추는 방향으로 推進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決算에 대해서 都市가스配管 設置는 都市가스事業者의 發注工事時에 安全檢查竣工 및 精算 등 일련의 過程을 거침으로써 會計年度 末日까지 竣工 및 精算 등이 곤란하여 부득이 地方財政法 第4條 規定에 의한 出納閉鎖期限 2月 28日과 같이 決算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決算監査에서도 問題가 된 바와 같이 融資對象의 가스配管工事に 대해서 每年 12月 30日 안에 竣工 및 精算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一般會計, 또는 우리 市에서 하고 있는 이천會計年度와 이렇게 맞추어야만 지난 번 決算監査 때와 같은 錯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關係部署와 協議를 해서 한번 相議를 해서 是正하는 方向으로 해 보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잠깐만요. 都市가스事業基金 使用料率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아니, 銀行에…….

○李成浩 委員; 언제부터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이번에 市金庫인 商業銀行하고 市하고, 財務局하고 利子率에 대해서 조정작업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거기다 넣어서, 그 根據는 中小企業資金融資 같은 데도 똑같이 1%인데 그것은 부도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銀行이 지지만 이 都市가스基金은 사실 銀行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補填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銀行에서 단지 관리하는 것은 1%가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어서 財務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저쪽에 의견을 넣어서 조정을 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施設工事 實名制 진행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누가 언제 施工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여 不實施工을 방지함을 물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95年 8月 28日 부터 가스施設工事實名制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근주민 참여하에 공급시설 500m당 1個所, 사용시설은 주택당 1個所에 竣工日, 참여자 인적사항, 공사개요 등을 立案해서 표시하는 제도로써 현재 同 制度는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극히 일부 홍보부족과 施行者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사항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基金管理費는 당연히 당해 基金計定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基金造成의 점차 축소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年 '94年 基金造成 250億원, '95年 183億원, '96年 豫定額이 185億입니다만 현재도 점차 基金造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普及脆弱地域에 대한 普及擴大에 따라 基金規模는 현재 普及擴大가 되면 점차 축소될 전망으로 있고,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市內 전체가 도시가스관이 전부 깔린다는 그런 면으로 봐서 앞으로 안전관리쪽에 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또 오래된 그런 지역의 老朽配管 이런 것도 교체하는 여러 가지 問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축소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基金規模는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나, 일정수준의 基金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스공사 전문업체 육성건에 대해서 建設業法에 單種設備免許 소지자가 上·下水道 및 난방공사를 함께 施工함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이런 單種設備免許와 분리해서 가스시공전문업체를 육성토록 通商産業部에 금년 3월에 건의해서 通商産業部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96年度에는 이것이 꼭 改正이 되어서 전문설비업체가 나오도록 계속 推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在來市場 現代化 基金造成을 위해 都市가스事業基金을 在來市場 現代化基金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在來市場 現代화를 위해서 政府에서도 적극 推進하고 있고, 또 市에서 전부 推進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在來市場 現代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基金條例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都市가스基金을 폐지하면서 이것을 在來市場 基金으로

전환하는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李成浩 委員; 넘어가기 전에 在來市場 현대화 계획과 관련한 條例制定할 수 있는 法的根據나 또는 다른 根據가 있어야 在來市場現代化 計劃條例를 制定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法律的 검토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제가 보기에 아직 그 根據는 없는데 저희도 건의를 했고, 政府에서 '96年度에 指針이 내려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在來市場에 대해서 容積率을 2배에서 4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在來市場에 대한 建築費를 50% 支援해 주는 방향으로 推進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범위로 해서 推進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推進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施行令이나 이 때에 위임근거를 넣어서 示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條例를 制定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관계는 발전적인 육성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禹元植 委員님이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94年 年末年始 취약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區廳別로 지적건수에 차이가 있는데 일부 區廳은 형식적인 안전점검 이루어진 것 아닌지, 또 市에서 준 점검규정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質問이 있으셨습니다.

市에서는 가스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法定檢査이외에, 法定檢査는1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解氷期, 夏節期, 冬節期, 年末年始이런 때에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점검은 매년 1月 區廳이 해

당 관련기관에서 점검대상,방법, 점검표, 조치대책 등을 일괄 示達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점검 방법이라든지 점검표 이런 것이 區廳別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區廳別 지적건수의 차이는 설치년도 등 시설 여건과 관리상태, 점검자가 열심히 하느냐, 또는 사명감이 있느냐 하는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판단차이의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건수의 건수차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동점검 및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行政指導를 강화해서 점검이 철저히 되고, 점검결과 조치가 철저히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에는 8月 5日 대한도시가스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改善計劃 通報내용에 의하면 낙뢰로 電壓機室 감시장치 일다가 훼손되었다는데 피뢰침 미설치 등 管理不賣이 아닌가, 사고경위, 피해정도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해서 答辯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電壓機는 피뢰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금년7月 9日 발생한 대한도시가스 電壓機 140個 중에서 35個 電壓機 내부 부품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낙뢰의 순간적인 과전압 10億볼트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뢰침은 낙뢰의 전류를 대부분 地層에 방출하나 순간전압이 높을 경우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부품인 압송압력전송기는 配管 내 압력상태를 회사 상황실에 전송하는 電壓機 실내에 있는 장치로써 電壓에 의한 저항감은 최대 35볼트로서 낙뢰의 電壓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이며 사고당시 타버렸던 것으로 보아 낙뢰피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電壓機조 압력전송기 교체 등 현재 피뢰설비는 모두 교체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력한과 전압에 보호될 수 있는

장치, 엘레스토 및 베리어 전류전압제한기입니다. 이것을 보완 중에 있는데 이것도 금년 안으로 모두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 '95年度 가스시설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에 의하면 許可業所 26, 申告業所 71個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미가입 사유, 가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江南區廳 41個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年末 約 80%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把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5年 10月末 현재로 보면 4,483個所 중에서 97個所가 미가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가입이 됐습니다. 미가입 된 것은 2%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97個所 미가입된 것은 休業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사업을 미개시한데가 6군데, 미사용하고 있는 데가 1군데, 미가입된 데가 86군데됩니다.

앞으로 미가입시는 過怠料處分, 營業停止 등 行政處分을 철저히 하고, 미가입 업소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江南區廳이 많은 것은 江南區廳은 他 區廳에 비해서 802군데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다른 區廳은 대개 179個所가 되는데 이와 같이 5배 정도 江南區廳傘下에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많지 않은데 계수로는 많았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미가입 업소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年 1月 20日부터 2月 28日까지 실시 중인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의하면 市場, 商街 등 지적건수가 많은데 3月 20日까지 1개월이나 조치가 지연되느냐, 이런 말씀계셨습니다.

3月 9日 指摘된 589件에 대해서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他施設에 비해서 우선해서 3月 20日까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으로 하려고 했는데 指摘되어서 점검한 것이 3月 9일에 示達이 됐기 때문에 열흘만에 실질적으로는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지금은 다 됐나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學校敷地 내 地域整壓機는 위험하므로 移轉되어야 한다, 移轉對策을 강력히 推進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學校敷地 내 地域整壓機가 있는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國民學校가 38군데, 中學校 11, 高等學校 12, 大學校 3군데 해서 64군데입니다. 공급가수구수는 13萬 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地域整壓機 576個所 중에서 11%에 해당이 됩니다. 問題點으로는 教育廳에 대한 監査院 監査時에서도 이 사항이 教育廳에 指摘이 됐었는데 問題는 뭐냐면, 이 地方財政法施行令에 公有財産使用時 永久施設 築造禁止이 사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指摘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問題點을 말씀드리면 學校敷地 내 整壓機는 學校 및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실은 그 지역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인데 현재 기존 整壓機를 학교용지 외에 다른 지역으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問題點이 나옵니다.

뭐냐면, 學校는 난방 및 급식을 위해서 별도로 專用整壓機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移轉하게 될 때는. 그리고 또 전문인들이 管理하는 地域整壓機 같이 한 두 사람으로 완벽한 管理가 되고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는 問題點으로 제시가 됩니다. 또한 현 기존 整壓機를 移轉하고 도시가스를 난방연료로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 學校에서는 경유나 석탄으로 轉用해야 된다는 이런 問題가 나오고, 또 약간 학교내의 환경적인 問題가 나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단 移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移轉하려면 또 일반 지역주민들이 사는 그쪽에서는 님비 현상 때문에 내 지역은 안 된다는 集團民願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問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移轉順序를 우선 國民學校부터 우선순위를 놓고, 그 다음에 中學校 이런 순위로 해서 2005년까지 일단 移轉할 10個年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移轉 전이라도 현재 있는 整壓機는 철저히 管理를 해야 되겠다,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매일 순찰 순회점검해서 철저히 管理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建設交通部와 협의를 해서 政府에서는 宅地開發時에는 整壓機 敷地를 公共用地에 꼭 포함시켜 주도록 관계규정에 걸고, 그 다음에 우리 市에서 당장할 수 있는 것은 道路나, 公園, 河川, 溝渠 등 이런 것을 各 區廳長들과 협의를 해서 인근 公共用地에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移轉토록 推進하면서 再開發, 再建築 등 都市計劃事業時에도 건축주와 사업자 등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移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서울도시가스 社長님한테 묻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管掌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學校 안에 있는 地域整壓機 36個죠, 그 중에 2個는 大學敷地라 移轉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밝히셨죠?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移轉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禹元植 委員; 大學敷地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안하셔도.....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産業經濟局長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移轉의 順序를 우선 어린애들이 모이는 國民學校부터 시작해서 年次的으로 進行할 수 있도록 이렇게 計劃을 가지고 進行을 합니다.

○禹元植 委員; 여기 서울도시가스가 보낸 資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저도 좀 찾아야 되니까 조금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34個 옮기는 것도 당장 2000년까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計劃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잠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地域整壓機를 처음에 設置할 때는 몇 가지의 具備要件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가 여태까지는 실천을 해 왔습니다.

뭐냐 하면 地域整壓機를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우리가 京釜 高速鐵道라든가 鐵道를 까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地域에다가 配管을 할 것인가 하는 問題, 어디다 地域整壓機를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主幹線을 끌고 거기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供給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計劃自體가 제일 처음에 출발점으로 잡게 됩니다. 잡게 되는데, 가장 메인이 되고 地域整壓機의 位置를 바꾸어야 된다면 어떤 問題가 나오느냐면

그 동안에 깔아놓았던 모든 管 자체를 變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問題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委員님들 아시다시피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바로 工事が 되는 것도 아니겠고, 또 그 位置를 찾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해서 상당한 時間을 두고 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産業經濟局長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地域에 새로 再開發을 한다든가, 또 어떠한 宅地造成을 해서 새롭게 敷地가 確保될 때 그 때 그 때 가장 民願이 없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再投資가 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計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여기 學校內 敷地에서 都市가스를 移轉하는 問題를 가지고 教育廳으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옮길 計劃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計劃을 계속 보내지 않았어요, 나머지 都市가스 다 마찬가지로인데. 그러다가 그 計劃을 언제 보냈느냐 하면 올해 5월에 보냈단 말이에요. 올해 5월 23日附로 해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처음으로 보낸 것이지요. 教育廳으로부터는 계속 죽 얘기를 들어왔었지요, 이것 옮겨달라고?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네, 그렇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런데 大學校 敷地の 移轉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안하셨다 그랬는데 이 資料에 보면 송실대학교하고 추계예대는 檢討對象에서 제외예요. 大學敷地로 移轉 不必要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그것은 제가 內容을 잘 모르고 있는 事項입니다. 한번 더 檢討를 해서 內容을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리고 이것이 옮기기가 어려운 점은 알겠는

데 예를 들면 한진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10개가 있는데 3개는 2000년까지 어떻게든지 좀 옮겨보겠다, 그리고 7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데 서울도시가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大學校는 아예 檢討對象에서 除外하고 나머지 問題도 굉장히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옮겨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市 教育監이 地方財政法施行令 第89條 永久施設物의 築造禁止와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에 의해서 자기네 사용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學校敷地에 永久施設物을 築造하는 것을 禁止하겠다 이런 의사예요. 法的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條件들이 發生했는데 지금 都市가스會社에서는 設置해 놓고 옮기려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못 옮기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이들 保護하는 問題도 있지만 政府의 財産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教育監이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法的根據까지 들어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中·長期計劃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禹委員님, 2個 大學에 있는 整壓施設을 檢討를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은 저도 사실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제가 갖다 보여드릴까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檢討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參考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 都市가스事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整壓施設입니다. 이 整壓機가 제대로 配置가 안 되게 되면 그 地域에 대한 安定供給은 그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

다.

이래서 제일 처음에 學校敷地에 設定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바로 조금 전에 産業經濟局長 說明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學校 自體가 나름대로 가스를 쓰려면 特定使用施設을 또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整壓施設을 한번 見學할 수 있는 기회가 계시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불과 坪數는 몇 평 안됩니다. 안 되는 가운데 學校의 特定使用施設에 整壓施設을 設置 하면서 地域整壓機를 같이 놓아서 計劃을 세워서, 나름대로 또 會社는 그 당시에 賃貸 借契約을 統結해서 賃貨料를 支拂하면서 이렇게 해서 죽 써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최근에 阿峴洞에서 事故가 나고, 大邱에서 事故가 나고 하니까 整壓施設을 하게 되면 전부가 다 危險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참 問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産業經濟局長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 長期計劃을 세워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移轉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計劃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禹元植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住民들도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危險한 施設이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것이 都市가스會社에서 잘못하신 것인데 都市가스가 들어오면 무조건 危險하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事故가 자꾸 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만약의 事故를 前提로 한다면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學校에 거기가 設置하기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設置한 것도 問題지만 그것을 그렇게 옮겨달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整壓機 敷地를 確保하려고 하여도 도시가스폭발사고로 住民들의 民願提起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대체가능한

敷地の確保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렇게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노력을 하셔야지요, 都市가스會社에서. 저희가 괜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教育廳에서 이런 法的인 根據를 가지고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만 答辯하시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答辯을 하시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대답도 안했잖아요. 제가 이 公文書를 읽다보니까 教育廳長이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몇 차례 얘기 하는데 아무 答辯도 없다, 빨리 좀 答辯을 하게 해 달라, 長期的인 計劃이라도 세워 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어요. 이렇게 都市가스會社에서 政府機關까지도 무시하는 소위 無所不爲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敷地確保 自體에 원체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第1次的으로 空港쪽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 移轉을 하려고 나름대로 計劃을 세워서 作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市 産業經濟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는 細部計劃을 세워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方針에 따라서 하나하나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2005년까지 細部計劃을 세운다고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그렇습니다.

○禹元植 委員; 2005년까지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2005年 까지 移轉하는 것을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됐습니다. 우선 産業經濟局長 答辯이 끝난

다음에 韓國가스安全公社 支社長으로부터 現況報告를 듣고, 그 다음에 委員님들의 質疑를 하는 그런 순서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禹委員님이 質問하신 事項에 대해서 계속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都市가스民願申告센터 利用實績이 區別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展示行政의 標本이므로 효율적 活用대책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都市가스民願申告센터는 5個 都市가스會社와, 그리고 各 區의 産業課, 그리고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市 支部에 設置 運營되고 있습니다. 區別로 利用實績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利用實績이 많은 경우는 都市가스의 使用世帶가 10萬 世帶가 넘는 蘆原, 江西, 冠岳, 江南, 松坡가 해당이 되고 鍾路, 中區 등과 같이 使用世業가 적은 1萬 5,000世帶 以下입니다. 이 경우는 民願發生 頻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各 區에서의 弘報不足도 그 原因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都市가스民願申告센터의 효율적인 活用對策에 대해서 民願申告센터의 利用實績이 적다는 것은 市民 不便事項이 없도록 都市가스 供給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都市가스를 利用하는 市民이 不便事項의 申告를 할 수 있는 民願 申告가 어디에다 과연 申告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모른다는 그런 側面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양쪽 다 겸해서 좀 弘報를 強化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民願解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江南도시가스 進·出入路 問題로 監査院 監査時 指摘事項中 措置한 結果로 몇 가지 事項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進·出入路 決定經緯, 專用消防道路確保方案, 10個 地域管理所의 活用方案, 關係 部署의 都市計劃 變更決定 事由의 結果, 出動待機所 設置 등 行政指導 結果, 車輛 5臺 이상 駐車空間 및 事務室 確保 與否. 먼저 進·出入路 決定經緯입니다. '86年 11月 19日竣工當時 폭 8m, 길이 120m의 土地를 所有主로부터 買收 確保하여 安養川 堤防과 연결되는 進·出入 道路를 確保하 있습니다. 進·出入路 入口가 93年 6月 18日 開峰2빛물 펌프장으로 都市計劃施設이 變更되었으므로 進·出入路 入口 이것은 閉鎖를 했습니다.

또 별도로 專用消防道路 確保方案입니다.

九老區廳長의 回示에 의하면 京仁路에서 開峰2빛물펌프장까지의 都市計劃事業은 中期財政 計劃上 2001年 이후로 計劃되어 있으나 都市가스施設物의 安全한 維持管理와 事故時 신속히 緊急出動이 가능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京仁路에서 강남도시가스까지만이라도 우선 개설하고자 計劃을 했는데 工事費가 18億 9,600萬원이나 所要되어서 財政形便上 執行이 어려우므로 강남도시가스로 하여금 關聯 土地主에게 土地使用 承諾을 받아주도록 九老區廳이 要求를 하고 있는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豫算이 確保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當該年度에 끝내지 못하고 年次的으로라도 施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個 地域管理所의 活用方案, 강남도시가스 所屬下에 10個 地域管理所가 있는데 地域管理所의 人力, 裝備를 가스施設 安全點檢, 가스누설사고시 緊急出動業務에 活用하는 方案으로도 講究하고, 따라서 이 地域管理所를 직접 가스會社에서 直營하는 그런 方向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이것은 지금 施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推進할 計劃인가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네.

○禹元植 委員; 이것이 95年 6월에 指摘된 事項이라서.....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指摘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措置가 完了 안 됐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中・長期計劃이 있는데 우선 시급한 대로 圈域內 분산되어 있는 10個 地域管理所의 人力, 車輛 및 裝備를 보강해서 緊急狀況發生에 對備해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시급한 대로 하면 빨리 해야 될텐데 왜 아직도 안했나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죄송합니다. 資料가 잘못 作成이 됐는데, 지금 措置가 完了됐는데 講究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禹元植 委員; 됐습니까?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崔大業; 강남도시가스 社長입니다.

먼저 監査院 指摘事項과 禹委員님의 質問事項에 대해서 저희는 今年 10月末附로 非常 出動센터에 대한 開所式과 거기에 다른 裝備를 補完 完了하고 서울市에 報告했던 事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2個의 地域管理所를 담당하고 있고, 1個 地域管理所마다 1萬 5,000世帶 정도의 安全管理를 擔當하며, 人員은 約 20名 정도가 한 地域管理所의 所管에 있습니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다음에 九老區廳의 都市計劃 변경사유를 확인한 결과, 開峰洞 지역의 '90年 大洪水로 도시가스 진출입보다는 수방대책이 우선 급하므로, 그래서 '93年 6月

開峰빗물펌프장으로 都市計劃을 변경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출동 대기소를 설치 등 방역 행정지도 결과 주차공간 확보 여부는 우선 今年 8月 14日 衿川區 禿山洞 950-9에 긴급 출동 대기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 12月末까지 既已 확보한 장소를 확충해서 停車場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비상출동센터를 만들었을 때 5臺 이상 駐車할 수 있는 공간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안 됐던 것이지요? 사진을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年末까지 더 확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PE관의 용착방식이 맞대기 용착에 대해 도일석유에서 안전에 이상이 있음에 대해 問題를 제기하고 있는데 도일석유와 함께 재시험 용의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PE관 사용범위는 주로 $1\text{kg}/\text{m}^2$ 이하의 매몰용 저압 가스관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4\text{kg}/\text{m}^2$ 當 이하의 중압관에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E관의 연결방법으로는 PE관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용접에 의한 연결은 불가능하므로 현재는 이음관에 사용한 외부 가열방식인 열용착식과 전기 저항열에 의한 전기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施工의 편의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이음관에 내장된 전기 와이어에 전기를 통하면 열을 발생시켜 연결시키는 전자 이음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국내 需要의

98%를 美國의 센트럴이 供給하고 있으며, 불란서 제품인 이 모게즈가 사용되고 있으나 독일석유에서 輸入 供給 중인 英國의 듀라도 있고, 또 국내의 대연정공에서 개발한 대연PE이음관이 신규 市場에 進入 중에 있습니다. 최근 독일석유화학의 PE管 용착에 대한 問題點 指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通商 産業部에서 공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자식 PE管 용착에 대한 시험결과에 모든 제품이 합격된 것으로 볼 때 전혀 용착 품질과 안전성에 問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자식 PE이음관이 국내에 普及되기 시작한 '90年 이후 이 부분에서의 가스 누출사고도 아직 報告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PE管의 용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通商産業部에서 PE管의 施工은 韓國가스 安全公社에서 실시하는 PE管 용접원 교육을 이수한 者가 할 수 있도록 공정교육을 집중 시행 중이며, 가스관 설치후에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시 누설검사 외에 공급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氣密試驗을 추가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을 今年 7月 30日 改正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다른 問題點은 없지만 향후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PE管 工事時에 工事 監督을 철저히 해서 不實施工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또 독일석유화학의 참여하에 PE管 용착시험 용의에 대해서는 같이 공인기관인 가스安全公社의 試驗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試驗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가스 地域管理所의 연결비 등 과다징수 실태조사결과 당초 취지와 상이하게 調査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制度改善 없이 地域管理所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이나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점검내용과 결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今年 4月 20日부터 5月 12日까지 32週間 地域管理所 103個所에 대해서 施工費 과다징수 및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점검한바, 민원처리 지연 2건, 領收證 미발급 19次 等 전부 25件이 적발돼서 해당관리소에 대해서 警告 등 처분하였으며, 당초 점검취지인 施工費 과다징수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制度改善은 연결비용의 과다징수 사례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서 需要者의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 보일러 연결시공 및 수리시에 받는 施工費를 현실정에 맞도록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이를 작업 품목별 단가를 명시한 領收證 양식을 정해서 市民이 알기 쉽도록 제도 개선하였으며, 안전점검비 송달료 등 위탁수수료도 今年 中 현실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地域管理所의 직영화 계획도 적극 推進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마지막 質問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공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年末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예산은 5,500億원으로 推算되고, 이중 需要者가 부담한 것은 229億원 정도인데 이 需要家 부담에 대해서는 누구의 소유이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需要者 부담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91年 이전에는 46.3km를 需要者가 부담을 했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214.3km 해서 총 266.6km입니다. 부담액은 228億 6,700萬원이 됩니다.

서울 및 대한은 이를 會計處理 해서 일단 이것을 會社資産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外의 會社는 회계상 이것을 會社資産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會社에서 會社 資産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需要者 부담 供給管이라 하더라도 도로점용료의 納付, 또 실질적인

安全管理를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需要者가 管理하는 財産으로 拂 수는 없고, 會社가 管理하는 財産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이것을 전부 會社資産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일단은 會社資産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이것이 老朽配管 교체, 그 다음에 配管의 가스누설, 기타 安全管理 이런 폭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두 件 남은 열 관리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상에 使用家の 의무조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供給者の 계약불이행에 대한 諸般事項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工事期間內 工事 완료토록 確約한 사항이 있고, 서울시는 에너지管理公團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指導·監督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불공정계약과 관련하여 公團에 是正 指示해서 개선조치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質問이십니다.

열수급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管理公團과 한진 건설이 열수송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열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工事に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工事 관련 認·許可 지연과 일기불순 등으로 工期를 맞추지 못하여 열수급 계약서상의 공급 예정일 '95年 9月 1日보다 6日 지연된 '95年 9月 7日 보조보일러를 설치해서 需用家の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번 열공급 지연은 施工業體에서 보조보일러로써 열을 공급하였지만 이 당해 아파트에서 사용한 1個月分の 연공급 요금을 施工業體에서 부담하였음을 우선 報告드립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지구 내에서 열공급은 열 사용

신청가와 사용내용을 협의 결정한 후에 열수급 契約書에 합의된 內容을 기재하여 상호 날인함으로써 契約이 성립되며, 본 契約書는 '93年 7月 6日 通商産業部의 인가를 득한 집단에너지 열공급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열에너지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서 契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난방 열수급 계약서상에는 使用家の 일방적인 의무사항만 기재되어 있는데 供給者의 계약 불이행시 조치 의무사항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使用家側에서 볼 때는 불평등계약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은 禹委員님의指摘이 옳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 내지 불공정사항은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甲, 乙로 해서 예를 들어서 供給者가 우위에 서서 이런 식의, 한 쪽만 의무사항을 넣어주고, 한 쪽은 전혀 의무사항을 넣어주지 않는, 이것은 앞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推進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집단에너지 熱供給規程이 改正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契約書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조항을 삽입해서 세부규정을 마련토록 通商産業部에다가 건의를 내고, 그렇게 해서 협의 推進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熱供給規程의 어떤 대목 때문에 事業者가 使用者에 대한 의무조항을 안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불공정계약을 고치려면 熱供給規程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熱供給規程 어느 부분에 저축이 되기 때문에 事業者가 使用者에 대한 의무규정을 못 넣느냐 하는 얘기에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어느 조항이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고, 供給規程은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供給規程을 고치려면 通産部에 올려서 供給規程을 바꾸어서.....

○禹元植 委員; 아니, 供給規程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열수급계약서를 바꾸라는 것인데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契約書上에 에너지管理公團의 어떤 의무조항을 넣으려면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供給을 적기에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배상기준을 供給規程에다 넣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契約만 가지고는 어려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상기준을 供給規程에 넣어서 通産部長官의 승인을 받아놓아야만 그 배상기준에 의해서 供給者도 의무 규정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禹元植 委員; 제가 이 질문할 때 좀 잘못 질문했는데, 지역 난방 열사업자가 에너지管理公團이 아니고 서울特別市長이네요. 서울特別市長이 고치면 그냥 되는 것인데.....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서울市長이라 하더라도 供給規程이 바뀌어져야만, 그런데 供給規程이 通産部長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禹元植 委員; 그런데 熟霧給契約書에, 지금 契約이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慣例들이 있잖아요. 契約을 했다가 한 쪽에서 契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무효로 하면서 보상을 한다거나, 契約金を 떼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通例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月 1日로 정한 熱供給 예정일이 안 됐단 말이에요. 11月 11日에 들어갔다니까 두달 십일 정도 안 들어갔

는데, 이동보일러를 설치했다는데 거기가 15톤의 보일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1톤짜리 보일러를 갖다 놔다고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1톤짜리를 더 추가해서 2톤을 갖다 놓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 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에서 오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을 했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피해를 緩和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안한 이유가 그런 義務條項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事例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履行 안 된 사람들에 대한 賠償도 賠償이거니와 그런 문제를 자꾸 야기하는 계약조건의 供給規程問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契約을 하는 契約의 일반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야죠. 不動產契約을 하는데 不動產 계약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不動產契約을 하는데 契約을 어길 경우에 契約金を 댄다 이런 것이 다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그런데 이 케이스 말고 일반적으로 봐서 그것은, 물론 앞으로 그런 問題도 管理契約 범위 내에서는 對等契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나왔던 것을 대개 보면 官公署라든지, 公共機關과 일단 어디에서는 뭐를 인센티브를 넣으면서 저쪽에서는 받는, 어떤 契約에서는 符合契約方式에 의해서 뭐는 어떻게 공급한다, 아마 저쪽에서는 뭐를 받는다 해서 대개 보면 甲, 乙契約으로 해서 甲이 우위에서는, 우위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契約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이 사실입

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民主化됐고, 이제는 진짜 열린사회가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불평등한 契約을 고쳐나가야지 과거의 기존의 慣例에 의해서 이것을 고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契約을 對等契約으로 양쪽다 공평하게 契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규정이 대는 供給規程을 가려야 되는데 供給規程을 가리려면 이것이 通産部長官의 승인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推進하도록 하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면 既已 발생한 피해에 대한 賠償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이 問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契約이고, 甲, 乙이 양쪽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서로간에 다 읽어보고 합의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契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契約이 잘못 됐으니까 손해를 내라 하는 것은 조금 合法的으로 체결된 규정에 의해서는 계약이 잘못 됐으니까 손해를 내라 하는 이런 사항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여러 가지해서 일단 市民이 우선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 그렇다고 해서 甲, 乙로 해서 월등하게 行政官廳이 義務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 쪽에는 義務條項을 잔뜩 넣어놓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是正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懸案問題가 됐기 때문에 通産部와 협의를 해서 義務條項을 이쪽에도 넣어서 일단 供給規程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도시가스 각 회사 社長들께서 기다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하겠지만 각 회사하고 노동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契約이 勞働法에 맞지 않는 不公正契約이 보통 굉장히 많거든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급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맺어지는 契約이 勞働法에 맞지 않으면 다 無效입니다. 이런 일반적 通例에 맞지 않는 契約을 서울시가 맺어놓고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契約上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賠償을 하지 못하겠다, 옳지 않은 태도죠.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합리적으로 해서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答辯事項이 되겠습니다.

蘆原地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하면서 通産部와의 공사계약 승인을 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施行한 사유, 그 다음에 承認時 조치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그리고 用途地域이 자연 녹지지역인 상태에서 用途變更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工事を 先行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것은 지난 번에 잘못됐다고 答辯들었는데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한 答辯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寧剛; 産業經濟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에 앞서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支社長으로부터 現況報告를 들은 다음에 委員님들의 質問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支社長 金錫烈;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支社員 金錫烈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일천만 서울特別 市民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安全管理의 전체적인 책임자로서 서울支社長에 임하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20餘年間 안전관리분야에 종사하고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살려서 올바른 가스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열심히 일하고, 公職者로서 사명감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먼저 저의 會社에 대한 概括說明을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韓國가스安全公社는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28條에 근거해서 1974年度 1月 7日 고압 가스보안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79年 2月 1日 韓國가스安全公社로 개편됐고, 1980年 4月 1日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支部가 신설됐으며, 1986年 6月 1日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支社로 개칭되었습니다. 저희 會社 任務는 法定檢査로서 시설공사, 그리고 냉동기 가스용품 특정설계장 검사, 그리고 안전교육인 정기 및 특별교육과 양성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 활동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公益 및 전문검사기관의 지도 확인과 事業者 자체검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會社 支社의 경우에는 현재 3個 出張所와 그리고 管理課, 教育弘報課, 檢査課, 都市가스課, 點檢課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정원 106名 중에서 94名이 현재 있습니다. 내년 3月이 되면 約 170名 전후해서 저희들이 보충이 되고, 技術資格證은 技術士를 비롯해서 77%가 資格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서울市에는 도시가스 事業場이 5個가 있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이 4,869個, 도시가스 代行業所, 施工業所 이렇게 約 420個 施工業所가 있습니다.

제품업소가 約 24個로 전국에 제조회사가 적기 때문에 約

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도시가스의 FID 누설검지기, 휴대용 기록검지기 8種 99點을 비롯해서 제품검사장비라든지, 시설검사 장비해서 761種 342點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支社에서는 지금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때 가스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안전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환경과 불안정한 시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안전한 환경과 안전한 시설로 바뀌어 주고, 사용하는 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主目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스안전에서 시설에 대한 豫防點檢이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는 이왕에 사고가 난다면 局限的인 豫防對策을 세워서 거기에만 끝내는 방법, 그 다음에 세번째는 教育弘報를 통한 使用者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기 전에 더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출동과 技術指導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支社에서는 5名이 24시간 풀로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5個 도시가스가 있습니다만, 5個 도시가스회사가 바로 핫라인으로 電話가 가설돼 있고, 또 서울警察廳 112번 지령실과도 핫라인으로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消防署 119번과도 핫라인으로 설치돼서 바로 들면 電話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支社 技術職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금 뽀뽀를 차도록 하고, 所長 이상은 휴대폰, 그 다음에 출동반은 3臺의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검사 나가더라도 연락이 되면 그 현장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고, 본부에는 콘트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쪽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月 10日에 부임해 왔고, 제가 현재 저희 韓國가스安全公社 아홉번째 支社長을 하고 있습니다. 本部에도 있었고 여기 아홉번째 支社長으로 各 支社를 돌면서 와서 축적된 경험과 工學碩士로서 또 자신있게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희 책자가 있습니다만, 아마 나누어드렸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全國의 各市·道마다 支社가 있고, 出張所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鐘路, 中區쪽을 포함한 8個 區에 西部出張所, 그 다음에 永登浦區를 비롯한 7個 區에 南部出張所, 그 다음에 蘆原區와 城東區를 비롯한 지역에 東部出張所를 두어서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本社에서는 技術基準으로 해서 각종 제도적인 方案을 연구검토하고, 또 각 지역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問題點에 대한 검사지도를 하고, 또한 각종 플랜트도시가스와 같은 데는 정밀안전진단팀이 운영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고, 교육쪽에서는 교육에 대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弘報에 대한 것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委員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約 1億원의 豫算을 서울支社에서 教育弘報를 하겠노라고 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支社가 대한도시가스협회 옆에 있습니다만, 이것 정말 서로가 각지역마다 支社長들이 노력을 해서 豫算 댔는데, 1億餘원따서 教育弘報를 하겠노라고 豫算을 받았는

데 금년 다 갑니다. 이것 좀 광고판이라도 설치하려고 하니까
3층 건물이라 안 된다,

이것이 商品廣告가 아니라 國家에서 大統領이 임명하는 國家機關에서 가스안전을 위해서 廣告를 하겠다고 支社長이 1
億원 豫算 따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녀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힘도 없고, 지치고 이제
다른 支社로 떠 넘기는 것이 금년말 되면 되지 않겠나 해서
江南區廳에 얘기해 보니까 公益機關 이라서 이해는 갑니다만
3층 이상 건물만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問題는 무슨
商品廣告가 아니라 가스安全의 敎育과 弘報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豫算을 따가지고 하는데 市에서 좀더 이런데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용기를 내서 지금 10月 10日에 赴任한 사람
이 1億원을 따다가 일을 하겠다는데도 일이 안 되는 이런 어
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指導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찍질해 주신다면 지금 大學을 卒業한 지가 30年이
됐습니다만, 자부심을 가지고 高等學校부터 大學院까지 工學
碩士, 機械工業 碩士입니다. 資格證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좀 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質問 받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質問 있
으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委員님들의 質疑에 앞서 전에 産業經濟局長을 하시
던 우리 金東勳 上水道事業本部長이 監査 準備關係로 상당히
바쁜 모양인데 우선 金東勳 上水道事資本部長에 關係되는 質
疑를 먼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質疑가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宗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宗 委員; 閔泳三 委員이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부른 것 같습니다. 行政事務監査에 바쁘신 줄 알면서도 저희 生活環境委員會에 參考人으로 부른 것은 産業經濟局長으로 在職하던 中 몇 가지 궁금한 事項을 알고자 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過去에 産業經濟局에 在職한 經驗을 가르쳐주는 立場에서 簡單明瞭하게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泰宗 委員입니다.

本部長님은 91年 7月 25日부터 92年 10月 9日까지 産業經濟局長으로 在職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鄭泰宗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지난 生活環境委員會의 速記錄을 보면서 약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91年度 12月 5日 行政事務監査에서 정모委員이, 그 한 말은 빼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都市가스會社를 公社化 해 달라는 質問을 했거든요. 이 때 産業經濟局長, 우리 金東勳 本部長님께서서는 都市가스會社를 公社化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市の 財政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그 때는 또 별도로 檢討해 볼 事項인지 모르겠지만 이 事業은 계속 投資만 들어가고 收益은 전혀 생기지 않는 事業입니다. 이 자체가 本委員으로 봐서는 問題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91年度를 보더라도 40億원, '90년에는 81億원, '89年度는 36億원의 當期純利益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一切 收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지금 鄭泰宗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事項에 대해서 제가 記憶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

시 公社化를 常任委員會 때 論議한 記憶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때 公社化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記憶이 납니다만, 都市가스會社가 收益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記憶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한 背景은 이미 지금 現存하는 서울도시가스를, 그 때가 몇 年度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83年度까지 서울도시가스를 서울特別市 都市가스事業所라고 하는 形態로 해서 市가 直營을 했었습니다. 直營 해서 永登浦, 江西, 麻浦, 龍山 이런 地域에 供給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供給하는 過程에서 每年 施設投資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都市가스 需要는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市財政狀態가 어려운 形편에서 市民들의 需要에 만족할 만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問題가 發生해서 이것은 市에서 運營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事業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民營化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事業을 市가 도로 回收해서 이것을 公社化해서 運營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鄭泰宗 委員; 그런데 公社化는 부적절하지만 投資에 전혀 收益이 생기지 않는 事業이란 問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때 本部長님께서서는 投資 本元을 回收하려는 期間을 10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高地帶, 難地帶를 보면 전부 先例를 보더라도 損益分岐點은 15年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을 보면 7年만에 利益을 봤고, 대한은 8年, 극동도 8年, 한진도 8年, 강남은 5年만에 損益分岐點을 넘어서 當期純利益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전혀 收益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本委員이 이 記錄을 봐도 좀 타당치 않다 그런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上水遺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알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런데 그런 問題와 關係해서 都市가스라고 하는 것이 國家로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基盤施設이고, 따라서 이것이 그 동안 많은 事故도 나고 人命被害도 생겼지만 이것이 問題가 됐을 경우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당시 局長으로 在職 하시면서 公社化에 反對한다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데 대해서 根德로 提示했던 部分들이 너무 불투명한, 아니면 정확치 않은 根據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그 당시의 與件은 제가 '91年度 당시에 와 보니까 都市가스 普及率이 한 25%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普及數字는 아마 전체 그 당시 300萬 家口로 따지면 한 70萬 家口 内外라고 생각되는데 所得이 엄청나게 그 때 增大해서 都市가스 需要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의 普及率, 또 그 당시 都市가스가 가지고 있는 配管 總 延長距離가 3,000km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때 이미 水道事業은 99%의 普及率과 1萬 8,000餘 km의 配管網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市가 모조리 떠 안고서, 떠안는 것도 民間業體에 전부 引受資金을 주고 引受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엄청난 것을 市가 서울시 財政을 投入해서 이 事業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해서 公社化를 市에서 檢討를 못했던 것입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禹元植 委員;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都市가스會社들에 대한 그런 態度, 그러니까 불분명한 根據를 가지고 公社化를 하는 것이 좋으나, 안하는 것이 좋으나 이런 問題가 아니고 그 事

業을 推進해 나가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都市가스問題를 접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態度가 무엇으로 結果되어졌느냐 하면 총체적인 都市가스 配管의 엉망으로 結果과 되어졌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監視하고, 이것이 제대로 깔려지는지 안 깔려지는지, 規定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것이 住民들의 安全과 住民들의 財産을 保護 하는데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가 맡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방치하는, 지금 이 速記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주 명확한 根據를 提示 하지 못하면서 그런 指摘들에 대해서 反對하고 있던 말이에요.

지금 地下地圖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工事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安全管理가 미흡하면서 여러 事故가 많이 나고. 이 地下配管 地圖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 地下鐵工事하다가 자꾸 事故가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問題는 局長으로 在職하시면서 그런 問題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都市가스問題에 대해 서 접근해 가는 방식이 정말 신중하지 않았다, 客觀的인 根據를 가지고 정확하게 問題를 보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한 問題提起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上水遺事業本部長 金東勳; 저는 나름대로 말이지요, 客觀的으로 市の 입장을 보고 그것을 公社化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지금도 問題가 많이 露呈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큰 問題들이 있었습니다. 需要가 그때 당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市の 基金이 제가 記憶하기로 都市가스 工事を 추진하기 위한 設置基金, 融資해 주는 서울시 基金이 10億원 정도 策定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記

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政府에서 '87년부터 石油事業基金을, 原油 輸入할 때 거기서 造成하는 基金입니다. 石油事業基金을 政府가 몇백억씩 造成을 하면서 '87년부터는 서울地域 都市가스會社들에게 每年 100億원 이상의 融資金을 支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年度에 들어서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地方쪽으로 融資金을 다 할당해 주고, 서울시쪽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要求를 해도 支援基金이 20億원, 30億원, 40億원 이런 정도로 縮小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때 마침 SO₂, 아황산가스로 인한 大氣汚染問題의 解消, 또 市民들의 폭발적인 需要, 그리고 政府에서 주던 融資基金의 縮小 이런 問題로 해서 서울시가 곤혹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나름대로는 그 事項에 맞도록 저희들이 여러가지 制度도 改善해 가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鄭泰宗 委員; 그런데 한 달 후지요, 91年度12月 23日에 아까 말한 대로 石油事業基金이 남기 때문에 都市가스事業基金 條例設置案을 우리 本部長님께서 提案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鄭泰宗 委員; 그러면 아까 말한 것 같이 都市가스會社에서 이런 利益이 나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나는 것 알았지요.

○鄭泰宗 委員;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92年 2月 27日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있던 일인데 本部長님께서 供給管 埋設 費用이 1km當 1億 3,000萬원 내지 1億 5,000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都市가스會社 社長님도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한 家口當 한 달에 가스使用料에서 會社의 마진이 500원이라고 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그것은 그 당시 記憶은 없습니다

만 평균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습시다.

○鄭泰宗 委員; 그래서 1萬 家口를 잡아도 500萬원뿐이 利益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제가 지금 速記錄을 보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대로겠지요.

○鄭泰宗 委員;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0萬 家口로 보는데 200萬 家口로 잡고 500원씩이면 얼마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글썄요, 계산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鄭泰宗 委員; 10億원 아닙니까?

○委員長 金寧剛; 10億원 맞아요.

○鄭泰宗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95年度로 보면 195億원의 當期純利益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物價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런 계산이 맞게 나오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저는 그 당시의 가스요금 체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鄭泰宗 委員; 가스요금 차액이 아니라, 速記錄에 보면 저희가 객관적 第三者 입장에서 봐서 한 가구당 500원, 그래서 1萬 가구를 봐도 도시가스회사가 500萬원 이익밖에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萬 가구를 잡는다 하더라도 500원씩 잡으면 얼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産業經濟局長으로 계시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난방용 연료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취사용으로 따진 것입니다. 가구당 500원이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

면.

○鄭泰宗 委員; 가스사용료 중에서 도시가스회사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m³당 마진이 있지요. 가정용 한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것이.

○鄭泰宗 委員; 1家口當 500원씩해서 1萬 家口를 잡더라도 500萬원밖에 이익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것을 200萬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500원씩이면 10億밖에 이익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고에서 이것은 投資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월평균 한 가정에서 취사용 사용량으로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記憶이 없습니다만, 한 가정에서 한 달에 10m³를 쓰는 것이 월 평균 사용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m³당 마진은 나와 있습니다, 요금계산서에. 그것을 곱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鄭泰宗 委員; 그때는 불과 1,800km인가, 配管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한 3,000km 됐을 것입니다.

○鄭泰宗 委員; 제가 三者 입장에서 봤을 때 자칫 혼동되기 쉬운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입장에서는 1家口當 도시가스 사용료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한 家口當 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萬 家口를 잡아도 500萬원밖에 안 된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鄭泰宗 委員; 불과 3年 前인데요.

○委員長 金寧剛;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

게 委員님들이.....

○鄭泰宗 委員; 좋습니다. 本部長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速記錄에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부터 가스配管 寄附採納이 일어났거든요.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資料 온 것 보면. 그래서 우리 金東勳 本部長님이 재직 한 후부터 이것이 어떤 問題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그것은 제가 있을 때부터 寄附採納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記憶은 있습니다. 都市가스供給規程이라고 하는 것을 都市가스事業法에 의해서 각 會社들이 만들어서 서울市長의 승인을 받아서 규정을 운영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상에 보면, 가스工事費를 원칙적으로 都市가스會社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需要家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需要家가 부담하는 덕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과 民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改善해야 되겠다 해서 需要家 부담을 시킬 때는 需要家の 同意書를 첨부해서 管轄區廳長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도록 제도 改善한 것은 記憶이 납니다.

그런데 寄附採納 問題는 잘 記憶이 나지 않습니다.

○鄭泰宗 委員; 제가 말하는 것은 資料가 왔기 때문에 92年度부터 寄附採納이 어떤 편법적으로 되어 왔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資料가 없으니까. 그래서 本部員님이 그때 재직 한 이후부터 寄附採納이 됐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그런데 都市가스供給規程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가 있을때.....

○鄭東勳 委員; 그 問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 産業經濟局長님께서 寄附採納 問題는 法的인 근거가 있다 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궁금해서 우리 金東勳 本部長님이 과거에 産業經濟局長으로 재직하면서 速記錄에 나왔던 점이 궁금해서 부른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알겠습니다.

○鄭泰宗 委員; 이상입니다.

○禹元植 委員; 問題는 '92年 行政事務監査때 局長으로 재직하시면서 발언하신 내용을 확실히 알고자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인데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92年, '93年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需要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도시가스 供給規程에 보면 供給管工事を 需用家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問題 제기가 많았지요, 너무 비싸다고? 그리고 실제로 供給管을 도시가스회사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法の 정신이고, 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許可를 내줬고, 대개 許可를 받은 사람들은 주식분포를 보니까 대개 財開들이고, 한진 도시가스는 대한항공에서 하고, 유공 이런 데서 참여해서 財閥會社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財閥會社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供給管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자를 許可를 내 줬는데 이것을 규정으로 해서 需用家한테 부담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이 92, 93年 아닙니까?

○上水道家事業部長 金東勳;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供給規程은.....

○禹元植 委員; 아니, 需要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이미 제가 가 있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禹元植 委員;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불만들이 많이 생겼지요?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局長으로 재직하시던 그 단계였기 때문에 이 市議會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지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供給管 工事を 需用家로 과대하게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한 것, 올바른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가스관을 깎아낸 사람들은 깎아낸 만한 財政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깎았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은 깎 수가 없었지요. 이것을 서울시나 공공기관에서 했으면, 정말 공익기관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不便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면 도시가스관 까는 計劃을 세워서 그 計劃에 맞춰서 자기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깎면 되는데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거기서부터 깎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스관의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地下地圖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어요. 管을 계획대로 쪽 깎아 가면 간단한데 여기 깎다, 저기 깎다 돈 낸 사람 먼저 깎고 하다 보니까 管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고, 管의 管理가 잘 안되고, 왜곡이 온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불만과 여러 가지 소지가 서울시議會에서 논의가 됐고, 그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을 명백지 않은 根據를 제시함으로써 해서 적당하게 넘어갔고, 이렇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速記錄 즉 지금의 도시가스의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地下地圖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地下地圖가 각 도시가스회사에 있기는 하지만 맞지를 않아요. 그것 보고

하다가는 전부 다 사고나게 생겼다고요. 돈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깔기 시작하다 보니까 計劃대로 되지 못하고, 配管 자체에 왜곡이 발생했던 중요한 계기가 93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정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東勳; 제가 그 당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第4代 生活環境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 指摘을 해 주시고, 評價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저로서 판단이 안 섭니다만, 그 당시에 저와 3代 生活環境委員님들과는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配管을 計劃配管을 못했어요.

도시가스회사들이 아마 그 당시 회사별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 1년에 많이 나는 회사가 10億에서 20億원 정도, 또 赤字보는 회사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管을 우선 간선배관을 계획적으로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보고 管을 까는 것을 지시를 했는데 도시가스회사들이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投資費는 1년에 200億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鄭委員님께서 指摘 하신 것처럼 간선배관, 供給管입니다. 供給管의 경우에는 km當 매설비가 1億 3,000萬원 내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3,000km 정도 깔려 있는 管가지고는 여기 저기에서 발생하는 需要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政府에다가 石油事業基金의 서울시 配管액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建議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목살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96년까지 적어도 서울 全 家 口의 70% 이상 普及率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計劃을 하다 보니까 1년에 管을 깔아야 될 거리가 한 1,5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시가스 創業時부터 '91年 당시까지 깔려 있던 것이 3,000km인데 1년에 1,500km내외 정도를 매설해야만 '96년에 70%정도의 普及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1,500km를 깔려면 1,500億원 내지 2,000億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資金을 어떻게 댈 것이냐 해서 그 당시 李海元 市長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무작정 더 투자해서 管을 깔라고 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政府에서 石油事業基金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基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委員님들께서도 서울시 基金을 확보해라, 어떤 委員님은 200億원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市 基金 200億원을 올렸는데 우리 豫算部署에서 100億원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委員님들이 豫算部署에다가 왜 産業經濟局에서 도시가스 설치기금 200億원 市 基金 올린 것을 깎았느냐라고 항의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億원 市 基金 올려놓고 그것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구상한 것이 産業銀行을 좇아갔던 것입니다. 産業銀行에 쫓아가서 産業財政資金을 달라고 그랬더니, 國會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 소진되고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産業銀行 그 당시 총재하고 협의하기를 商業銀行에서 좀 빌려 보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商業銀行과 産業銀行을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産業銀行에서 金利는 약간 비싼 것이지만 400億원 내지 500億원을 조성해 주겠다, 이렇게 해

서 사업을 推進했던 것이 거든요. 그래서 '92年度 당시 1年 동안에 도시가스설치기금 100億원, 그 다음에 産業錄行에서 도시가스회사들이 갖다 쓴 돈이 420億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計劃配管이라는 것은 '92年度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計劃配管할 처지가 못 됐었습니다.

○禹元植 委員; 제가 좀더 質問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供給管을 가스회사에서 까는 것이 法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규정에도 供給管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깎다 이렇게 돼 있고, 단서 조항을 붙여놨죠, 許可條件으로 그렇게 깎 수 있는 능력이 있는 者를 해서 누구를 許可를 내줬냐면 서울도시가스는 대성 그룹에 許可를 내준 것이죠, 대한은 유공에 내준 것이죠, 극동은 프랑스 資本에다 줬죠, 세지 프몽트네해서 40% 持分 가지고 있고, 한진은 조중훈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조중훈씨가 중심으로 22.3% 제일 大株主이고, 강남은 강원산업이 가지고 있고. 이것 도시가스는 基盤施設 을 해 놓으면 管理만 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이것 누가 어떻게 건드릴 것입니까, 그런데 까는데 지금 얘기로는 需要가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도 基金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인데 이렇게 몇 천억원씩 가지고 있는 財閥들, 엄청난 財閥들한테 서울시가 깎아달라고, 깎아달라고 돈 갖다 주고 許可 내 주고, 需用家한테 부담시켜 주는 그런 규정만드는데 동의해 주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신 것.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어느 시점에서 한 政策을 後日の 잣대로 재면 그 政策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

고 정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首都圈 埋立地 같은데 1工區 工事を 엉망으로 했다고 해서 市民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全 國民의 관심거리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당시의 環境概念이 이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다 지금의 잣대로 왜 그 당시 環境基準을 생각하느냐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도시가스회사가 해야 될 義務가 있어요. 法에도 그런 業務가 있는 것이고, 供給管을 깔기로 法에서 기본적인 정신을 그렇게 가지고 法을 制定했음에도 불구하고 需用家들한테 다 부담시키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부터 깔아 주고, 이렇게 잘못된, 완전히 都市의 基盤施設을 그야말로 장사의 논리만 가지고 깔아서, 그것을 서울市에서 許可해 줌으로 해서 지금의 도시가스에 歪曲이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市基金, 또 市가 融資幹旋한 基金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配管計劃을 받아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幹線綱에 깔도록 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지금 工事費의 일부를 需用家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제가 가보니까 그 전에,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都市가스供給規程上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工事費를 需要家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도시가스회사가 자의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推進委員會가 발생해서 거기까지 供給管이 가려면 10km, 15km 더 묻어야만 갈 수 있는데 그 지역의 住民들한테 모집을 해요, 어떤 사람이 推進委員會에서 모집을 해서 工事業者 시켜서 거기다

도시가스 內管工事を 해 버립니다. 해 놓고 集團民願化시켜버려요. 그리고 도시가스회사에다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民願이 되죠. 그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需用家負擔制度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해서 需用家 부담을 시키되 需用家の 동의를 첩부해서 管轄 區廳長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民願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저희들이 基金을 造成해서 도시가스사업을 촉진했던 것은 물론 지금 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은 회사들이니까 自體資金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市가 이런 基金까지 만들어서 支援해 줬느냐, 이 基金은 물론 거저준 것도 아니고 이자 받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투자계획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투자 능력한도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서울市內에 빨리 도시가스망이 확장되기는 어렵겠다 판단 하니까 회사도 회사대로 餘力을 발휘하고, 市는 市대로 支援基金을 만들어서 支援해 주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市가 支援基金 500 億원 만들면 나머지 500 億원 정도는 회사가 투자하도록 이렇게 推進했던 것입니다. 記憶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路線에 예를 들어서 10 億원의 가스工事費가 들어가는데 10 億원 전체를 이 支援基金으로 쓰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돈을 거기에 포함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한 것이지 회사에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寧剛; 田炳萬委員 補充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炳萬 委員;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다시 한번 質問드리겠는데 需要家 원하면 需要家側 근처까지는 도시가스공급회사가

配管을 해 주 있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떠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 갔을 당시에 25% 정도 普及率인데 제가 在職하는 1年 3個月동안에 普及率이 11% 늘어났어요, 配管이 제가 알기로는 1, 2·300 km 더 供給管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원칙적으로 그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市內에 1萬 2,000km 정도의 供給網이 형성되어야만 田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처럼 需要家가 신청하면 바로 이웃 管을 끌어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를 목표로 해서 그것을 '97年度에 가서 그런 정도가 되면 70% 普及率 이 달성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田炳萬 委員; 우리 熱料課長님,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需要家의 집까지 오는 것은 부담을 도시가스회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受用家가 부담해야 옳니까, 全額을?

○禹元植 委員; 그렇지 않잖아요, 引入配管은 需用家 부담이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引入供給管은 需要家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그 때 두 가지 民願이 있었는데 빨리 넣어 달라는 民願이 있었고, 도시가스 引入工事費가 들쭉날쭉하다, 우리가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 하는 民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擔當課長, 係長한테 標準工事費를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로 市中에 가서 파이프값, 또 호수값을 계산해서 25坪짜리를 基準해서 이것을 5m 묻을 때는 얼마다하는 것을 계산해서.....

○田炳萬 委員; 標準工事費 그것이 問題가 아니고, 가장 큰 民願이 개인이 부담하게 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시가스를 供給받으려고 할 적에 미리 투자한 需要家가 허락을 안해 주고 民願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놓는 사람이 또 이중으로 그 멀리 있는 데서 끌어가는 이런 不合理的 점이 있다보니까 계속 가스관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애초에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앞으로 需要까지 예측을 해서 큰 관을 묻어서 供給을 해 줬다면 더 이상 바람직스러울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라도 그런 需要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기존 먼저했던 사람에게, 예를 들어 賠償을 해 주고, 새롭게 큰 관을 묻어서 계속 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도시가스 需要者들 많은 問題點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로를 또 파고, 또 파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큰 問題點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저는 규정을 말씀 드리겠는데, 田委員님이 指摘하신 말씀의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도시가스 供給費를 需要家한테 부담시킨 工事地域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안 쓰고 LPG 쓸 수도 있고, 石油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느 地域을 도시가스 넣었을 때, 제가 근무할 당시에 30%가 신청하고 나머지 70%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가 자기돈 들여서 供給관을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70%가 앞으로 쓴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너희들 돈 내라 이런 問題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制度的인 장치를 했습니다. 요구하지 못하도록 覺書를 쓰도록 그런 것을 해 왔는데 지금 田委員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地域別로 民願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委員長 金寧剛; 田委員님, 됐습니까? 이따가 또 논의하기로 하고, 鄭泰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宗 委員; 마이크가 가까우니까 서울도시가스社長께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鄭委員님, 우선 金東勳 前産業經濟局長 質疑에 대해서 같이 중복되는 質疑 아니죠? 아니면 이따 또 하세요.

우리 金東勳 上水道事業本部長한테 質疑하실 委員 있습니까? 質疑 끝났어요?

○閔泳三 委員; 그 때 당시의 基金 目標金額이나 目標年度, 普及率이 70%면 70%, 80%면 80%까지는 基金을 조성해서 하겠다, 금년만 해도 벌써 借入費가 豫算에서 빠졌거든요. 그런 計劃 없으셨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그것은 없었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런 計劃없이 基金을 어떻게.....

○上水道事資本部長 金東勳; 市議會쪽과 합의를 봐서 200億원을 올렸는데 財政豫算部署에서 100億원으로 削減했거든요. 削減하니까 낭패를 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적어도 500億원 내외는 더 해야만 나머지 500億원 정도를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할 것 아니겠습니까. 500億원 조성하기 위해서 産業銀行과 교섭을 해서 産業銀行의 融資金을 쓰도록 했다 이것 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基金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策定해 놓지 않았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런 기본계획이 있었어야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다만, 저희들은 그 때 '97年度까지 서울시 전 가구의 72% 인지, 75%인지 記憶이 안 나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는 세워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총 配管은 얼마가 들어간다. 72%, 7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이냐면 서울시가 실제

적으로 지형상 들어가지 못할 지역들이 있고, 또 再開發地域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뺀 나머지 區域은 다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閔泳三 委員; 이해가 안 되네, 예를 들어서 基金을 조성해서 融資를 하면 몇 年 据置 몇 年 償還이 됐을 경우에 1차 償還이 끝난 金額은 다시 融資 안한다든지, 또 어느 시점까지는 몇 천억원을 조성해서 어느 회사에 km당 얼마까지 한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처음부터 앞으로 4, 5年 후에 예측 안 되는 것을 구태여 條例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언제까지 이 基金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策定해 놓지 않았습시다.

○閔泳三 委員; 本部長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뒤로 問題點이 뭐냐면, 本部長님 다른 業務 보고계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基金이 '93年度에서 '94年度로 돈이 移越됐어요. 1·20億원이 아니고 61億 7,000萬원 移越됐다니까요. '94年度에서 '95年度로 또 20億원 이상이 移越되고 있어요. 결국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본계획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基金이 남아서 移越된다니까요. 오히려 사업이 더 필요하면 가스회사들한테 더 融資를 해 주든지, 없으면 그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운영상에 亂脈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어 본 것입니다.

○禹元植 委員; 그것을 立案하시고 그러셨던 主務局長으로서 어떤가요, 지금 가스회사들이 다 當期純利益을 많이 올리고 있고 基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會社別로

사정이 전부 다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黒字를 올려서 상당히 탄탄한 기반을 잡고 있던 會社도 있었고, 아주 어려워져 赤字를 보고 있던 會社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會社別 資金動員能力을 한번 檢討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計劃配管을 해 주어야 될 그런 部分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아주 들어가지 못할 地域들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저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市가 財政적으로 여유만 좀 있다면 市 돈을 쓰지 않고, 그 당시 저는 100億원만 市 돈을 쓰고 나머지는 銀行 돈을 썼습니다만, 銀行의 融資幹旋을 통해서 그런 地域은 市가 50% 부담하고 당신들이 50% 또 부담해서 이런 配管을 해라 이런 식으로 運營하는 것은 앞으로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런데 그 때 당시에, 本部長님이 지금 答辯하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資料하고 다른 것이 利益 發生 年度가 '92年度에 처음 基金이 造成됐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閔泳三 委員; 그럼 그 때 당시에 이미 대한 도시가스는 '86年度, 극동도시가스는 '88年度, 그리고 강남도시가스는 '89年度, 한진은 '92年, 서울도시가스는 언제부터 當期純利益이 난 年度입니까, 서울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89年度 로 記憶합니다.

○閔泳三 委員; 5個 會社가 '92年度에 이미 다, 물론 本部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事業上企業資金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客觀적인 資料는 그 때 이미 當期純利益이 난 시점이었다구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름대로 利益이 난 會社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會

社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資料하고 또 다르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그 당시에 제 記憶하기로 극동도시가스가 그 때 利益이 안 났을텐데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제가 그 部分에 대해서 答辯해 드릴까요?

○閔永三 委員;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金寧剛; 마이크를 좀 대시고 하세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극동도시가스의 李武龍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앉아서 하세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지금 말씀하신 部分하고 좀 연결해서 약간 委員 여러분들께 오해가 있지 않을까, 또는 숫자상의 어떤 概念하고, 실지상의 概念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解明하고자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地域的으로 어려운 그런 與件下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도시가스라든가, 또 다른 몇 군데 都市가스들은 集團住宅이 集中되어 있는 그런 地域에 가스를 供給하게 됨에 따라서 利益이 좀 일부 일찍 발생한 그런 部分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제일 어려운 中央의 乙支路線이라든가, 鍾路線 이런 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면 밤에만 工事を 해야 되는, 交通量이 하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만 工事を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밤에만 工事を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工費가 이중, 삼중으로 2배, 3배가 들어야 되는 그런 問題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번 해 놓으면 아마 10年 내지 15年 이내에는 다시 그것을 改備한다든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그 때 필요로 하지 않은 그러한 크기의 施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問題가 있었고, 또 地域的으로 보아서 저희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그런 地域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單獨住宅을 중심으로 해서 開發이 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면 自動的으로 投資費가 다른데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問題가 있었고, 그 다음에 資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環境問題로 해서 아황산 우심지역, 또 單獨住宅地域, 또는 여러 가지 地域的인 與件이 어려운 그런 地域에 우선적으로 資金을 投入해서 普及率을 좀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울市の 方針이었고, 또 저희도 利益이 나지 않더라도 可能하면 住民들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해서 可能하면 많은 施設을 좀 해서 市民들한테 좀 供給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다 또니까 市基金을 좀 많이 쓴 그런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基金을 쓸 당시에 市基金 자체가 다른 金利보다 특별히 더 유리한 것도 아니었었고 10%, 12% 정도의 基金을 썼는데 나중에 그것을 조금 내려서 8% 정도에 해 주곤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赤字에 허덕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赤字가 나면 여러 가지 金融調達이라든가 이런 問題에 애로가 느껴져서 결국은 會計上의 分類를 예를 들면 減價償却 年限을 11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늦추어서 한 30年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會計上에는 黑字를 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赤字가 되어 있는 그런 事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상에

는 저희가 黒字가 좀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赤字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도 저희 地域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直接供給費用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한 55원, 60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75원, 80원까지 이르는 그런 問題가 평균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都市가스社 中에서 저희하고 한진이 아마 그런 경우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狀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상에 나타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一部 資金調達問題라든가, 또는 對銀行關係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되어 있는 그런 숫자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閔泳三 委員;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데.....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몇 십억 赤字가 났었지요.

○禹元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供給管 工事を 需用家한테 부담시키는 問題가 金東勳 本部長님이 局長으로 在職하시기 전에는 그냥 막 需用家한테 부담을 시키다가 그 다음에는 本人 同意와 區廳長의 承認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規制가 強化되어서 引入配管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거리도 좀 制限하는 이런 部分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認識 中에 基金問題도 마찬가지로 이런 需用家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會社가 부담해야 될 것들을 지나치게 다른 데에 너무 기대고 있다, 다른 데서 너무 많이 가져오고 需用家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고 있다는 認識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앞에 問題는 또 그것대로 내버려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赤字

상태를 다 면에서 當期純利益을 충분히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금과 같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시에 그 業務를 主管했던 입장에서 좋을지, 아니면 이제는 없애고 法精神대로 引人管은 다 會社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한번 意見을 묻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제가 지금 현재 普及率이 몇 %인지 그것을 몰라서 판단하기가 곤란한 問題인데.....

○李成浩 委員; 65.8%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原則적으로 需用家 負擔制度는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市民들의 都市가스 使用申請은 많이 쇄도해 들어오고, 供給配管은 서울시 全域을 커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優先順位로 보아서 상당히 供給해 줄 수 없는 地域에서 集團民願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이미 다 施設해 놓고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區議員, 또 우리 市議會 議員님들이 그런 民願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세요. 자기 地域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거기를 넣어달라, 그러면 都市가스會社에 그것 넣는 것을 檢討해 보아라 하면 거기는 현재 管이 가 있는 곳부터 한 15km 떨어진 地域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投資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需要를 開發할 수 없는 地域이다 이것이지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봐서 그러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需要家 負擔을 일체 안 시키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해 놓되, 해 놓은 의미면서 制度는 그냥 維持하되 더 엄격하게 制限을 가해서 需要家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이런

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어떻게 客觀적으로 봐서 여기는 부담을 시키지 않을 地域, 여기는 부담시켜야 될 地域 이렇게 명백하게 선을 긋는 方法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만.....

○委員長 金寧剛; 長時間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지요?

(“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지금이 5時 12分, 5時 30分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12分 監查中止)

(17時 30分 監查繼續)

○委員長 金寧剛; 자리를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産業經濟局長과 參考人께 質疑를 하실 委員은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宗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宗 委員; 鄭泰宗 委員입니다.

韓國가스安全公社의 서울支社長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사장비가 76個입니까? 342點이 있다고 하는데.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검사장비는 현재 韓國가스安全公社에는 도시가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제품, 시설, 도시가스, 비파괴, 비상출동장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가스 시설장비가 8種 99點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支社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체 76種 342點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鄭泰宗 委員; 그 가운데 掘鑿 깊이를 알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掘鑿 깊이를 알 수 있는 장비는..... 누설검지 장비는 있습니다.

○鄭泰宗 委員; 누설은 있는지 아는데, 그 외에 掘鑿을 해서 30m, 50m, 1m를 할 수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그런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鄭泰宗 委員; 지금 日本에서 개발된 상품이 X-레이 투시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구입할 의사는 있습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저희쪽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기본을 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가장 불안정한 조건과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檢査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면, 제일 먼저 누설관계라든가, 불량제품에 대한 問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1단계로 저희들이 누설에 대한 問題가 관계되기 때문에 누설에 관련되는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심도라든가 이런 問題는 저희들이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施工段階에 저희들이 하는 檢査가 있기 때문에 그 檢査에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시가스 내에서 現 法에 의하면 供給管의 경우, 300m의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자체 검사를 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檢査하는 것은 입회를 해서 檢査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현재 優先順位로 봐서는 장비를 사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구입을 못하겠고, 심도 깊이에 대한 問題는 個人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쪽으로 권장을 하고,

國家豫算으로 必要하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鄭泰宗 委員;지금 가장 民願이 많이 발생한 問題가 掘鑿의 깊이거든요. 지금 현재 8m 이상의 도로는 1.2m, 8m 미만 도로는 1.1m 團地內에서 配管은 60cm, 그리고 암벽이 있거나 지장물이 있을 때는 30cm로 하되 보호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정규적으로 지켜서 配管工事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누설 뿐만 아니라 掘鑿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施工會社든지 쉽게 얘기해서 不實工事を 못 할 것이 아니냐.....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제가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서 韓國가스安全公社 支社長으로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質問으로 알고 통합적으로 해서 答辯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鄭泰宗 委員; 우리 支社長님, 지금 저번에 冠岳區, 楊坪洞, 작년엔 長安洞, 가스누설 사고가 얼마나 빈번히 많았습니까? 서울에 지금 현재 가스安全公社 잘했다고 보십니까?

며칠 전에도 가스가 터져 가지고 피해난 곳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스問題가 配管 깊이와 갈수록 비례해서 事故가 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配管이 나간다면 더 事故는 비례할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를 보세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청정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安全管理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 보자고 해서 X-레이 투시기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가스安全公社에서 해서 事故의 위험도, 가스의 누설 뿐만 아니라 掘鑿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原因도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알게 물어 가지고 큰 덤프가 갈 때 터지면 누가 막습니까? 이것도 과거에,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 도시가스회사에서 地域管理所 및 도시가스 시설업체들이 그런 寄附採納, 돈을 안 줘 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가스회사들이, 돈이 없어서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工事は 해야 되기 때문에 不實施工을 하고 알게 묻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掘鑿 투기를 가스安全公社에서 購入해서 사전에 막아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를 購入하는 問題는 좀더 심도 있게 저희 本社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購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鄭委員께서 老婆心에서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 他 工事라든가 여러가지 問題, 그 다음에 配管의 노후화, 종전에 있었던 配管의 심도가 얇기 때문에 他工事로 인해서 일어났던 事故, 심도의 問題를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그 問題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會社에서도 고심을 하고요. 저도 그 問題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그 問題에 대해서 法이 이번에 11月 30日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는 施工監理制度가 생깁니다. 즉, 가스 시설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工事 초기부터 우리 公社 職員이 처음부터 끝까지 施工監理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는 100%이 사항은 施工監理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

○閔永三 委員; 支社長님, 答辯 중에 우리 同僚 鄭泰宗委員님이 질의하신 본질을 자꾸 피해 가시는데, 우리 委員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指摘하신 대로 法이 바뀌어서 施工監理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요청한 資料 중에서 이런 資料가 있어요. 5個 도시가스회사 불량 시공 指稿事例 및 民願現況을 요구한 資料 중에서 '95年度에 5個 會社 13件이 지금 적발됐거든요. 이 13件이 전부 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심도미달 및 성토 부적합이에요.

施工을 앞으로 監理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이 심도측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同僚委員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스밸브 연결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물론 안전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심도가 여태까지도 안됐지만, 앞으로 監理하는 過程中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낼 수 있는 科學的 機械가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機械를 가지고가도, 물론 가서 그것을 측정하는 사람이 그냥 어영부영 농땡이를 피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철저히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선 기구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심도측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趣旨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答辯만 간략하게 하시면 돼요.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지금 아예 처음 팔 때부터 檢査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鄭泰宗 委員; 支社長은, 簡單明瞭하게 하세요. 지금 현재의 問題가 아니라 과거의 그런 老朽管, 심도가 얇게 묻은 管이 있기 때문에 事故의 유형이 연도별로 정비레하고 있어요. 줄

어든 것이 없습니다. 단지 配管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事故가 비례하는 것은 인정이 갈 수있지만, 현재는 잘 하고 있다고 보지요. 과거에 그런 不實施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檢査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 해 주십사, 이 建議事項을 할 때 支社長께서는 좋다, 알아 봐서 구입하겠다, 또 돈이 없으면 國家 돈으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報告하실 때, 지금 가스安全公社 서울支社長이 이 자리에서 몇몇이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가스가 새 가지고 事故가 났을 때는, 현재 댄 財閥이 있습니까?

이 住民들이 밤중에 몇 천명 몇 백명이 피할 때 늘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많습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뻘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支社長께서 무슨 安全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答辯 태도예요, 그것이?

○李成浩 委員; 앞으로도 委員이 質問하시면 질문의 핵심과 요지만 答辯하시고요.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못 把握되는 것도 있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施策 弘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핵심만 정확히 答辯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그 問題에 대해서는 本社와 협의를 해서 豫算令達을 받아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鄭泰宗 委員, 質疑에 答辯 됐습니까?

○鄭泰宗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鄭泰宗 委員; 소리가 높아서 미안합니다. 양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도시가스 社長께 묻겠습니다. 앞서 答辯하시지요. 가스요금을 徵收해서 都賣業인 한국가스공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그렇습니다.

○鄭泰宗 委員; 그런데 용도별로 支給합니까?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그렇습니다.

○鄭泰宗 委員;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가스가 용도별로 나오니까?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현재의 料金體系는 委員님들아시다시피 가정용, 가정용도 취사용이 있고, 난방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산업용, 냉방용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현재 요금기조로 보서는 5가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회사들이 告知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청산을 해서 納付를 하는 그런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가스회사들이 그 항목별로 告知한 근거를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實査를 해서 實査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納付되는, 이와 같은 실태에 있습니다.

○鄭泰宗 委員; 本委員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가스회사는 需要者들의 편의를 위해서 6가지 내외의 용도별로 받을 수는 있다, 通産部 승인 아래, 서울시 승인 아래 받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단지, 問題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동일한 配管에 整壓機까지 오지요? 동일한 가스입니다. 1m²당 얼마를 딱 받으면 좋거든요. 그것을 용도별로 해서 도시가스 회사에 준다, 그것을 한국가스공사에서 徵收를 할 때, 한 달 지나면 저번달의 料金を 정산을 해서 請求를 하거든요. 그렇

지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네.

○鄭泰宗 委員; 그런데 그것이 좀 저는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配管에 동일한 가스는 도시가스회사한테 1m²당 얼마 딱 받아버리면 그 받은 가격을 가지고 도시가스회사는 用途別로 6個든지 需要者 便宜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用途別로 받아서 韓國가스公社한테 用途別로 준다, 또 假精算해서 韓國가스公社에서는 全國에 있는 도시가스회사한테 전부 어떤 實査를 해서, 인력낭비가 되거든요. 가장 간단한 問題인데 1m²당 얼마, 이것을 받은 金額을 가지고 도시가스회사들은 需要者한테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産業用은 싸게, 冷房用은 싸게, 住宅 炊事用은 좀 비싸고, 料金制度가 不合理的하지 않느냐.

그래서 '92年度부터 用途別로 됐죠, 도매가스 都賣別로. 이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그 問題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현재 가스料금이 다섯가지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 중요한 사항은 政策的인 배려도 그 안에는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조금 비약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가스를 쓰고 있는, 다시 말해서 가스 消費하고 있는 消費分布를 보게 되면 한 겨울철에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올라갑니다. 여름철에는 消費量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煖房用이 그 만큼 많이 普及이 확대돼 나가고, 여름철에는 별로 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축소가 됩니다. 이래서 政府는 어떤 方案을 講究하느냐, 가능하다 면 겨울과 여름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좁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冷房用이라든지,

産業體의 産業用의 消費를 장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사이가격을 한 단일가격으로해서 끝까지 오면 계산하기 저희도 좋고 다 좋은데 판매하는 가격이 나름대로 層下가 있습니다. 層下를 그 비율에 의해서 徵收를 해서 韓國가스公社의 입장에서는 年間 나가는 전체의 總量은 대충 이와 같은 비율에 의해서 나갈 것이다 하는 큰 테두리 안에는 평균치의 수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과 實績은 各 會社別로 실제로 나간 것을 취합해서 나중에 통계를 잡아야만이 그대로 맞아나간다는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鄭泰宗 委員;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92年 전까지는 都賣는 단일가격으로 받았거든요, '92年度부터 用途로 받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事後 實查를 나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봐서는. 수많은 도시가스인데 믿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믿죠. 그러나 도매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주고, 가스회사들이 用途別로는 할 수가 있어야 가스料金體制 合理化가 되거든요.

또 어떤 料金 簡單明瞭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 가스料金體制에 韓國가스公社職員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적게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配管에 똑같은 도매가스가 들어오는데 이 도시가스 각 회사들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팔겠다는 것은 해 줄 수가 있겠죠. 또 春夏期가 다르다면 겨울과 여름이 다르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建議事項입니다.

우리 産業經濟局長님께서서는 이런 料金體制를 通産部에 建議를 해 달라, 아시겠습니까? 서울 뿐만 아니라 全國에 있는 小

賣業을 하는 도시가스회사는 用途別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韓國가스公社에서 동일한 配管에 동일한 가스가 整壓機까지 오는 것은 1m²당 얼마씩, 여름에는 싸면 적게 받을 수 있고, 겨울에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料金體制가 合當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建議案입니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鄭委員님 말씀하신 것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公社는 公共機關으로서의 公益性이 있는 機關입니다. 물론 도시가스회사는 또 市民들한테 淸정연료를 供給하는 公共性이 있지만 도시가스회사보다는 政府機關이 公益性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으로, 예를 들어 淸급을 하고, 도시가스회사에는 收益性을 생각해서 여름에는 싸고, 겨울에는 비싸게 해서 전체적인 收益를 따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協의를 해보겠습니다.

○鄭泰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田炳萬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炳萬 委員; 먼저 質問드리기 전에 우리 支社長님 원래 성격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行政事務監査 機關에 參考人으로 나오셔서 우리 委員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이 本意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점잖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가 매우 중요한 基幹産業이다, 또 公益産業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틀린 말 아닙니다.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고, 우리 市民의 입장에서는 편리

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市民의 입장에서 되면 아주 不便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 問題點을 申告하거나 改善을 요구하더라도 이것이 民間企業이기 때문에 우리 市民이 바라는 대로 措置가 제각 제각되지 않는다, 또 어떤 때는 治外法權的인 느낌도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民間企業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익이 부합되지 않으면 是正이 안된다고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解決策으로써 우리서울市 5個 가스公社가 같이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各 區廳에 施工에서부터 供給까지 市民에 대한 不便事項을 접수해서 解決할 수 있는그런 窓口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用意는 없는가 제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個 供給會社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분이나 答辯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 가스供給管의 設備工事が 供給會社에서 設備, 施工하는 下請業者를 연간계약을 하든지 연초에 어떤 業者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社長님들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不正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職員들 간에 下請을 하는 過程에서. 이런 不正이 제가 특별한 事例를 발취해 달라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가 완벽한 施工으로부터 멀어진 다 이 말입니다.

결국 監督에 問題가 있고, 완벽한 施工을 하는데 많은 問題가 있다, 우리 5個 가스會社 社長님의 입장에서 솔직한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事例에 대해서. 앞으로 根絶策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 우리 市民의 입장에서보면 가스라는 것이 아주 핵폭탄과 같은 그런 위험한 問題點을 안고있는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앞으로 施工하고 管理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會社職員이 됐든, 누가 됐든 不正한 事例가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根絶策이 앞으로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제가 마이크 앞에 바로 앉아있기 때문에 제 意見을 주로 하는 가운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田委員님이 먼저 質問하신 市民의 不便事項에 대한 하나의 民願窓口라는 問題인데 이 問題는 현재 서울市內에 있는 5個 도시가스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民願室을 설치해서 즉각 즉각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田炳萬 委員; 民願室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각 회사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田炳萬 委員; 우리 市民이 회사에 電話를 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問題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저도 아직까지 회사에 그런 民願窓口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區廳이나 또 아니면 가스를 공급할 적에 스티커를 통해서 不便事項에 대한 民願案内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우선 窓口問題는 우리 도시가스협회는 협회에 窓口를두고 있고, 각 도시가스회사들은 자기네들이 공급하는 區域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區域에 해당되는 需用家들은 전부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언제나 연락이 되고, 이미 이 制度는 市産業局 자체에서도 部署方針을 오래 전부터 示達 되어서 施行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들려봐 주십시오.

○田炳萬 委員;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겪은 實例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舊正에 제사를 모시려고 하는데 가스가 없어서 가스가 안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舊正에는 다 시골 가 버리고 가스지역에 電話를 해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不可能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一般人이 가스관을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도 못 때고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 뿐만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 부분에 물론 社長님께서서는 하신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낀 事例가 있기 때문에 우리 市民이 어디다 연락을 하고 어떻게 措置를 받아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弘報가 잘 되지 않은 證據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會社別로 해서 나름대로 民願室의 窓口 電話番號라든지, 또 會社에다 바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電話營號는 전부 스티커를 만들어서 안전 점검할 때 첨부를 시켜서 긴밀하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不備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참고로 해서 是正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工事を 하면서 工事하는 者들과 도시가스 職員들과 不正關係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이미 옛날얘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 이유는 최근에 와서 工事의 규모라든지, 工事의 형태, 또 각 도시가스회사 内部에서 工事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制度의 운영체제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容納될 수 없는 體系가 돼 있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어떠한 현실로 나타나서 분명한 證據가 포착되고, 사실이라면 그것은 엄중한 社規에 의해서 處罰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答辯됐는지 모르겠습니다.

○田炳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永運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永運 委員; 밤 늦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崔永運 委員입니다. 오늘 行政事務監査가 사실은 도시 가스 社長님들을 모시고 여러가지 견해를 묻고, 저희의 궁금한 점을 質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되는 行政事務監査 日程으로 인해서 오늘 産業經濟局의 局長님께서 너무나 많은 상세한 答辯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市民의 代議機構인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오늘 가스問題 여러 가지를 市 公務員이 아닌 一線의 가스회사 社長님들의 見解를 묻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市民들의 관심사요, 委員들의 깊은 관심사를 오늘 局長님께서 너무나 세세하게 전부 答辯을 해 주시고, 또 見解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社長님들이 答辯하실 사항을 局長님이 많이 오늘 설명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문할 내용도 이미 벌써 局長님께서 答辯하신 내용에 많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의 趣旨대로, 또 市 執行部 公務員들의 생각과 의지, 또한 一線에서 직접 管掌을 하시는 社長님들의 見解, 이것을 저희가 묻기 위해서 시간을 割愛한 것인 만큼 저의 준비된 내용을 質疑를 드리고, 또한 정리하는 측면으로 다소 중복이 있더라도 答辯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國가스安全公社의 支社員님 나오셨지요?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네.

○崔永運 委員; 그런데 安全이라는 글자를 봐도 상당히 편안

하고 온전한 상태로 큰 大型事故를 豫防하는 것이 근본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상당히,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指摘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자리에 오시면 처음에 오셔서 인사말씀이 계실 때 教育弘報를 아주 역설하셨습니다. 教育弘報를 하는 方法도 여기 委員들이 있는 자리에 최소한도 主要業務 推進現況이라든지 이러한 資料를 좀 갖다 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教育弘報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환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이 되는데 韓國가스安全公社 支社長님뿐만 아니라 5個 都市가스會社 社長님들도 委員들 앞에 지금 資料 하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 冊子 하나는 받았습시다. 전에도 이렇게 慣例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미처 準備를 못하고 나오셨는지 本委員은 상당히 指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 오셔서 진지하게 발전지향적인 問題를 討議할 때는 會社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事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主要業務 推進事項 같은 資料를 사전에 準備하고 나오셔서 진지하게 서로 論議할 수 있는 그러한 光장이 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제가 質疑드릴 內容에 대해서는 모두가 총체적으로 答辯하실 事項이지만 便宜上 우리 극동의 李武龍 社長님이 代表로 答辯을 해 주시고, 便宜上 제가 質問을 다 드린 다음에 일괄적으로 答辯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準備된 內容을 간단하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千百萬 서울市民의 최대 관심사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해 가는 都市가스 供給을 직접 一線에서 管理하는 서울·대한·극동·한진·강남도시가스회사의 代表와 同席하여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淸淨燃料供給을 위해 問

題點을 풀어놓고 改善策을 請究하며, 궁금한 점을 質疑하는
기탄 없는 자리가 되고, 향후 발전지향적인 자리로 승화되길
희망합니다.

그 동안 第4代 서울市議會 開院 이후 우리 生活環境委員會
에서는 都市가스問題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理由는 不問可知的 麻浦 가스폭발사건, 大邱 가스폭발참사
등 크고 작은 가스폭발사건이 발생하여 市民은 공포의 위험
물질로 不可近 不可遠狀態에 머물러 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本管, 整壓場, 供給管, 內管設
置까지 안전하게 工事を 施工하여 千百萬 서울市民뿐만 아니
라 온 國民이 안심하고 都市가스 供給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일념으로 市 産業經濟局 關係者를 통해 質疑하고, 建議하고,
督勵하고, 監視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는 바 이제 行政指
導만이 能事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제 一線에서
施工業體를 선발하여 監視監督하고 가스를 供給하는 會社가
主體가 되어 투철한 國家觀과 使命感, 奉仕精神을 크게 가지
고 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本委員은 판단되어 거론과 동시
에 몇 가지 指摘을 드리면서 答辯을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5個 都市가스會社는 淸淨燃料 供給과 環境汚染 防止
라는 市の 勸獎事業으로 출발하여 普及率을 擴大하면서 안전
하게 會社도 성장해 왔습니다. '95年 11月 11日 현재 會社別
融資額을 보면 서울도시가스가 167億 7,500萬원, 대한이 74
億 8,300萬원, 극동이 220億 700萬원, 한진이 56億 3,700萬
원, 강남이 20億 100萬원 해서 모두 合計額이 539億 300萬
원의 基金을 融資받았습니다. 또 當期純利益으로, 누차 아까
答辯이 계셨고 說明하신 內容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

합니다. 當期純利益만도 '93年度 5個社가 합해서 139億 500萬원이고, '94年度에는 190億 8,100萬원입니다. 或者는 땅 짚고 헤엄치는 事業이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1個 都市가스會社가 평균적으로 39億원의 黑字를 냈다는 그러한 數値로 都市가스事業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都市가스會社는 市民을 위해서 福祉次元으로 그늘진 곳에 投資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本委員은 생각이 되고, 또 本委員이 일관되게 그동안에 주장해 온 內容입니다. 市民의 税金으로 市基金의 融資와 巨額의 當期純利益을 내면서 工事が 容易하여 利益이 發生하는 地域은 普及이 신속히 推進되고 가장 손길이 먼저 가야 할 零細庶民이 集團 居住하는 地域, 高地帶, 工事が 어려워 工事費가 過大支出되고 收支가 맞지 않는다는 理由로 放置한다면 서울市の 都心 均衡發展의 基本原則에 違背되며, 앞으로 都市가스供給規程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社長께서는 都市가스供給規程에 工事 容易地域과 難工地域을 비례하여 施工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보급의무규정이 있는지 有無를 밝혀 주시고, 만약 없다면 社會福祉次元에서 利益發生이 없는 高地帶에 投資하여 서울市の 均衡普及促進을 推進할 計劃이 있는지 見解를 묻습니다. 그리고 參考로 鍾路, 中區, 城北이 방금 전에 局長님 報告대로 지금 현재 29.9%로 가장 저조하다는 것을 附言해서 말씀드립니다. 둘째, 配管工事に 있어 不實工事 防止策으로 工事實名制 導入, 地域住民中에서 위촉된 名譽監督要員으로 하여금 施工現場 確認을 받도록 이렇게 供給規程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의 생각으로서는 專門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住民으로 名譽監督要

員을 정해서 그 名譽監督要員으로부터 施工確認制를 實施해서 무슨 成果를 거두었는지 묻고 싶고, 또 向後 不實施工의 근본적인 뚜렷한 防止策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都市가스會社는 수시 自體調査를 통해 不實施工 業體를 摘發時 즉시 刑事告發 및 會社 內規에 의한 制裁措置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年度 현재까지 不實施工 業體를 발견해서 刑事告發한 件數와 그 刑事告發한 內容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需要家は 都市가스 供給契約時契約金を 마련하기 위해서 참으로 區廳이나 새마을금고에서 勸獎事業으로 작은 돈으로 50萬원에서 100萬원 미만으로 이렇게 融資를 받습니다. 融資를 받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黑字로 전환된 都市가스會社에서 특별히 經營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道路에 供給管을 埋設하기 얼마 전에 需要家에 아주 가혹하리만큼 독촉을 해서 契約金の 한 70% 정도의 金額을 미리 거둡니다. 그래서 住民들은 갑자기 都市가스를 供給해 준다니까 좋기도 하고, 또 이렇게 契約을 해 놓고 갑자기 독촉이 심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마련하는데 아주 많은 애로가 있고, 또 住民의 怨聲도 아주 대단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急錢을 구하려고 어려움을 겪는 市民들의 고통을 진실로 우리 會社 社長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 차제에 묻고 싶고, 또한 그렇게 독촉해서 庶民들에게 돈을 工事 이전에 걸어야 하는 理由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內容은 同僚委員들의 質疑準備가 모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質疑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答辯이 되시겠지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극동도시가스 社長 李武龍입니다. 우선 崔委員님께서 質問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答辯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첫째 들어서 충분하지 못한 答辯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다른 質問을 하시는 동안에 準備하시면 조금 더 충분한 答辯이 될 수 있을까요, 卽答을 안하셔도.

○委員長 金寧剛; 日常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答辯하시지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우선 좀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첫째,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支援해 주신 都市가스事業基金이 전체 539億원인데 그 중에서 220億원을 극동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시다만 地域적인 特性和 여러 가지 交通問題라든가, 또는 住居環境이라든가, 區廳이 저희가 9個나 됩니다, 그 조그만 地域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工事が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普及이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事項이 發生을 해서 다른 會社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普及率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公共性을 確保해야 되는 이 都市가스事業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어려움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都市가스事業基金을 마련해서 우선 單獨住宅地域, 또 아황산 우심지역, 또 其他 供給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운 소외된 地域 이런 곳에 投資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 地域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鍾路나 中區나 城北, 城北은 一部分이 저희 地域입니다만, 그런 데의 普及擴大를 위해

서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普及擴大基金을 좀 支援을 해 주시면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그늘진 곳, 또 어려운 곳, 또 高地帶 이런 데에 균형적으로 普及擴大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委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支援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 鄭泰宗 委員께서 質疑하신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 價格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用途別로 價格을 정한 原因 中에 季節別 問題라든가, 地域別 差等問題라든가 여러 가지가 함께 政策的으로 고려된 事項이기 때문에 앞으로 冷房用, 저희 地域은 業務用이 많은 地域입니다만 冷房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가능한 대로 普及을 더 많이 擴大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工事實名制나 名譽監督에 대해서 質問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施工業者들의 工事하는 형태와 또 우리 自體에서 監督하는 이런 사항만 가지고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없겠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工事を 해서 市民 여러분들의 우려를 덜 것인가 이런 것을 勞心焦思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講究하다가, 저희는 사실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면 住民들하고 함께 監視하는 이런 體制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建議도 드리고, 區나 市에서도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서 名譽監督制, 또 工事實名制를 推進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專門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

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可視的으로 施工業者들이 施工하는데 따라서 몇 가지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도를 명확히 지켜야 된다는지, 또는 용접 같은 것을 適期에 제때에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대로 되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심도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심도문제 하나만 제대로 체크가 될 수 있어도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事前에 저희가 이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監督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教育 아닌 教育을 저희가 시켜서 委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不實施工 防止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工事實名制, 또 名譽監督制, 저희 監督의 강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施工하는 분들이 不實施工 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필요한 裝備들을 구입하고 확보해서 不實施工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不實施工 業體가 적발이 됐을 때 告發 등을 하는 그런 問題는 현재 저희 회사로서는 刑事告發한 내용이 없어서 報告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不實施工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摘發 됐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制裁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 再施工을 하도록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點數制를 하고 있습니다. 施工業體에 대해서 點數制 도입을 해서 點數를 주어서 다음 回期에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入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除去한다든지, 또 그 다음 해에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制裁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그것은 各 區廳이나 關係部署에서 告發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자전환이 되어서 經營이 많이 편해졌는데 供給管 埋設을 하기 전에, 이것은 施設費 애기시군요.

첫째로 양해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시가스회사가 흑자전환이 되어서 經營이 편하게 돼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80年度, '83年度부터 즉 投資를 해 오면서 7, 8年동안 순 적자를 보아오고 심지어는 백몇십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해 왔습니다. 아까 指摘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90年度인가 그 때부터 도시가스업계로서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사항에서는 사실 아직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投資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6,000億원 정도 投資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石油事業基金이라든지, 서울시基金 이런 것 支援해 주신 것을 빼고나면 約 4,000億원 정도가 우리 자체 내에서 調達을 해서 供給을 하고 있는 그런 供給管을 埋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90億원, 130億원, 200億원 이런 부분이 이익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엄청난 많은 이익이 나는 것인가, 또 이것을 전부 우리는 政府의 제약에 의해서 資本額數에 대해서 10%가 아니라 拂入資本金의 10%밖에는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再投資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普及擴大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다, 생으로 株主들이 먹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委員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적자보던 것들에 대한 補填問題 아직도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住民들의 普及擴大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地域에 따라서는 70%, 80% 아마 지금 더 이상 支援 안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地域들도 있고, 아직도 대폭적인 支援을 해 주셔야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資金과 그 돈과 연계해서 投資를 擴大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委員님들께서 地域的인 특성에 맞춰서 이것을 살펴주시면, 일괄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느냐, 또는 현재 普及率이 육십몇 %, 70%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른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衡平이 맞지않는, 不利益을 받는 이런 問題가 있기 때문에 여러 委員님들이 면밀하게 地域的 특성을 살펴서 支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는 가능한대로 住民들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 돈을 미리 많이 집어넣고, 또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區基金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區에서 자기들이 基金을 活用해서 돈이 없는 需用家들을 위해서 자기들 基金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管理해서 施設資料에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費用이 더 많이 區에서 나올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서 힘을 밀어주시면 고마운 말씀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자료는 제가 記憶이 나지 않아서 자세

한 報告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委員님들의 普及擴大, 어려운 곳을 굶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그쪽 부분에 普及을 擴大하는 政策을 계속 推進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答辯됐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答辯 되셨죠?

○崔永運 委員; 열심히 答辯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質疑事項은 아닌 指摘事項입니다만, 韓國가스安全公社 뿐만 아니라 5個 회사 社長님들이 資料를 하나도 안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社長들이 市議會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기회는 몇 年동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責任이 있는 것인지 사실 공부도 못하고 갑자기 연락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잘못은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委員님들께서 이런 이런 資料는 준비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資料를 수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그 問題에 대해서 産業經濟局長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연락은 市議會에서 드렸지만 저희가 연락드려서 무슨 資料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대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寧剛; 됐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閔泳三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泳三 委員; 극동도시가스 社長님 말씀을 죽 듣다보니까

마치 우리 서울시 生活環境委員會委員님들이 실질적인 도시가스회사의 어려움을 모르고 實情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한 채 무작정 市民의 입장에서만 서서 여러 가지 質疑를 하고 그런 것 아니냐는 배경이 깔려 있는 듯해서 약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本委員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극단적인 예로 회사는 民間企業입니다. 스스로 運營해서 市場原理에 의해서 이익을 남겨야됩니다. 資金이 필요하면 投資者를 유치하고, 또 똑같은 財閥會社도 어떤회사는 1년에 貴期純利益이 몇천억원이 나지만 어떤 重工業은 마이너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왜 우리 서울시 市民의 돈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基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借入金을 10% 가지고 와서 融資를 銀行에 주면서 6%나, 8%라면 2%는 서울시 부담입니다. 이런 金額에 대한 問題點, 오늘 우리는 指摘을 하는 것이고, 또 물론 그 基金이 제대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서울시 市民의 全額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서울시 市民의 돈을 支援받고 어찌되었건 融資 받고, 支援을 받는 도시가스회사들이 진정으로 合法的인 공간속에서 열심히 우리 市民을 위해서, 施設普及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指摘하는 일련의 過程입니다. 나름대로 施設普及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民間企業이면서도 公共性을 망각하지 않고 해주신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몇 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工事時에 不法下請行爲는 서울시에 물어 보니까 '92年度에 한 件 적발하고 없다고 그랬어요. 대한도시가스 社長님, 92年 8월에 금성설비 공영이 不法 下請行爲를 해서 발견한 사례가 있고, 그 뒤로는 정말 한 件도 없었습니까?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대한도시가스 金泰禎입니다. 금성설비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告發指置했고, 지금 그 회사가 그 이후에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下請業體, 저희들이 말하는 下請의 下請, 저희들이 受託工事を 하게 되면 工事業體 거기에서 주는 下請, 이런 것은 근절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不法下請 그 뒤로 한 件도 없으셨죠?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네, 그렇습니다.

○閔泳三 委員;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質疑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가지 사정상 전부 摘發해 내기 어렵다, 막연하게 있는 것 같은데 摘發해 내기 힘들다는 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 不法行爲가 없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不實施工問題입니다.

不實施工도 저희들이 자료요청 하니까 95年度 13件, 그 전년도 16件이 전부 심도미달과 성토부적절이거든요. 그러면 施工이라는 것이 물론 심도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정말 材質들 供給管의 管들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또 연결은 제대로 규정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不實施工한 사례를 자체적으로 摘發한 事例는 한 件도 없습니까?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예를 들면 지금 施工業體들이 아주 零細합니다. 그래서 一般 建設業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下請의 下請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서울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工事が 벌어지면 차를 빌려쓰고, 裝備빌려쓰고, 그리고 또 工事 끝나면 도로 원대복귀하고, 業體는 零細化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디가 어디까지 그것이 下請의 下請, 다시 말하면

하느냐 하면 施工業體 스스로가 今年度에 내가 얼마 金額이, 다시 말하면 都給金額이 얼마만한 工事を 할 것인지 전혀 豫測이 不可합니다. 이런 事項에서 자기가 今年度에 工事할 金額이 없고, 어떤 收支計算이 計劃을 세울 수 없는 狀況에서 이 사람들 보고 저희들이 너 企業化시켜라, 裝備를 가져라, 技術을 가져라, 人力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施工業體는 어떤 要件을 정하고 그것을 企業 스스로가 登錄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를 過去의 經驗이나, 그 사람들의 能力이나, 그 사람들의 資本이나, 裝備나 이런 것을 봐서 스스로 民間企業이, 都市가스會社가 決定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서 저희들이 今年度 事項 전체가 200億원이다 그러면 200億원 범위 내에서 내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도 資本蓄積을 하고 그 사람들도 어떤 技術開發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 우리 會社에는 今年度에 한 30個 정도의 都給業體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20個 정도의 都給業體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극동도시가스에서 점수제를 도입해서 施工業體를 評價한다 그랬는데 그 評價基準에 의해서 당신은 今年度에 어느 정도 신뢰도 있고 工事實績도 좋았고 이러니까 당신은 今年度에 한 10億원 정도는 할 수 있다, 당신은 5億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가 투명한 企業의 經營을 豫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몰고가서 근본적으로 施工業體를 育成하는 方案으로 이 리스크를 배제시켜야지 저희들이 管理監督職은, 지금은 名譽監管職도 계시고, 또 앞으로 安全工事を 위해서 施工監理도 맡고, 그러니까 制度上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 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企業觀이 없고, 근본적으로 落札 봐가지고 이것 한 件하고 도로 옛날로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이런 리스크는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그래서 答辯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制度的으로는 잘 돼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측가능한 그런 經營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閱泳三 委員; 아무튼 施工에 대한 근본적인 責任이 전적으로 우리 都市가스 供給會社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基金 많이 融資받으셨지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서울市內는 저희들이 아마 5個 都市가스 中에 제일 普及率이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에 한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基金은 年次的으로 적고.....

○閱泳三 委員; 아니, 그러니까 基金 融資받아서.....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일부 있습니다.

○閱泳三 委員; 일부 있으시지요. 그 用途를 주로 어디다 쓰십니까?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요즈음 配管을 하는데 計劃配管을 하고 있습니다. 計劃配管 이외의 地域, 다시 말하면 計劃配管은 서울市에 報告를 해서 承認을 받습니다. 그런데 計劃配管 이외의 地域에 저희들이 管을 끌고가야 되는 이런 특별한 경우, 또 民願이 있는 地域 이런 地域에 대해서 配管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閱泳三委員; 그러면 그 基金을 제대로, 원래 條例 規定에 의해서 配管 整理權 設置하는 用途로 限定되어 있잖아요, 基金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그 內容을 확실히 제가

把握을 못하겠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것 참 이상한 일이네요. 都市가스事業基金 設置條例 規定에 의하면 基金의 用途가 限定되어 있습니다. 燃料課長님, 맞습니까?

○燃料課長 金鍾博; 供給施設만 基金이.....

○閔泳三 委員; 配管하고 整壓機 設置에만 사용 하도록.....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네, 그렇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 用途 外에는 사용하신 적이 전혀 없으시지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그렇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러시면 그 基金을 사용하실적에 銀行에서 그 用途를 監督을 주 받으십니까. 아니면 서울市에서 직접 그 用途를 監督을 받으십니까, 融資節次上에?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저희들이 前年度의 實績을 가지고 今年度에 너희들 基金 配定額은 대충 얼마다 대충 이런 한도가 承認이 됩니다. 그러면 年末에 또 자기가 실제 그 地域에 投資를 하고 그 實績을 첨부해서 申請을 합니다.

○閔泳三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銀行이냐구요, 서울市廳이냐구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精算은 서울市廳에다 하고 있습니다, 돈이야 銀行에서 받고.

○閔泳三 委員; 이 基金이 造成해서 그냥 銀行에 貸下資金으로 가는 것입니까, 課長님?

○燃料課長 金鍾博; 그렇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러면 銀行에서 전적으로 管理監管하게 그렇게 되어있네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저희들이 그 申請을 할 적에는 그 管轄區廳長의 承認을 득하고 確認을 받고 해서 서울市에 올리는 그런 節次를 밟고 있습니다.

○閔泳三 委員; 그 節次는 아는데 融資節次上에 用途라든지, 또 이 節次를 어느 機關, 銀行 으로부터 監督을 받고 계시는지.....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저희들이 銀行에서 管理監督 받는 것은 없습니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會社에서 市에 公文을 올리면서 그것을 區廳에다 같이 提出을 합니다. 그러면 區廳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市에다 通達을 하면 市에서는 會社別로 基金配定을 하고, 그것이 銀行으로 通報가 갑니다. 그러면 銀行에서 50%를 先給으로 해서 融資를 주고, 그 다음에 施設을 設置한 다음에 施設이 完了되면 銀行에 完了된 것을 提出을 해서 事後에 또 50%가 融資를 나가는 이런 制度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工事に 따른 確認審査 이것은 銀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閔泳三 委員; 끝으로 基金이 제대로 適材適所에 用途에 맞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대로 된 期間에 償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質問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아까 參考人으로 나오신 金東勳 上水道事業本部長님과 얘기를 나누는 過程에서 제가 이 都市가스事業基金의 移越額을 잘못 얘기해서 速記錄 때문에 고치고자 하거든요.

'93年度에서 '94年度로 넘어온 移越基金이 16億 7,000萬원, 그리고 '94年에서 '95年度로 移越되는 基金이 아까 約 20億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約 51億 3,000萬원 정도 된

다는 것으로 제가 修正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李成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 委員; 産業經濟局長한테 먼저 묻고 싶은데요.

條例를 보니까 基金의 用途로 하나, 둘,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첫번째가 우리 閔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配管 또는 整壓施設이고, 두번째로는 가스使用施設 中에 單獨住宅, 共同住宅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번째가 基金의 運用·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번째 項 때문에 우리 基金이 脆弱施設이나, 또 우리 需用家가 그 동안에 좀 부담을 해 왔던 地域에 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基金條例를 만들면서 당시 趣旨說明을 한 內容을 檢討해 보니까 첫번째가 淸淨燃料을 普及해서 公害問題를 좀 해결하자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供給擴大를 계속 많이 기하자는 얘기가 있고, 세번째로 安全施設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基金條例를 만들 때 脆弱地域이나, 또는 이제까지 需用家가 부담해 왔던 地域, 그러니까 難工事地域이나 脆弱地域 이런 등등에 국한해서 基金을 支援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는 어느 정도 規도에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이 基金의 使用用途를 좀더 엄격하게 해서 脆弱地域이나 難工事地域에 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基金을 支援했을 때 그 用途가 제대로 執行되었는지를 事前·事後 管理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基金條例를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하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5個 會社 社長님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금

방 우리 閱委員님도 잠깐 言及했습니다만 金東勳 前 産業經濟局長께서는 이제는 基金도 需用家가 그 동안에 부담해 왔던 道路에 引入해 있던 것으로부터 各 共同住宅이나, 그런 경우에 分支되는 線까지는 引入配管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需用家가 부담해 왔지 않습니까,

또 30% 이상은 都市가스會社가 부담을 했습니다만, 그 전체를 우리 會社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條例를 改正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基金을 支援해 주는 대신 用途를 脆弱施設이나 難工事地域으로 하도록 하고, 또 그 工事費 全額을 會社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改正을 하자는, 條例를 改正하는 要旨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社長님께서 어떤 見解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기는 問題點이 그 동안 會社를 經營하시면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虛心坦懷하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質疑 다 끝나셨어요?

○李成造 委員; 네.

○委員長 金寧剛; 答辯해 주시지요.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지금 都市가스會社 社長님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조금 그 問題를 이 자리에서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答辯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李委員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제까지 需用家들이 부담했던 것이 이제는 普及擴大라는 그런 公共目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노력들을 해서 66%에 가까운 普及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需用家側에도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社長님들하고 協議를 해서 합리적으로 研

究 改善하는 것으로 그렇게 答辯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社長님들 見解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條例 制定할 때도 어떤 委員이 使用者에 受惠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었는데 당시에 金東勳 産業經濟局長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供給擴大가 굉장히 중요한 問題로 그렇게 論議가 모아졌던 것으로 記憶을 하는데 지금은 狀況이 좀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狀況變化에 대한 認識은 어느 정도 같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래서 條例를 좀 變化를 한다거나, 또 基金을 縮小한다거나 하는 것도 한 方法 中에 하나일 테니까 이 問題에 관련해서 우리 社長님들의 見解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대한도시 가스 金泰禎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個人的인 見解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施設分擔金이 라든지, 受益者負擔金이라든지, 基金이라든지 하는 政策性을 띠고 있는 이런 각종 제도들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業界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는 쪽에 있고, 또 한측면은 需用家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무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需用家도 보호하는 측면의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러한 모든 政策的인 제도는 이미 普及率이 높아지면 높아갈 수록 전체적인 요인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팩터들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저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희들이 요즈음, 대한도시가스 같은 데는 基金을 제일 적에 割當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크게 인위적으로 이것을 꼭 막으려고 안하더라도 普

及率 70% 정도 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요인들이 없어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러한 모든 政策的인 그런 제도들은 실제 料金, 다시 말해서 마진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人爲的으로 그것을 없앤다 이러면 이 자체가 어떤 需用家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도 있지만 需用家 스스로 자체적인 衡平問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業界에서 불적에는 收益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費用은 늘고, 收益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것은 단지 이 제도 자체에서만 이런 問題點 해결 도출할 것이 아니고 역시 가격과 연계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所見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引入線問題에 대해서 費用 負擔하는 問題가 현안의 問題 중에 중요한 問題 같은데, 첫째로 이러한 負擔을 需用家들이 한다는 얘기는 그 만큼 相應하는 가격에서의 디덕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면 아까도 말씀계셨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經濟性하고 연결해서 필요한 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66%에 해당하는 普及家口들이 그러한 費用을 내고서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본다 그러면 기왕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돈 내 나라, 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냐 이런 問題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두번째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普及이 容易하고, 쉽고,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로 해서, 共同住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開發이 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여건이 전부 나쁜 여건들만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投資費는 더 많이 들것이고,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이고, 혜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마당에 그 만큼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꾸 빼 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特定地域에 예를 들면 300家口 정도는 需要가 있어야 基本管을 깔고 할 수 있는데 300家口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100家口 정도는 우리 뒤에 하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0家口만 한다면 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200家口 조차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대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價格問題하고, 또 普及率하고, 地域的 특성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答辯됐죠? 追加質疑하세요.

○李成浩 委員; 아까도 우리 金東勳 前 産業經濟局長하고 마지막에 需用家 부담하는 費用을 이제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 문제가 지금 民願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委員들도 다들 그 동안에 需用家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賠償할 수 있는 法的根據가, 異見이 좀 있습니다만, 賠償할 수 있다면 賠償도 해야 된다는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고, 차제에 그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차제에 그

것을 이제는 회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電氣 놓을 때도 그렇고, 電話 놓을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놓겠다는 사람이 전봇대 몇 個 해서 했습니다만, 요즘 와서 다 집앞에까지는 通信이나, 上水道나, 가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될 시점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깔린 km도 8,000km 넘었고, %도 66% 넘어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工事費도 사실은 需用家가 부담하는 가스原價에 어차피 反映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회사에서 需用家에게 부담하는 가스原價 계산할 때 設備投資된 內譯까지 다 포함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회전기간이 길어져서 그렇지 回收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需用家가 부담해 왔던 기존의 어떤 것을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 寄附採納이네, 뭐네 해서 말썽도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問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뒤로 우리 委員들이 미루고 있는 형편이기도 한데, 저의 見解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洪民奎; 李成浩 委員님 質問에 대해서 잠깐 제 見解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한 그리고 극동도시가스 社長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問題는 조금 전에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通信, 韓電, 또 通信이라든지 上水道 이와 같은 혜택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普及率이 100% 다 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키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普及率을 어느 선까지 올려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問題인데 조금 전에 옆에 사람들이 얘기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66%선 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普及이 容易한 곳은 대부분 선 되어서 들어갔다,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脆弱地區이고, 나름대로 앞으로 投資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地域이 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짓는다고 할 때는 역시 普及率을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가, 그 선을 어떻게 그어놓고 거기에서 가격과 수반되는 가운데서 이 제도를 再檢討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현재에 普及되고 있는 이 선에서 앞으로 잘 모르겠다, 여기서 그대로 끝이야 한다면 또 問題가 달라지겠지만, 그와 같은 拙速的인 결정을 대단히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檢討를 해서 아까 産業經濟局長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오늘 처음 이와 같은 參考人 자격으로 해서 市議會에 出頭를 했고, 분위기도 충분히 把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問題를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방향을 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委任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李成浩 委員; 저는 韓電이나, 電話나, 上水道 이것도 일정 정도의 %에 도달하면서 부터는 需用家 負擔을 供給하는 쪽에서 했던 것으로 記憶을 하고, 정확하게 터닝포인트가 몇 %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資料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要因은 100%가 다 普及率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投資가 되면,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로부터 回收되는 利益금이 있기 때문에 그 利益金으로 이후의 시설들

은 投資해 나갈 있는 資本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가 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95年度만 해도 195億원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매년 20萬家口 1,000km를 新設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수요되는 財源들은 현재 5個 가스회사가 '95年度에 收益 보고있는 내용하고 서울시에서 일부 基金 보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資金確保는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需用家가 지금까지 부담해 왔던, 그래서 寄附採納 때문에 말썽이 많았고, 또 需用家들이 돈 내고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한 데도 있고 했던 것처럼 말썽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뭔가 변화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參考人으로 나오신 우리 社長님들하고 당장 결론내릴 수 있는 問題는 아니겠기에 이 정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다음 質疑하실 委員, 禹元植 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禹元植 委員; 지금 答辯하신 내용 중에 水道나, 電氣나 이런 것하고 다른 것은 그것은 國家의 基盤施設이라고 해서 總額을 政府에서 대고, 그리고 使用料도 사용하는 利益金을 國民들 내지는 市民들에게 혜택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水道料金도 싸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되는데 그것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야말로 현상대로만 얘기를 하면 民間業體인 도시가스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基盤施設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利益金은 다시 市民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회사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財閥會社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가 利益金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水道나 電氣라든지 이런 政府가 운영하고 있는 基盤施設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비교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조금이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대한도시가스 회사에 묻겠습니다.

지난 95年 8月 6日에 도시가스시설 특별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계획 통보 이렇게 해서 서울特別市에 提出한 資料에 의하면 도시가스공급시설 整壓機 점검결과 현황 해서 즉 점검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地域整壓機입니까, 아니면 轉用整壓機입니까?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地域整壓機입니다.

○禹元植 委員; 이것이 140個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이 90個예요. 그중에 가스누설한 整壓機는 17件인데 그 중에 몇 件은 아주 심해서 가스누설현황이 10%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조치완료 이렇게는 돼 있는데 10% 정도나 될 정도로, 地域整壓機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잘못되면 큰 問題가 생기는 데 10%정도가 누설될 때까지 방치해 놓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答辯해 보시죠?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資料는 처음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禹元植 委員; 그래서 모르신다구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禹元植 委員; 燃料課長님, 燃料課長께서 文書를 받고 署名을 하셨는데 이 內容 아시나요? 저는 이 文書를 굉장히 중요

하게 봤어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이것이 落雷事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地域整壓機를 한 都市가스會社가 140個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10%의 누설까지 있어서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文書에 대해서 아무도 주의깊게, 當該 都市가스會社社長도 주의깊게 보지 않고 있고, 主務課長인 燃料課長도 주의깊게 보고 있지 않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都市가스安全管理의 現況이 아니냐.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는 아시나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저희가 今年初에 組織改編을 할 적에 整壓機 專擔課를 만들었습니다. 整壓機 專擔課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整壓機를 巡廻點檢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監査에서 그렇게 指摘을 당했는지.....

○禹元植 委員; 監査가 아니고, 대한도시가스회사 姓術이 金泰禎 社長님이시지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네.

○禹元植 委員; 代表理事 社長 金泰禎 해서 落款까지 찍어서 受信은 서울特別市로 되어 있고, 參照는 燃料課長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本人名義로 해서 보낸 書類를 잘 모른다니, 처음 報告를 받았더니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요?

대한도시가tm회사가 95年 8月 5일에 特別點檢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올초에 整壓機 點檢課를 만들어서 수시 점검을 한다면 그 課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올초부터 點檢을 했는데 8月 5일에 特別點檢한 結果가 이렇게 됐으면.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그것이 아마 落雷하고

關係된…….

○禹元植 委員; 같은 報告文件인데 落雷 때문에 된 것을 35 個 整壓機가 망가져서 고쳤다는 것이고, 어떻게 落雷 때문에 整壓機가 망가집니까? 그것에 대한 安全施設이 안 되어 있나
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電壓이 갑자기 過電壓이 흐르면, 그런 事故를 豫防할 수 있는 장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런 老朽施設도 바꾸고 피뢰침도 달고 하는 是正措置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事故는 豫防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韓國가스安全公社 支社員님께서는 이쪽으로 나오셔서….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네, 말씀하세요.

○禹元植 委員;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는 가스供給施設에 대한 安全을 點檢하는 것이 주된 任務 아닌가요?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檢査와 點檢을 같이 하지요.

○禹元植 委員; 그런데 이렇게 한 都市가스會社의 140個 地域整壓機中에 90個가 이상이 발견되는 點檢을 대한도시가스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報告書를 냈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
세요?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죄송합니다. 제가 10月 10日에 赴任을 해서 業務把握을 하고 있는 狀況입니다. 그러나 그 事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業務의 連續이 아니기 때문에 現況把握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禹元植 委員;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도 地域整壓機인데 點檢해야 될 제일 첫번째 對象 아닌가요,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수시로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 點檢을 해 왔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이것이 보니까 밸브가 부식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점 새기 시작해서 2%, 3%씩 하다가 10%까지 간 것인데 아파트團地에 있는 地域整壓機에서 10%까지 가스가 누설이 됐어요. 蠶室 市營, 그 다음에 선수촌아파트, 良才, 端草, 三豊, 水西3團地는 8%, 이렇게 심하게 누설될 때까지 어떻게 放置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點檢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됩니까?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自體點檢計劃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 우리가 法定檢査가 있고, 自體檢査가 있습니다만.....

○禹元植 委員;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 法定檢査나 自體檢査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상태까지 안 갈 것 아니에요.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法定檢査는 1년에 한번 定期的으로 實施를 합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點檢해서는 다 밝힐 수 없다는 것인가요?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定期檢査가 있고, 수시로 特別點檢이 있는데 그 데이터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現況把握이 안 되어 狀態입니다.

○禹元植 委員; 오늘 오셔서 아까도 앞에 同僚委員님께서 指摘을 하셨지만 여기 오신 것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처음보는 委員들한테 지금, 參考人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狀況을 좀 잘 알고 싶어서 했는데 흥분하셨는지.....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저도 여기 처음 왔고,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는 처음이고요.

○禹元植 委員; 그런데 첫째는 韓國가스安全公社가 各 가스供

給施設에 대해서 잘 點檢을 해서 가스會社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40個 中에 50個가 이상이 없고, 90個가 地域整壓機에서 이상이 발견됐다면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韓國가스安全公社가 제대로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그것보다도 제가 그 데이터는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대한도시가스회사 社長님 한번 答辯해 보시지요. 落雷事故를 整壓機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地域整壓機에 問題가 생기는 것이 가능한지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市를 代表하시는 責任지고 계시는 분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지요.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우선 아까 産業經濟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인 過電壓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禹元植 委員; 그것 豫防하는 施設이 없어요?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강력한 過電壓에 保護될 수 있는 裝置를 지금 대한도시가스에서는 補完 中에 있어서 11月末까지 補完하는 것으로.....

○禹元植 委員; 다른 都市가스會社는 어때요? 잘못해서 벼락 한번 맞으면 다 터집니까? 이것이 몇 臺만 지금 고장이 나서 다행인데.....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서울市內에 있는 地域整壓機에 벼락을 맞으면 問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議會에 와서 이렇게 큰소리만 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問題들에 대해서 專門的인 어떤 部分을 가지고 있어야 지 될 것 아닙니까?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순간적인 電壓이 높을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지금 다 그렇습니까?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그것이 전체적인 過電壓에 의한 保護裝置가 補完이 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서울市內에 있는 地域整壓機의 實態가 지금 그렇습니까?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전체적으로 點檢을 다시 그 分野는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을 수 있습니다.

○鄭泰宗 委員; 麻浦, 阿峴洞 가스事故는 整壓機 事故입니까, 整壓機보다 위의 事故입니까?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整壓機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事故입니다.

○鄭泰宗 委員; 그러니까 整壓機라면 같은 整壓機인데 그러한 事故가 發生할 素地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事故가 發生할 素地가 있다.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電氣分野는 좀더 세심하게 研究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쪽에서 방폭관계라든가 電氣 같은 것이 현재 수준으로서는 韓國에서 그것에 대해 깊이 研究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 방폭에 관한 것이 昨年에 센터가 생겨서 지금 研究를 하고 있습니다. 國內 技術으로써는 현재 그렇게까지 깊이 把握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國內實情으로는.

○禹元植 委員; 대한도시가스 社長님, 그 部分에 대해서 아
까.....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이것이 落雷하고 관련
된 公文인지, 또는 自體點檢한 것을 하는 것인지, 別個의 公
文인지 이것만 보고는 확인할 수 없어서 명확한 答辯을 못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상적
인 管理를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됩
니다. 앞으로 是正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疏明資料를 다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올리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이것은 落雷하고 關係된 것은 아니고, 落雷에
關係해서는 35군데 地域整壓機가 故障이 났다고 하니까 그것
하고는 關係 없이 點檢結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청담, 건
영 이런 것은 다 대한도시가스 맞지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네, 맞는데 저희들이
쓰는 상투적인 用語입니다. 부식방지, 인입밸브 이상, 통풍
불량, 그런데 사실상 조그마한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보실 적에 대단한, 전혀 點檢이 없는 事項 아닌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항상 管理하는 立場에서 보면,
이런 事態가 일어나서야 안 되겠지만 다 비슷 비슷한 件으로
적혀 있는데 다시 한 번 確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가스누설 10%도 이것이 사소한 事故입니까?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아닙니다. 그것은 問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서 10%라는지 다시 한 번 저
희가 點檢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이것이 지금 서울市內 都市가스의 실상입니
다.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지금 禹委員님께

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確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點檢을 하시고, 그리고 서울시議會에 와서 敎育을 잘 하려고 하는데 委員들이 잘 안 도와준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이런 것은 이렇게 放置해 놓으시면서 일방적으로 와서 큰소리로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月 10日에 赴任을 해서 계속 監査다, 뭐다, 綜合點檢이 다 해서 이번 週도 또 계속 있는데 여기 불러다니고, 저기 불러다니고 把握 지금 겨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숨 좀 돌리고 把握도 하고 나아지, 報告書받고 이제 막 檢討하는데, 죄송합니다.

○禹元植 委員; 問題는 이렇게 중대한 不實의 問題가 있는데 이것을 文書를 만든 會社 社長도 잘 모르고, 서울시 主務課長인 燃料課長도 잘 모르고, 安全問題에 대해서 責任져야 될 韓國가스安全公社의 서울을 代表하시는 분도 잘 모르고,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韓國가스安全公社에 묻겠습니다. PE파이프管 융착하는 問題인데 이것이 전자소켓 융착하고, 맞대기 융착하고 저도 이 用語를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맞대기 융착은 管을 서로 맞대서 하는 융착이고, 전자소켓 융착은 이렇게 소켓 같이 집어넣는 이런 융착방식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 어느 것이 더 安全한지에 대해서 檢討를 해 보셨나요?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이 問題는 현재 저희가 本社에 安全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E밸브와

PE管에 대해서 研究가 今年度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계속 研究를 하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도일석유화학주식회사라는 會社는 어떤 會社 입니까?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 저 자신 이 會社에 대해서 잘 모르고, 一介 個人會社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아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都市가스係長 白武景; DURA 製品하고 에이전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플라스틱을 製造하는 會社가 아니고 단순히 外國人 會社의 에이전트의 한 부류로 알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면 文書自體가 어떤 公信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는 용착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도 워낙 技術的인 問題라 잘 알 수 없는 問題이고, 그런데 이런 問題提起가 있으니까 맞대기 용착이라고 하는 것과 전자소켓 용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것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崔大業; 강남도시가스 崔大業입니다.

저도 이 계통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의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대기용접과 일렉트릭 휴전이라고 해서 전자식용접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두 가지 다에 각각의 長・短點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技術的인 사항에서 長短點이 있다는 것을 구분드리면서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기

제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은 일렉트릭휴전이라고 그래서 소켓 내에 전기코일이 들어가서 일정한 온도와 시간이 걸리면 용착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전류가 더 供給이 안 되고 끊어지는 사항이고, 맞대기용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서 인두를 달궈서 그 달군 인두의 온도와 용접 온도상태에서 양쪽에 파이프를 갖다 대어서 시간을 現場 技能工의 감으로 대략 이 정도의 시간과 온도면 녹아서 붙을 것이다 해서 떼고 용접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대개 技術者의 심증으로 봐서는 다소 投資費가 높다 하더라도 일렉트릭휴전에 대한 전자식방법이 조금 이상적이 아니겠느냐 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지금 용착방식은 대개 어떤가요?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崔大業; 두 가지를 다 兼用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렉트릭휴전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이 文書에 보면 내용상 公信力이 없기 때문에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맞대기 용착방식으로 施工하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그런 指標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崔大業; 저희 강남도시가스는 九老區, 衿川區, 陽川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맞대기용접보다는 일렉트릭휴전을 강요한다면 우습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工事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대한도시가스는 어떻습니까?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지금 현재 전기용접을 하고 있고, 여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독일의 제품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제품을 저희 회사에서 자체 필요에 의해서

檢査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1차에는 도일이 조금 나은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3차 전체가 다 합격이 됐는데, 도일이 자체 테스트한 시험지를 빼서 전체 돌리고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도 도일제품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제품을 한결과 다 같이 性能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시험결과 나타났습니다.

○禹元植 委員; 용착방식에 대해서 質疑하는데 대한도시가스에서는 전자소켓용착방식이 安全上에 問題가 있으니까 設備業體로 하여금 이것을 금지하고 맞대기용착방식으로 施工하고 있다 이렇게 指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저희들이 전자식용착하고 도일이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험을 계기로 해서 용착방법을 바꾼 것으로 도일에서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禹元植 委員; 그 부분에 관련된 資料 같은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燃料課長님, 올라와 있는 용착하는데 통계라든지 이런 것 없나요? 그런 것은 통계 안 냅니까?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金泰禎; 關係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本社에 얘기해서 하고 있으니까 資料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리고 지금까지 答辯을 한번도 안하신 한진 도시가스회사에 묻겠습니다. 오셨는데 한번이라도 答辯하시고 가셔야지, 標準工事費 말입니다, 언제부터 施行된 것이죠?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확실한 날짜는 제가 記憶을 못하겠습니다만 '93年 봄이었습니다.

○禹元植 委員; 單獨住宅의 경우에 追加世帶라는 것이 있죠, 어느 집에 貫 들어서 연료를 독자적으로 받아야 될 때 管을

조금 연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기 한진 도시가스에서 93年 8월에 도시가스工事費見積書를 낸 것을 보니까 基本工事費 해서 30坪型에 129萬 7,000원 이렇게 돼 있고, 追加世帯는 追加世帯 C해서 C는 配管 총연장이 20m이 하인 경우 59萬 4,000해서 아마 3世帯였던 모양인데 3해서 178萬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基本工事費 30坪에 129萬 7,000원이 뭐 뭐 들어가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정한 標準工事費 품셈표에 의해서 나온 것은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한 품셈표는 알겠고, 129萬 7,000원이 基本工事費, 引入配管 4m해서 도로상 2m, 敷地 내 2m해서 도로상 2m 24萬원했고, 敷地 내가 2m해서 6萬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것 아닙니까. m당 3萬원 정해서 6m이고, 世帯費 工事費해서 30坪型 基準으로 58萬 5,000원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基本工事費죠? 그러면 24萬원하고, 6萬원하고, 58萬 5,000원하면 129萬 7,000원이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계산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禹元植 委員;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引入配管 30萬원 하고, 立上管 및 연결공사 35萬원 하고, 30坪짜리 單獨住宅 들어가는데 58萬 5,000원 하면 129萬 7,000원이 안 나와요.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전담하는 영업팀장이 있습니다. 대신 報告말씀 드

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禹元植 委員; 그러면 그 다음 것 물어보죠.

追加世帯해서 59萬 4,000원 追加世帯 C라는 것이 配管 총 연장길이 20m 이하인 경우인데 20m 이하를 여기에서 따서 각 需用家한테 보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m 깔면, 제가 어제도 管 파는데 물어봤더니 m당 萬원이 안 돼요. 6,000원 정도되나 그런데 20m도 못 깔면서 한 家口當 59萬 4,000원씩 받는 것 너무 過大하게 받는 것 아닙니까?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많고 적은 것의 판단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개인한테 흥정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價格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禹元植 委員; 本部長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냐고요? 需用家들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래요, 30坪型한 家口하고 追加世帯 3家口 들어가는데 총 얼마를 내냐면 580萬 8,8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材料費하고 人件費를 아무리 계산해 봐도 100萬원이면 충분하겠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標準工事費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策定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어떠시냐고요?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標準工事費는 사실 저희가 收益을 취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등록된 業者가, 똑같은 저희 같은 市民이고 國民입니다. 이 사람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돈을 더 받지 못하게 서울

市에서 정해진 품셈표에 의해서 우리가 工事契約해서 그리고 그 돈을 支拂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흥정한다면 또 다른 不正의 소지가 있고, 또 그 施工業體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禹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需用家は 어떤 의미에서 덕을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는 施工者도 世帶數가 많아지면 그만큼 들인 노력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손대기 시작하면 또 다른 民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趣旨는 그 額數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는 나와 있는 額數대로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93年 봄부터 했다면서,

○鄭泰宗 委員; 도시가스 施工業者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받은 사례가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제가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禹元植 委員; 지금 問題는 本部長님한테 돈을 暴利를 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施工者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問題냐면 標準工事費를 너무 높게 서울시에서 策定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높다고 그러시면 調整하시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높다, 낮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품셈표가 우리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供給規程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世帶數가 많아질 때는 자

연히 加算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禹元植 委員; 供給規程이 지금 뒤에서 말씀을 '93年 8月이니까 아까는 '93年 초에 標準工事費가 施行이 됐다고 해서 제가 標準施工費로 알았는데 '94年度에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標準工事費 細部 內譯書를 제가 가지고 있는 데 이것이 차이가 나서 그것을 따질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標準工事費 細部 內譯을 가지고 봐도 이것이 지나치게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問題의 焦點 너무 비싸게 策定돼 있기 때문에 住民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市에 근무하시는 公務員들한테 물어보면 구체적인 價格이나 現地에서 사업하면서 느낄 때 오는 감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 現地에서 사업을 主導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볼 때 이런 標準工事費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策定된 것 같냐, 안 된 것 같냐 이런 見解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을 직접 계산해 보지도 않았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걱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매년 이것을 조금씩 調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調整하는 過程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또는 多世帶住宅인 경우에 의외로 施工業者한테 利益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금년도 供給規程, 내년도 供給規程 개정할 때 표준품셈도 調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규정을 서울市에서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가스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규정을 일단

저희가 만들어서 서울시의 許可를 받는 것이 供給規程의 절차방식입니다. 그러나 표준품셈표에 관한한 지금까지 도시가스회사가 暴利를 취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완전히 정밀스크린을 받고 調整된 價格으로 저희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서 서울시가 받아주는 그런 단순은 아닙니다.

○禹元植 委員; 그리고 標準工事費를 供給規程으로 만들 때 도로상에서부터 土地境界面까지를 引入配管으로 하고 引入配管은 需用家 부담으로 시켰죠, 지난 번에 改正하면서?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지금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것을 都市가스會社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許可를 받았으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供給管은 그 전에 都市가스會社에서 내도록 하는데 需用家가 원할 경우에 本人의 同意와 區廳長의 承認을 받아서 需用家の 부담으로 넘기는데 道路上에서부터 土地境界面까지 들어오는 引入配管은 그것이 供給管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 區廳長 承認받는 규정을 빼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그것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표준품셈표를 만들면서 일단 현실적인 問題입니다. 저희가 供給管과 引入配管, 支管 지금 이 概念定立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道路와 平行되지 않아서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道路境界線까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供給管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지, 규정이 土地境界線이라는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禹元植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진건설주식회사 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제가 말씀을 좀 계속드리겠습니다. 一例를 들어서 어느 한 집을 따로 들어 가는데 2m는 都市가스會社에서 施工을 하고 나머지 2m는 다른 사람이 한다 했을 때 조금 問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그런 部分이 조금 問題가 있지만 그것은 일괄해서 需用家 負擔으로 해서 工事費로 算定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問題라는 것입니다. 지금 都市가스事業法에 規定되어 있는 것이 供給管에 대한 規定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共同住宅 이외의 建築物에 가스를 供給하는 경우에는 整壓機에서 가스使用者가 所有하거나 占有하고 있는 土地의 境界까지에 이르는 配管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土地境界面까지 들어오는 것을 供給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都市가스會社 여러 社長님들께서 만든 引入配管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供給管이라고는 規定에서 빼기 위해서 引入配管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區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되는 節次도 지금 밟지 않고 모든 都市가스施設에 20 몇 만원 내지는 30 몇 만원씩 賦課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다 契約된 것이 아니고 뭐니까?

産業經濟局長님, 한번 說明해 보세요. 엇그제 얘기하시면서 引入配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引入配管은 아예 區廳長 承認도 안 맞고, 標準工

事費에 아예 20 몇 만원씩 정해져 있어요. 24萬원하고, 1m當 12萬원씩 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m가 되면 48萬 원이 되고, 5m가 되면 60萬원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난 번보다 훨씬 改惡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都市가스會社들한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崔大業; 제가 주체님께 나왔습니다. 강남의 崔大業입니다. 저는 원래 技術者 出身이어서 아마 社長님들께서 이런 部分만 나오면 저를 자꾸 앞세워서 저는 총대받이로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引入管 費用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禹元植 委員; 供給管 工事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崔大業; 글썄, 供給管. 供給管의 正義는 지금 法定用語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전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 法이 日本 都市가스事業法의 模倣立法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저도 거기에 조금 미력하나마 參與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立法趣旨의 狀況이 지금 머리속에 조금 생각이 나서 잠시 이해를 돕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저희하고 日本하고, 先進國들은 지금 都市 가스의 供給體系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가스의 採掘에서 運搬, 輸送, 그 다음에 普及, 安全管理까지의 責任을 民間會社가 經營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國營企業이 하는데는 英國과 불란서가 하다가 그것도 점차 民間에게 移讓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會社는 이 法을 導入하면서 모든 體系는 다 國家가 쥐고 있습니다. 아까 委員님들 말씀하신 대로 가스의 原價도 政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供給費用은 서

울市長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施設에 관한 監理는 今年 11月 1日부터 韓國가스安全公社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檢査도 韓國가스安全公社가 가지고 있고, 또 法으로 15km마다 한 사람씩 檢査員을 세우는 人的制度도 現行 都市가스事業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體系에서 유독 우리가 왜 供給管의 正義를 그렇게 했느냐 하는 部分인데 제가 사실은 日本 法을 여기에 번역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 '80年度 初에 이 都市가스事業이 이렇게 번창하리라는 것은 저희가 이 法을 만들 적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都市가스 母會社를 어떤 地域으로 정하고 그 에어리어 내에서 3km, 4km밖에서 불과 200·300世帶의 集團住宅이 要求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갖다주겠느냐 하는 是非事項 問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側面에서 供給管의 規定을 그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이 問題가 投資費와 關係돼서 問題提起가 되었고, 그 연후에 都市가스 흐름의 歷史는 過去 저희가 '92年度부터 상당한 급신장을 보았습니다. 그 급신장을 보는 過程 中에서 제일 먼저 왔던 것이, 저희가 당시에 都市가스를 供給하는 基本原則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政府가 要求한 것이 公共施設, 兒童福利施設, 學校, 病院. 그 다음에 集團住宅, 그리고 環境部가 要求하는 環境 指定告示場所 이것이 普及順序의 우선이었습니다. 單獨住宅이라는 概念은 그 당시에 우리가 都市가스事業法을 정할 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니다. 또 그것은 의당 되지도 않는다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年度에 單獨住宅에 都市가스를 供給하면서 집값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너나할 것 없이 都市가스를 넣어다오 해서 수없는 要員님들

의 付託도 받아서 좀 넣어드린 데도 있고 사실은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問題는 현재 施工費와 關係된 問題를 部分的으로 떼어내서 이것은 비싸고 이것은 싸고 이렇게 指摘이 되시는데 궁극적으로 日本하고, 우리하고 가스가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들어옵니다,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이 내추럴가스는 인도네시아의 땅속에서 採掘해서 委員님들 잘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62도로 생각하면 이것이 액체가 됩니다. 그것을 탱크로 배에 실어서 平澤에 갔다가 놓아두었다가 平澤에서 다시 氣化를 시켜서 가스파이프를 통해서 供給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地域整壓機까지 온 후에는 10km 미만으로 해서 地域整壓機로 나가는 그런 工程을 거치는데 料金體制는 그럼 어떠냐, 料金體制는 委員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消費者 價格이 저희보다 3배가 높습니다, 日本이. 消費者 價格이 3배가 높은데, 그럼 工事體系는 어떠냐, 工事도 都市가스會社가 指定하는 業體가 아니면 施工을 못하게 통상산업규정으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會社 아니면 못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初期에 '93年度 이전까지는 아주 雨後竹筍처럼 이 問題가 이야기가 돼서 참 어려운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저희도 고심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委員님이 왜 供給管이 이러냐, 그 다음에 引入管 工事費를 왜 需用家 負擔에 떠넘기느냐 이 部分인데, 예를 들어서 8m 道路에 供給管을 센터로 하지 않고 지금 委員님 正義대로 담장 境界線까지 간다면 양쪽 道路에 供給管을 다 깔아주어야 됩니다. 이런 非經濟性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國家的으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都市가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m 道路면 가능하면 센터로 가서 그 다

음에 여기에 나머지 4m가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引入管에 분기되어 들어오는 그 事項이 현재 單獨 需要者에게 부담되는 部分임을 솔직히 是認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120萬원, 100 몇 만원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는 設備를 하지 않습니다만, 設備會社가 대부분 저희가 統計的으로 이렇게 보면 5名 내지 7名을 가지고 있는 會社가 年間 한 40億원 내지 50億원의 賣出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유지를 하는 會社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利益이 나느냐, 적어도 10名이 40億원 내지 50億원을 한다고 하면 賣出額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 利益이 불과 8.9%, 9%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많은 利益이라고 저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더군다나 어려운 過程이기 때문에 委員님들이 이 部分에 대해서는 현재 이 體系가 日本 先進國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體系가 다르다. 그리고 한 부분을 빼서 이것은 좀 많고 이것은 좀 하지 않느냐하는 部分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저희가 答辯이 어려운 部分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용한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時間을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委員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또 협조를 구하는 그런 方向으로 한번 時間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答辯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禹元植 委員;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道路上에서부터 土地境界面까지 들어오는 供給管, 그것을 分支管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法에 정해진 供給管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都市가스會社가 設置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규정으로 한다면 아무런 節次 없이 그냥 需用家

가 負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쳐진 것이 需用家가 負擔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이 負擔이 되기 때문에, 供給管 工事하는 것을 區廳長 許可만 받으면 너무 많이 賦課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部分에 있어서는 이것이 供給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區廳長 許可도 받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需用家한테 負擔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指摘이고. 그렇게 왜 규정이 지난 번 것보다 오히려 더 改惡이 됐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施工하는 會社하고의 關係가 아니고 都市 가스會社가 대야지요, 法에 정해진 데 따라서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만든 것도 잘못이지만 이것을 區廳長 許可를 맡게 하다가 지금은 서울市の 承認을 받아서 區廳長 許可를 안 맡아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민한 部分에 대해서 왜 서울市가 자꾸 이렇게 빼놓고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崔大業; 委員님, 제가 이 말씀을 서울市の 입장이 아닌 狀態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이미 供給規程에 標準工事費를 設定할 수 있다 하는 但書면 그 標準工事費가 서울市長님의 裁可事項으로 類推解釋해도 안 되겠습니까?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더 이상 社長님들하고 얘기할 것은 없으나 그 규정을 가스會社 事業者들한테 맡겨놓은 法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꾸 가스會社에서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면서 자기 負擔을 최소화시키고 需用家한테 자꾸 轉嫁시키는 그런 묘한 새로운 概念 아십니까, 이것이. 引入配管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만들어서 자꾸 需用家한테 맡기고

있는데 이제 收益도 생기고 그러셨으니까 이런 것 가스회사에서 대세요.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崔大業; 委員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나름대로 소화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잠깐 거기에 대해서 補充說明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委員님들께 이해를 한번 더 확실하게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引入配管, 또는 分支管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가스사업을 하기 이전부터도 分支管에 대한 問題는 사실은 별도의 개념이었습니다. 供給管 개념에는 분리되어서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81年度부터 계속해서 分支管에 대해서는 日本의 慣例에 따라서 아까 崔社長님 말씀있었습니다만 日本法을 전부 따다 하다보니까, 日本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日本에서도 引入配管 또는 分支管에 대해서는 需用家 負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하고 평행된 區間까지의 부분을 원칙적으로 供給管으로 보고, 그 다음에 法的인 규정을 할 때에 집마다 境界線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자꾸 혼동이 돼서 했는데 그것이 供給管이 아니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供給管이기는 하지만 日本에서의 法에 盲點, 또는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한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供給管이냐, 또는 需用家 負擔이냐 하는 그런 問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政府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94年度 供給規程을 만들 때에 이것을 도로와 並行한 供給管에 대해서 引入配管을 따갈 경우에 별도로 需要家가 負擔한다하는

것을, 負擔의 귀속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니까 供給管에 대해서 100% 負擔을 해야 되느냐, 안하는 것이 사실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2項하고 3項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 지는 것입니다.

○이금라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寧剛; 質疑하세요.

○이금라 委員; 항상 논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지금 거기 규정돼 있는 것을 우리 委員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問題는 그 규정이 母法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지금 말씀은 이 供給規程하고, 母法하고 일치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말씀을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工事費의 負擔에 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母法은 供給管에 대한 정의일 뿐이지 費用의 負擔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금라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母法에는 引入配管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母法에 근거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규정에서 새로이 新設하면서도 규정에서도 引入配管에 대한 정의는 안 내리고 있어요. 앞에 정의 칸이 있지 않습니까, 條項이. 그래 놓고 費用算定할 때만 引入配管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問題의 發端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그 말씀 맞습니다.

○李금라 委員; 是正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10月인지, 9月 京鄉新聞에 輿論化가 되기 시작한 것도 費用算定の 正當性 여부를 떠나서 개념에

서 혼동을 주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보면 그렇게 될 소지를 용어 정의에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委員님들 말씀을 저희가 不正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事業法을 바꾸든지, 예를 들어서 供給管의 규정을 고치든지, 供給管의 정의를 바꾸든지.....

○이금라 委員;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그렇게 안하면 이 규정을 다시 없앤다든지 해서, 그러면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정의된다든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이금라 委員; 먼저부터 그렇게 對答을 하시면되요, 지금 問題發端이 日本法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제 所見은 그렇고,

그 다음에 禹委員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問題를 떠나서도 이제는 담벼락까지는 그것이 引入配管이 됐든, 分支管이 됐든 도시가스회사에서 負擔을 하고, 所有者의 財產權이 행사가 되는 담벼락에서부터는 所有主가 負擔하는 방향으로 가실 意向이 있느냐 그것을 質問한 것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質問을 해석하고 한번 答辯 해 보시죠.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다시 재래식 용어로 얘기를 해서 分支管에 대한 費用負擔을 도시가스회사가 할 義務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費用負擔에 관해서 適法性이나 이런 것을 市에서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도시가스가격에다 反映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없애도 된다 그렇게 생각은 되

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왕에 이것을 낸 사람들과 앞으로 혜택 받아야 되는 衡平性의 問題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라 委員; 지금도 가스料金에는 施設費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있죠?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引入配管에 대한 것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李금라 委員; 회사에서 負擔하고 계시는 主供給管에 대한 것만 가스料金에 얹어집니까?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그렇습니다. 引入配管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가스회사는 회사에서 간配管이든 뭐가 됐든시간에 회사에서 돈을 냈으면 그것을 가스料金에다 다 계산해서 받고 있잖아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社長 李武龍;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直接費에 해당하는 것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도 앉아서.....

○禹元植 委員; 정리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하십시오.

○禹元植 委員;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供給管을 도시가스회사가 내라는 그런 규정이 法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관을 需用家가 내라는 것도 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데 許可條件에 도시가스의 안정적 供給을 위해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者 이렇게 해 놓고, 공급시설은 通商産業部 長官이 정한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한 供給管 규정은 整壓機에서 가스사용자의 土地境界面까지 돼 있습니다. 따라서 都市가스事業法 第3條第3項3號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도시가스의 안정적 供給을 위해 整壓機에서 가스사용자의 土地境界面까지 설치할 능력이 있는 者를 許可를 내줍니다. 그렇게 능력있는 業體를 許可내주면서 아주 돈이 많은 財閥들한테 내 줬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내 줬더니 許可를 받고 나서 供給管工事的 많은 부분을 需用家한테 負擔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供給規程은 아니지만 法이 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왜 도시가스규정에다 本管 및 供給管은 도시가스사업자가 配管한다 다만, 이렇게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法 정신이 供給管까지 즉, 法에 정하고 있는 土地境界面까지는 도시가스회사가 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法의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問題가 돼서 이런 것들의 규정자체가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도시가스회사가 供給管工事を 해야 된다고 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거꾸로도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法의 정신은 분명하게 그것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者를 法으로 許可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가스회사가 설치하는 것이 法정신에 맞는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분명하게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서 이렇게 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신 趣旨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정리합니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그 問題에 대해서는 局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法體系를 봐서 都市가스事業法하고 그 다음에 施行令하고, 또 施行規則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供給規程해서 法體系가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法에 施行令에 施行規則에 없는 引入管이라는 問題가 규정에는 튀어나오느냐 하는 이런 問題가 됩니다. 그러면 引入管이 供給管이나 아니냐 하는 問題는 供給管입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供給管이지만 需要者가 필요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것은 이제까지 需要者가 負擔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母法이나 施行令에도 분명히 引入管이라는 용어를 정리해서 넣어야 되는 問題가 나오고, 그러면 引入管을 이제까지 需要者들이 負擔을 했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供給者가 負擔하는 것으로 된다면 料金體系가 또 변해야 되는 그런 問題가 나오고, 또 引入管을 과연 어느 정도 料金體系에 反映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問題도 나오고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問題는 이번에 禹元植 委員님이나, 이금라 委員님이나 이번에 참으로 좋으신 指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通商産業部하고 저희가 供給規程에 있는 引入管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建議해서 中央하고 협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法體制의 모순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料金이라든지 누가 負擔하느냐 하는 問題는 그 다음 問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오래되어서 죄송한 감이 드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質問을 드

리겠습니다.

도로의 地下管, 주지관이라고도 하고 管路라고도 하죠, 管路를 설치할 경우에 3m당 가스미터기 1個를 설치할 수 있을 경우에 全額을 도시가스負擔으로 管路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豫算不足 등의 이유로 施行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집 같은 경우에는 管路 3m당 가스미터기 1個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스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집 같은 경우에 가스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答辯 해 주시고, 그 다음에 管路工事時 施設分擔金에 대해서 알기로 3等級일 경우에 8萬 9,650원, 5等級 일 경우에 14萬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管路費 全額은 도시가스에서 負擔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에 測量費 관계에 있어서 管路工事時나 빌라같은 집단주택의 경우에 도시가스 標準價格에 포함되지 않고 10月 1日附로 갑자기 돌발적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한 건당 3·4萬원씩을 施工會社에서 負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管路 주체측에서 負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管路는 도시가스의 財産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受託工事は 영업 및 설계감독을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나, 현실이 施工會社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施工會社 人件費 및 工事費 負擔이 많기 때문에 不實工事的 원인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에 管路工事時에 換土를 100% 하게 돼 있는데 換土를 100% 할 시에 m당 4萬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既已 管路工事, 가스관 하단에 10cm 정도 모래를 깔고 가

스관 상단부에 30cm까지 모래를 부설하고서 양질의 토사로 換土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m²당 4萬원 정도의 經費가 더 들고, 또 그로 인해서 실어다 버리고, 또 양질의 土砂를 싣고 오고 함으로써 交通 유발이 되어서 交通소통에도 장애가 되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런 問題는 과연 흙이 폐기물이 없는 순수한 흙이라면 되메울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社長님이 答辯을 해 주시겠어요, 社長님 지목하기가 그러네요. 아무나 좀 答辯해 주셔도 되겠는데.

그리고 마지막 규정을 바꾸는 問題.....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조금 메모가 안 됐기 때문에 實務者들이 메모한 것을 갖다가.....

○委員長 金寧剛; 그래요.

○金聖浩 委員; 그럼 産業經濟局長님 答辯資料 마련하는 도중에 제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金聖浩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浩 委員; 金聖浩 委員입니다. 오늘 서울市內 5個 都市가스會社 社長님들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이 여러 가지 事項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 社長님도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충실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問題는 아마 그 동안에 우리 나라의 燃料體系가 연탄을 쓰다가, 그 다음에 油類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政府施策으로 인해서 長期的이고도 安定的인 燃料供給體系인 내추럴가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으로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3代 市議會때 보면 우리 市議員님들이 地域에서 民願이 생겨서, 燃料課長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많은 地域에서 民願이 생겨서 市廳에 와서 로비도 하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需要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해서 需要에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資金이 얼마가 所要가 되건 供給을 많이 늘려서 일단 供給을 늘려보자 그래서 民願도 解消하고, 일단 管路나 供給管 普及을 擴大시키는 그런 部分에 1次的인 目標의 焦點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제 供給管路도 어느 정도 普及이 되고, 그 다음에 營業利益도 어느 정도 조금씩 보게 되는 이런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市議員님들이 住民의 要求에 의해서 問題提起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규정이 잘못됐니, 또는 母法인 都市가스事業法이 問題가 있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問題가 導出되고, 講論에서 여러 가지 問題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總論에 대해서 다시 問題提起를 하게 되고 이런데, 우리 5個 會社 社長님들도 계시고, 우리 産業經濟局長님 以下 實務者들도 계신데 앞으로 이 問題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方法은 좀더 市民의 입장에서, 우리 住民의 입장에서, 가스使用者의 입장에서 이 모든 관점을 보게 되면 아마 問題를 풀어가는데 좀더 용이하고 서로 모양 좋게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部分에서 各社長님들은 인식의 전환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本委員의 發言을 마칩니다.

○委員長 金寧剛; 答辯 안 들어도 되는 發言이지요?

○金聖浩委員; 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委員員님이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간략하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원래는 産業經濟局長이 答辯 안해도 되고 다른 社長님들이 해야 되는데, 局長께서 하세요, 기왕 수고하시는 것.

○産業經濟局長 李相鎭; 지금 3m當 計量器를 設置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家口가 막다른 집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計量器를 設置하지 않고 세 家口가 돼야지 設置하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行政指導를 해서 일단 設置하는 方向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施設分擔金은 管路工事に 있어서 會社에서 負擔해야 된다고 하는 見解인데 委員長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方向으로 協議해서 推進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測量費用關係는 供給管 供給者가 測量關係 이것은 負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受託工事は 실지로 施工者가 責任이 있다고 하는데 意見を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會社가 管理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市 條例에 管을 묻은 다음에 換土를 모래로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고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전연 되메우기가 아주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一般 良貨의 흙일 경우에는 일단 되메우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關係는 協議를 해서 좀 불합리한 것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寧剛;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質疑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

오늘 參考人으로 參席하여 주신 金東勳 上水道事業本部長과 서울도시가스의 洪民奎 社長, 대한도시가스의 金泰禎 社長, 극동도시가스의 李武龍 社長, 한진도시가스의 金大榮本部長, 강남도시가스의 崔大業 社長, 그리고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支社 金錫烈 支社長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5個 都市가스會社 社長 및 韓國가스安全公社 서울支社 支社長께서는 市民 들이 不便함이 없고 부당함이 없도록 都市가스 供給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市民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市民의 福利增進에 一翼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長時間 동안 1995年度 서울特別市議會 行政事務監査를 성실하게 受監하여 주신 産業經濟局長 및 關係公務員, 그리고 성실하게 答辯하여 주신 參考人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監査에서 指摘된 各 事項에 대하여 執行部에서는 조속한 是正措置를 하여 주시고, 試料錯誤에 의한 市民의 不便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業務進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産業經濟局的 오늘 日程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清掃事業本部所管 行政事務監査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監査에 대한 終了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20時 13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金寧剛 閔泳三 安秉昭 金箕英
金洙福 吳廣烈 禹元植 이금라
李成浩 田炳萬 鄭鎭宇 鄭泰宗
崔永運 黃正植 朴一男 金聖浩

○專門委員

李贊穆

○被監査機關參席者

産業經濟局
局長 李相鎭
燃料課長 金鐘博
都市가스係長 白武景

○其他參席者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昌浩
管理部長 李允熙
流通部長 李圭正
業務部長 姜炳云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東勳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社長 洪民奎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社長 金泰禎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社長 李武龍
한진건설주식회사都市가스事業本部長 金大榮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社長 崔大業
韓國가스安全公社서울支社 支社長 金錫烈